

사도

시노달 번역

목차

사도행전 시작. [1A](#) [1B](#)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A](#) [21B](#)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A](#) [40B](#) [40C](#)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A](#)
[51A](#)

야고보서 [50B](#) [51B](#) [52](#) [53](#) [54](#) [55](#) [56](#) [57A](#) [57B](#)

베드로 전서 [58A](#) [58B](#) [58C](#) [58D](#) [59](#) [60](#) [61](#) [62](#) [63](#)

베드로후서 [64](#) [65](#) [66](#) [67](#) [68A](#)

요한일서 [68B](#) [69](#) [70](#) [71](#) [72](#) [73A](#) [73B](#) [73C](#) [74A](#) [74B](#)

요한의 둘째 서신 [75절](#)

요한의 세 번째 서신 시작 [76](#)

유다서 시작 [77](#) [78](#)

로마서 시작 [79a](#) [79B](#) [80](#) [81A](#) [81B](#) [82](#) [83](#) [84](#) [85](#) [86](#) [87](#) [88A](#) [88B](#) [89](#) [90](#)
[91](#) [92](#) [93](#) [94](#) [95](#) [96A](#) [96B](#) [96C](#)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A](#) [121B](#)

고린도전서 시작. [122](#) [123](#) [124](#) [125A](#) [125B](#) [125C](#) [126](#) [127](#) [128](#) [129](#) [130A](#)
[130B](#)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A](#)
[143B](#) [143C](#)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A](#) [154B](#)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고린도후서 시작. [167A](#) [167B](#)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A](#) [182B](#)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갈라디아서 서문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A](#) [208B](#)
[209](#) [210A](#) [210B](#) [210C](#) [211](#) [212](#) [213](#) [214](#) [215A](#) [215B](#)

에베소서 서문 [216](#) [217](#) [218](#) [219](#) [220A](#) [220B](#) [221](#) [222](#) [223](#) [224A](#) [224B](#) [225](#)
[226](#) [227](#) [228](#) [229](#) [230A](#) [230B](#) [231](#) [232](#) [233](#) [234](#)

빌립보서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골로새서 [249A](#) [249B](#)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A](#)
[260B](#) [261](#)

데살로니가 전서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데살로니가후서 [274A](#) [274B](#) [275](#) [276](#) [277](#)

디모데전서 [278](#) [279](#) [280A](#) [280B](#) [281](#) [282](#) [283](#) [284](#) [285A](#) [285B](#) [285C](#) [286](#)
[287](#) [288](#) [289](#)

디모데후서 [290A](#) [290B](#)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디도서 [300A](#) [300B](#) [301](#) [302A](#) [302B](#)

빌레몬서 [302C](#)

히브리서 시작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A](#) [311B](#) [312](#) [313](#)
[314](#) [315](#) [316](#) [317](#) [318A](#) [318B](#) [319](#) [320](#) [321A](#) [321B](#)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A](#) [329B](#) [330](#) [331A](#) [331B](#) [332](#) [333A](#) [333B](#) [334](#) [335](#)

부록

사도서 읽기 순서:

모든 주간 198

대순교 기간 217

프로키멘과 알렐루야:

주일 224

주중 228

12개월 모음집: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프로키멘, 알렐루야, 사도서:

모든 성인을 위한 300

다양한 경우에 306

성 사도들의 행적

성 사도들의 행전, 서문 1A

내가 너에게 쓴 첫 번째 책은, 테오�필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가르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간, 곧 그분이 성령으로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고난을 겪으신 후 살아 계심을 많은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며,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와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 일로부터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모여 그분께 묻기를 “주님,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왕국을 세우실 때가 아닙니까?”라고 하였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정하신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너희의 몫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1-8
빛나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행전, 1B장

첫 번째 책, 테오�필로여, 나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 곧 그분이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으니, 그분은 성령을 통해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고난을 겪으신 후에도 그들에게 살아 계심을 수많은 증거로 보여 주셨으며,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사 중에 그분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하셨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 며칠이 지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그분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왕국을 세우실 때입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정하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분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눈에서 가려 버렸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

사도행전

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거리의 거리에 있는,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도행전 1:1-12

주님의 승천

사도행전, 제2장

그 무렵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거리의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도착하여 다락방에 올라가 거기서 머물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르톨로메오와 마태, 알패오의 야고보와 시몬 지로,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거기 머물렀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힘쓰며, 몇몇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그때 모인 사람은 약 120명이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를 붙잡아 간 자들의 우두머리였던 유다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었으며, 이 사역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 때부터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던 모든 기간, 곧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웠으니, 바르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 곧 유스다라고 불리는 자와 매티아였다. 그리고 기도하며 말하였다.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여, 이 두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이 사역과 사도직의 몫을 말도록 택하신 한 사람을 보여 주십시오.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 버렸으니, 그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소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마티아에게 떨어졌고, 그는 열한 사도 중 한 사람으로 합류하였다.

사도행전 1:12-17; 21-26

부활 후 첫 주 월요일

사도행전, 제3장

그 무렵, 오순절 날이 다가오자 모든 사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마치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머물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같은 혀들이 갈라져 나타나, 그들 각자에게 하나씩 내려앉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 모든 민족 중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각자가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혼란에 빠졌다. 모두가 놀라 경탄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 말하는 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고향의 방언으로 듣고 있는가?”라고 하였다. 파르티

사도행전

아 사람들과 미디어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유대인과 카파도키아인, 폰토스와 아시아인,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인, 이집트와 키레네에 인접한 리비아 지방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개종자들, 크레타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우리가 우리 각자의 방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니?

사도행전 2:1-11

오순절 주간

사도행전, 4장

그 무렵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쳤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 두시고 내 말을 잘 들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낮 세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을 것이다. 그 날에 내 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내가 하늘 위에서는 기적을, 땅 아래에서는 징조를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가 나리라. 주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변하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14-21

부활 후 첫 주 화요일

사도행전, 제5장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나사렛 예수, 곧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증거하신 그분, 너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분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정에 따라 넘겨지셨으나, 너희가 악한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셨으니, 죽음은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보았으니,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며, 심지어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을 누리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보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면전에서 기쁨으로 나를 채워 주시리. 형제 여러분! 감히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는 죽어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기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일으키시고 그의 보좌에 앉히실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미리 말하기를, 그의 영

사도행전

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부활시키셨으며, 우리 모두가 그 증인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으신 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이 일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두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분명히 알라.

사도행전 2:22-36
부활 주간의 수요일

사도행전, 6장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회개하고, 너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먼 곳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말하기를,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자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 약 삼천 명의 영혼이 교회에 합류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꾸준히 따르며, 교제와 떡 떼기와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경외심이 가득했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2:38-43
부활절 주간의 목요일

사도행전, 7장

그 무렵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 시간인 아홉 시에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거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절름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매일 ‘붉은 문’이라 불리는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고 앉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했다. 그가 성전 입구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우리를 보아라”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였다. “내게는 은이나 금이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네게 주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갑자기 그의 발과 무릎이 튼튼해져서 벌떡 일어나 서서 걷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사도행전 3:1-8
부활절 후 첫 주 금요일

사도행전

사도행전, 8장

그 무렵, 치유받은 절름발이가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을 때, 온 백성이 놀라 솔로몬 현관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에게 몰려들었다. 이를 본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라느냐? 또는 마치 우리가 우리 힘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고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 주려 했을 때 그분 앞에서 부인하였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인 사람을 풀어 달라고 청했으며,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보고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강해졌으며, 그분에게서 온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그에게 이 치유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3:11-16
부활 주간의 토요일

사도행전, 제9장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게 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했다.” 모세는 조상들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예언자를 세우실 것이니,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라.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무엘과 그 이후의 모든 예언자들도, 그들이 아무리 많이 말했더라도, 이 날들을 미리 예언하였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너희를 축복하시며 너희 각자의 악한 행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분을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사도행전 3:19-26
부활절 후 2주 월요일

사도행전, 10장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하며,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아침까지 구금해 두었으니, 이미 저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믿게 되었는데, 그 수가 약 오천 명에 이르렀다. 다음 날, 예루살렘

사도행전

에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와 카야파,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다른 사람들이 모여, 그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었다. “어떤 능력으로, 혹은 어떤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오늘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베푼 선행에 대해, 그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고 있다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분명히 알리노니,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1-10
부활절 후 2주 차 화요일

사도행전, 11장 시작

그 무렵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글을 모르는 평민들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했으나, 한편으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치유받은 사람을 보고는 반박할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을 산헤드린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한 뒤,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이 명백한 기적을 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 그러나 이 일이 백성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위협을 가하여 그들에게 이 이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금지하자. 그래서 그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결코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너희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만 한 뒤 풀어주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은 마흔 살이 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4:13-22
부활절 후 2주 수요일

사도행전, 12장 시작

그 무렵 사도들은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들은 이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 하나님이지요!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 다윗, 주님의 종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소동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도다.’ 땅의 왕들이 반역하였고, 방백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실로 이 성읍에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

사도행전

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여, 주님의 손과 주님의 뜻이 미리 정하신 바를 이루려 하였나이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께서 주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주님의 손을 펴시는 동안, 주님의 종들이 온전한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렸고,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행전 4:23-31
부활절 후 2주 목요일

사도행전, 13장 시작

그 무렵, 아나니아라는 한 남자가 아내 사프이라와 함께 소유지를 팔아 그 대금 중 일부를 아내의 동의하에 숨겨두고, 나머지 일부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일부를 숨기려는 생각을 품게 했느냐? 네가 소유한 것이 네 것이 아니었느냐? 팔아서 얻은 돈도 네 권세 아래 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아나니아는 숨을 거두고 쓰러졌고, 이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다. 청년들이 일어나 그를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밖으로 옮겨 장사 지냈다. 그로부터 세 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다. “말해 보시오. 그 땅을 그 가격에 팔았습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네, 그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주님의 성령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당신 남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도 밖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젊은이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시신을 옮겨 남편 곁에 장사 지냈다. 이에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

사도행전 5:1-11
부활절 후 2주 금요일

사도행전, 14장 시작

그 무렵 사도들의 손으로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으며,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현관에 머물렀다. 외부인 중에서는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찬양하였다. 믿는 자들은 점점 더 주님께로 모여들었는데,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 병자들을 거리로 끌어내어 침대와 돛자리에 눕혀 두곤,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 누군가에게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주변 도시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 모두가 치유를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사두개파에 속한 자들은 모두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도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

사도행전

을 민중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들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라.”

사도행전 5:12-20
부활절 후 2주, 성 토마스 사도

사도행전, 15장 시작

그 무렵, 사도들은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다. 그 사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와서 산헤드린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려오라고 보냈다. 그러나 경비병들이 가서 감옥에서 그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고하며 말하기를, “감옥은 모든 안전 조치를 갖추고 문 앞에는 경비병들이 서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문을 열어 보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경비대장, 그리고 다른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때 경비대장은 시종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강제로 데려오지 않고,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쳐 죽일까 두려워하여 평화롭게 데려왔다. 그들을 데려와 산헤드린 앞에 세우자,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단호히 금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웠고, 우리에게 그분의 피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답하여 말하였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 지도자이자 구세주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대한 그분의 증인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십니다. 이를 들은 그들은 분노로 터질 듯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꾀했습니다.

사도행전 5:21-33
부활절 후 2주째 안식일

사도행전, 16장 시작

제자들의 수가 늘어날 무렵, 헬레니스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불평이 일어났는데, 이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받는 식량에서 소외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열두 사도가 많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식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평판이 좋은 일곱 사람을 뽑아라. 우리가 그들을 이 일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 제안이 온 회중의 마음에 들었으므로, 그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테반과 빌립, 프로코로, 니카노로, 티몬, 파르메노,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회심한 안티오키아 출신의 니콜라오를 뽑아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한 뒤 그들에게 안수하였

사도행전

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사도행전 6:1-7

부활절 후 3주, 성녀 향유 여인들

사도행전, 17장 시작

그 무렵,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스테반은 백성들 가운데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었다. 소위 ‘리버티파’, ‘키레네파’, ‘알렉산드리아파’ 회당 사람들과, 키리키아와 아시아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하는 지혜와 성령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때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도록 부추겼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산헤드린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가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관습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공의회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다.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였다. “그 말이 사실인가?”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형제들과 아버지들아,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란으로 이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여 그는 칼데아 땅을 떠나 하란에 정착하였고,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에게 밭 디딜 만한 땅 한 뼘도 유산으로 주지 않으셨으나, 솔로몬은 그분께 성전을 지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니,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셨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을 것이며, 나의 안식처로 삼을 곳이 어디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악한 자들아!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이 쫓아내지 않은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인의 오심을 예고한 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이제 그 의인을 배반하고 살해한 자들이 되었다. 너희는 천사들의 봉사를 통해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고,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스테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내가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인자(人子)를 보노라.” 그러나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귀를 막고, 한목소리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하였다. 증인들은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두고, 스테파노를 돌로 치기 시작했는데, 스테파노는 기도하며 말하였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 주소서.” 그리

사도행전

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숨을 거두었다.

사도행전 6:8-7:5A, 47-60

부활절 후 3주 월요일.

12월 27일, 첫 순교자이자 대집사 스테파노

사도행전, 18장 시작

그 무렵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에 들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백성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한목소리로 경청하며, 그가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들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들이 큰 비명을 지르며 나갔고, 많은 마비자와 절름발이들이 치유되었기 때문이다. 그 도시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 도시에 시몬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전에 마술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마치 자신이 위대한 인물인 양 행세하곤 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를 경청하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했다. 사람들이 그를 귀담아들은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빌립을 믿게 되자, 남녀를 막론하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게 되어 세례를 받고는 빌립을 떠나지 않았으며, 큰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들이 도착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직 그들 중 누구에게도 임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8:5-17

부활절 후 3주 차 화요일

사도행전, 19장 시작

그 무렵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밀며 말하였다.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 은은 너와 함께 멸망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이 일에 참여할 몫도 몫을 나누는 제비도 없으니,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쩌면 네 마음의 생각이 용서받을지도 모르니, 내가 보기에 너는 쓴 담즙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의 멍에를 메고 있느니라.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께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하신 일들이 내게 닥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사도행전, 20장 시작

그 무렵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향하는 길, 즉 사람이 드문 그 길로 가라.” 빌립은 일어나 그곳으로 갔다.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인 한 내시가,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키아의 고관이자 그녀의 모든 보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마차에 앉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병거 곁으로 다가가라.” 빌립이 다가가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물었다. “읽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누가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에게 올라타서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러했다. “그분은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셨고,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소리 내지 않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가 겸손히 당하신 가운데 그의 심판이 이루어졌도다. 그러나 누가 그의 족보를 밝힐 수 있으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선지자가 이 말을 누구에 대해 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대한 것입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구절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그 사이 길을 가다가 물가에 이르렀더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데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가능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거를 멈추라고 명령했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이 내시에게 임하셨고, 주님의 천사가 빌립을 데려가니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며, 기뻐하며 길을 계속 갔다.

사도행전, 21장

그 무렵 빌립은 아소도에 이르러, 지나가며 모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채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보낼 편지를 요청하여,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묶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하였다.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거슬러 가는 것은 어렵다. 사울은 두려움과

사도행전

공포에 사로잡혀 “주님, 제가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그와 함께 가던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으나 눈을 떴음에도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다.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대답했다. “네, 주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타르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저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대제사장들에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열방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선포할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보여 주리라.”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여! 네가 가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주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 즉시 마치 비늘이 그의 눈에서 떨어지듯 하여, 갑자기 그가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 기력을 회복하였더라.

사도행전 8:40-9:19
부활절 후 3주 금요일

사도행전, 21B장

그 무렵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니아야!” 그가 대답했다. “네, 주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타르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저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대제사장들에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열방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선포할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보여 주리라.”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손을 얹고 말하였다. “사울 형제여! 네가 가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주 예수님께서, 네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사도행전

충만해지도록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 즉시 마치 비늘이 그의 눈에서 떨어지듯 하여, 갑자기 그가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어 기력을 회복하였더라.

사도행전 9:10-19
10월 1일, 성 사도 아나니아

사도행전, 22장 시작

그 무렵 사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자들과 며칠을 지냈다. 그리고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듣는 자마다 놀라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하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게다가 그들을 체포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데려가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확신을 굳혀가며,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 시간이 꽤 지난 후,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의 그 음모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에서 지키고 있었다. 제자들은 밤에 그를 데리고 나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 아래로 내려보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자들에게 합류하려고 했으나, 모두가 그가 제자라고 믿지 못해 그를 두려워했다.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가는 길에서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설교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하였다. 또한 헬라파 사람들과 토론하며 논쟁을 벌였으나,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고, 거기서 다시 타르스로 이송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의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성장해 갔으며, 성령의 위로로 인해 점점 더 번성해 갔다.

사도행전 9:19b-31
부활절 후 3주째 안식일

사도행전, 23장

그 무렵 베드로가 곳곳을 두루 다니며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에네아라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이미 8년 동안 마비로 인해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니, 네 침상에서 일어나 거라.” 그러자 그가 즉시 일어났다. 리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섰다. 요피아에는 타비파라는 이름의 한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암염소’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선한 행실로 가득 차 있었고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그 무렵 그녀가 병들어 죽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씻어 방에 안치했다. 룻다가 요피아와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없이 그들에게 와 달라고 청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고, 그가 도착하자 그를 다락방으로 안내했다. 모든 과부들이

사도행전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 나아가, 세르나가 그들과 함께 살 때 만들어 두었던 윗옷과 치마들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모두를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시신을 향해 말하였다. “타비파여, 일어나라.”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자 앉았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모아 그녀를 살아 있는 채로 그들 앞에 세웠다. 이 일이 요피아 전역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9:32-42

부활절 후 넷째 주, 마비된 사람에 관하여

사도행전, 24장

그 무렵 가이사랴에 코르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불리는 군단의 백부장이었으며, 온 집안과 함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백성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였다. 그는 낮 아홉 시경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보았는데, 그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 말하였다. “코르넬리우스여!” 그가 천사를 보고 깜짝 놀라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물었다. 천사가 그에게 대답했다. “네 기도와 자선 행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그러니 요피아로 사람을 보내어 시몬, 일명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는 가족 장수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다가에 있다. 그가 네게 말할 말을 들으면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코르넬리우스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떠나자,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종 두 명과 그와 함께 있던 경건한 군인 한 명을 불러 모든 일을 이야기한 뒤, 그들을 요피아로 보냈다. 다음 날, 그들이 길을 떠나 도시에 가까워졌을 때, 베드로는 여섯 시 무렵에 기도를 드리려고 집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배가 고파져 먹을 것을 찾았다.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황홀한 상태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마치 네 모서리를 묶어 땅으로 내려오는 큰 천과 같은 어떤 그릇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서 먹어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결코 더럽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반복되었고,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사도행전 10:1-16

부활절 후 4주 월요일

사도행전, 25장

그 무렵, 베드로가 고르넬리오가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말하였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코르넬리우스 백부장은 덕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 유대 백성에게 인정받는 자인데, 거룩한 천사로부터 명령을 받아 당신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

사도행전

을 초대하여 대접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 요피아의 형제들 중 몇 사람도 그와 동행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고르넬리우스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르넬리우스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며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이방인과 어울리거나 친하게 지내는 것이 금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람도 더럽거나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름을 받자마자 주저 없이 왔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고르넬리우스가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있었고, 아홉 시에 제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밝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고르넬리우스여! 네 기도가 들렸고, 네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그러니 요피아로 가서 시몬, 일명 베드로를 불러오시오. 그는 바다가에 있는 가죽 장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으니, 그가 와서 네게 말해 줄 것이다. 내가 즉시 네게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와 준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네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도행전 10:21-33
부활절 후 4주 차 화요일

사도행전, 26장 시작

그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진실로 깨닫노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며, 어떤 민족에서든지 그분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 기쁘시게 여겨지나이다. 그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전하셨으니,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시니라.”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전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께 기름 부으셨고, 그분은 선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다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마침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인 사실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던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이심을 증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34-43

사도행전, 27장

그때 베드로가 말을 계속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였으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명하였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할례를 받은 자들이 그를 책망하며 말하였다. “네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순서대로 설명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요피아 성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황홀한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노라. 마치 큰 천과 같은 그릇이 네 모서리를 잡고 하늘에서 내려와 내게로 내려왔다. 내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땅의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 다니는 것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이 보였다. 그때 한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서 먹어라’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주님, 결코 더럽거나 부정한 것이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니,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오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 하셨다. 이 일이 세 번 반복된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사도행전 10:44-11:10

부활절 후 4주 금요일

사도행전, 28장

그 무렵, 스데반의 순교 이후 일어난 박해로 흩어진 제자들은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안티오키아까지 이르렀으나, 유대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티오키아로 보내기로 하였다. 바나바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권면하였으니, 그는 선한 사람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후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타르스로 갔다가 그를 찾아내어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일 년 동안 교회에 모여 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안티오키아의 제자들은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

사도행전

다. 그때 제자들은 각자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장로들에게 모은 것을 보내어 이를 실행에 옮겼다.

사도행전 11:19-26; 29-30

부활절 후 5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하여

사도행전, 29장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후 베드로를 잡아들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구금하여 감옥에 가두고, 네 부대의 병사들에게 그를 지키게 하여, 유월절이 지난 후에 그를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동안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었다.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할 때,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 누워 두 개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문 앞의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자 빛이 감옥을 비추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찢어 깨우며 말하였다. “어서 일어나라.”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띠를 매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는 그대로 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르고, 마치 환상을 보는 줄만 생각하며 천사를 따라 나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병대를 지나자, 그들은 도시로 통하는 쇠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한 거리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천사가 그의 곁에서 사라졌다.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말하였다. “이제야 비로소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기대하던 모든 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1-11

부활절 후 4주째 안식일.

4월 23일, 대순교자 게오르기우스.

4월 30일, 성 사도 야고보(제베데오의 아들)

사도행전, 30장 시작

그 무렵 베드로가 주위를 살피고 나서, 마르코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다라는 이름의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는 기쁨에 차서 문을 열지 않고는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녀에게 “네가 제정신이냐?”라고 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말을 고집했다. 그들은 “그의 천사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사이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으로 입을 다물라는 신호를 보내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사도행전

그들에게 이야기한 뒤, “이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리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다른 곳으로 갔다.

사도행전 12:12-17

부활절 후 5주 월요일

사도행전, 31장 시작

그 무렵 바나바와 사울은 사명을 완수한 후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돌아왔는데, 마르코라고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왔다. 안티오키아에 있는 그 교회에는 몇몇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 테트라르크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일,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신 사역에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세우라.” 이에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 주었다. 이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셀레우키아에 이르렀고, 거기서 키프로스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살라민에 머물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섬기던 요한도 있었다. 섬 전체를 가로질러 파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바리수스라는 이름의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는 현명한 사람인 총독 세르기오 파울로와 함께 있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술사 엘리마(그 이름이 바로 그 뜻이다)는 그들에게 대항하며, 총독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사울, 곧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노려보며 말하였다. “오, 온갖 간사와 온갖 악행을 가득 품은 자여, 마귀의 아들, 모든 진리의 원수여! 주님의 바른 길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이제 보라, 주님의 손이 네게 임하리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갑자기 어둠과 암흑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안내자를 찾았다. 그때 총독은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 믿음을 갖게 되었다.

사도행전 12:25-13:12

부활절 후 5주 차 화요일

사도행전, 32장

그 무렵,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떠난 바울과 그와 함께하던 이들은 팜필리아의 페르기아에 도착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페르기아를 떠나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읽힌 후, 회당 장로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형제들아, 백성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바울이 일어나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 머물던 때에 이 백성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며, 강한 팔로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 내시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도행전

땅에서 일곱 민족을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후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후 그들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 키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에 대해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으니, 그가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바로 그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주 예수님을 세우셨다. 그분이 나타나시기 직전, 요한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사도행전 13:13-24
부활절 후 5주째 수요일

사도행전, 33장

그 무렵, 요한이 사명을 다할 무렵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러나 보라,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여,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이 너희에게 보내졌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죄함으로써, 매 안식일마다 읽히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으며, 그분에게 죽을 만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자, 그들은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관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분은 여러 날 동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분과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들은 지금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우리, 곧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루어 주셨다.

사도행전 13:25-32
8월 29일, 세례자 요한의 참수 축일

사도행전, 34장

그 무렵 바울과 바나바는 리카오니아 지방의 도시인 루스트라와 데르비아와 그 주변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리스트라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하여 앉아서만 지내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설교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바라보며 그가 치유를 받을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말하노니,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가 즉시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백성들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리카이온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의 형상을 한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을 헤르미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말씀을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성문 앞에 있던 제

사도행전

우스 우상의 제사장은 소들을 성문으로 데려오고 화환을 바치며,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려 하였다. 그러나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짓 신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지난 세대들 동안 모든 민족이 각자의 길을 걷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고 열매 맺는 때를 주며,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는 선한 행실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겨우 백성들을 설득하여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 14:6-18A

부활절 후 4주 수요일, 오순절 중간

사도행전, 35장 시작

그 무렵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데르비아로 떠났다.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꽤 많이 얻은 후, 그들은 다시 리스트라, 이코니아, 안티오키아를 지나가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 안에 머물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운 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믿은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 후, 피시디아를 지나 팜필리아에 이르러, 페르기아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 뒤 아탈리아로 내려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돌아갔으니,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사역을 수행했던 자들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여 교회를 소집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방법을 이야기했다.

사도행전 14:20-27

부활절 후 5주 목요일

사도행전, 36장

그 무렵, 바리새파 이단 중 믿는 자들 중 일부가 일어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으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주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씌우려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온 회중이 잠

사도행전

잠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표적과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말을 시작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시몬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백성을 이루시려고 하셨음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바니, 기록된 바와 같이 ‘그 후에 내가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안에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며, 그것을 고쳐 세우리니, 이는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이 선포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분의 모든 일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방해하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과 음행, 목졸라 죽인 고기와 피를 멀리하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권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옛날부터 모든 도시에서 전파되어 왔으며,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함께 의논하여,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바로 바르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로,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들로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건네주었다.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형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 킬리키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사람들이 말로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 마음을 흔들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 바가 아니었으므로, 우리는 모여 만장일치로 의논하여, 몇몇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하였으니,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이들입니다. 이에 우리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 이 내용을 말로 직접 전해 드리게 하였습니다. 성령과 우리 모두는 여러분에게 이 필수적인 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떤 부담도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곧 우상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고기와 음행을 피하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평안하라.” 이에 파송된 자들이 안티오키아에 도착하여 사람들을 모아 편지를 전달하였다. 그들은 편지를 읽고 이 가르침에 기뻐하였다. 유다와 실라는 또한 선지자였으므로, 풍성한 말씀으로 형제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웠다. 그곳에 얼마 동안 머물렀던 그들은 형제들에 의해 사도들에게로 무사히 보내졌다. 그러나 실라는 그곳에 머물기로 했다.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도행전 15:5-34
부활절 후 5주 금요일

사도행전, 37장

그 무렵 바울과 바나바는 안티오키아에 머물며,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었다. 얼마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다시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던 모든 도시의 형제들을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 바나바는 요한, 일명 마르코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그들과 헤어지고, 그들이 파송받은 사역을 함께 수행하지 않았던 요한을 데려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겨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배를 타고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동행자로 삼아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파송받아 시리아와 길리키아를 두루 다니며 교회들을 굳건히 세웠다.

사도행전 15:35-41
부활절 후 5주째 안식일

사도행전, 38장

그 무렵, 사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가던 중,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한 여종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녀는 점치는 일을 통해 주인들에게 큰 수입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녀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했다. 바울은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그녀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그 영이 즉시 나갔다. 그때 그녀의 주인들은 수입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으로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관들에게 데려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이어서는 안 되며,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들을 향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고, 군관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령하여 심하게 매질한 뒤, 감옥에 가두며 간수에게 그들을 엄중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안쪽 감방에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웠다. 한밤중 무렵,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수감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고, 즉시 모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족쇄가 풀렸다. 감옥 경비장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하여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불을 달라고 요청하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 떨어져 바울과 실라에게 옆드린 뒤,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말하였다. “주인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그 밤중에 그들을 데려가 그들의 상처를 씻어 주고, 즉시 자신과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기뻐하였다.

사도행전 16:16-34

사도행전, 39장

그 무렵 바울과 실라는 앰피폴과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평소처럼 그곳에 들어가 세 안식일 동안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했으며,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수님이심을 알려 주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믿게 되어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 중에서 매우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귀부인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있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질투하여 광장에서 불량배 몇 명을 데려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백성들 앞으로 끌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도시 관리들에게 끌고 가며, “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소동꾼들이 이곳에도 왔고,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으며, 그들은 모두 카이사르의 명령에 거역하여 다른 사람인 예수를 왕으로 숭배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이 말을 들은 백성과 도시 관리들은 크게 동요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야손과 다른 이들에게서 확인을 받은 후 그들을 풀어주었다. 형제들은 즉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냈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선량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들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매일 성경을 살펴보며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중 많은 이가 믿게 되었는데, 헬라인의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믿게 되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곳으로 와서 백성을 선동하고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형제들은 바울을 마치 바다로 가는 것처럼 즉시 떠나보냈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남았다. 바울을 호위한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배웅하고, 실라와 디모데에게 서둘러 그에게 오라는 지시를 받은 뒤 떠났다.

사도행전 17:1-15

부활절 후 6주 월요일

사도행전, 40A장

그 무렵,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보고 마음이 격해졌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토론했고, 매일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철학자들 중 몇몇이 그와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 허풍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보아하니 그는 낯선 신들에 대해 설교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 아레오파고로 데려가며 말하였다. “네가 전파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사도행전

있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낯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것보다 더 즐겨 하는 일이 없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유독 경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돌아다니며 여러분의 성소들을 살펴보던 중,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 있는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배하고 계신 바로 그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도 않으시며,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혈통에서 온 인류를 창조하사 온 땅의 면면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거처에 정해진 때와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그분을 느끼고 찾지 못할까 염려하심이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시인들 중 몇몇이 말한 바와 같으니라: “우리는 그분의 족속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신성을 인간의 기술과 상상력으로 빚어낸 금이나 은, 또는 돌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무지의 시대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곳곳에서 회개할 것을 명하시니, 이는 그분이 미리 정하신 분을 통해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으며,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듣고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때에 네 말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 붙어 믿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고스와 다마르라는 여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16-34

10월 3일, 성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트

사도행전, 40B장

그 무렵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파고로 데려가며 말하였다. “네가 전파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우리 귀에 낯선 말을 들려주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아테네 사람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일이 없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한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유독 경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거닐며 여러분의 성소들을 둘러보던 중,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겨진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배하고 계신 바로 그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도 않으시며, 마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

사도행전

김을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혈통에서 온 인류를 창조하사 온 땅의 면면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거처에 정해진 때와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찾지 못할까 염려하심이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19-28A
부활절 후 6주 차 화요일

사도행전, 40B장

그 무렵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막 온 폰토스 출신의 아킬로라는 유대인과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를 만났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들에게로 가서, 같은 직업을 가진 관계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였으니,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그는 회당에서 말하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자,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반대하고 비방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의 피는 너희 머리 위에 있도다.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그곳을 떠나, 회당 근처에 사는 유스투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다. 회당장 크리스포는 온 집안과 함께 주님을 믿었고, 고린도 사람 중 많은 이도 그 말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고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곳에 일 년 여섯 달 동안 머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18:1-11
5월 11일, 콘스탄티노폴의 재건.
도시의 건립을 기념하여

사도행전, 41장

그 무렵 바울은 가이사랴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를 문안하고 안티오키아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문 뒤, 갈라디아와 프리기아 지방을 차례로 순회하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아폴로라는 이름의 한 유대인이, 웅변가이자 성경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에베소에 왔다. 그는 주님의 길에 대한 기초를 배웠고, 열정적으로 주님에 대해 올바르게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는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들은 아퀼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를 맞아들여 주님의 길을 더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 그가 아카이아로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형제들은 그곳의 제자들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환영하도록 준비시켰고, 그가 그곳에 도착하여 은혜로 믿음을 가

사도행전

진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히 반박하며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8:22-28
부활절 후 6주째 수요일

사도행전 42장

그 무렵, 아폴로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은 내륙 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성령이 계신지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요한의 세례로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를 듣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수는 모두 열두 명 정도였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는 두려움 없이 세 달 동안 설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증거했다.

사도행전 19:1-8
부활절 후 6주째 금요일.
1월 7일, 세례 요한

사도행전, 43장

그 무렵,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이 떡을 떼기 위해 모였을 때, 바울은 다음 날 떠나려 했기에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정까지 말씀을 이어갔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이 꽤 많이 켜져 있었다. 바울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창가에 앉아 있던 에우티크라는 청년이 깊은 잠에 빠져 비틀거리며 졸린 채로 세 번째 층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죽은 채로 주워졌다. 바울은 내려와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꺼안으며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영혼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새벽이 될 때까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소년이 살아 있는 채로 데려오자, 그들은 크게 위로를 받았다.

사도행전 20:7-12
부활절 후 6주째 안식일

사도행전, 44장

그 무렵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밀레토스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은 후, 그들이 그에게 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성령께서 여러분을 목자로 세우신 온 양 떼를 잘 돌보아, 주님이 자신의 피

사도행전

로 사신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떠난 후에 무자비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 떼를 해칠 것이며,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궤환한 말을 하여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내가 삼 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너희 각 사람을 가르쳤음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노니, 그분은 너희를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유업을 주실 수 있으시니라. 나는 누구에게서도 은이나 금이나 옷을 바라지 않았으니, 너희도 잘 아시다시피 내 필요와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의 필요를 이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였노라.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고하며 약한 자들을 부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마치시고는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16-18A; 28-36

부활절 후 7주, 제1차 공의회 성부들 주일

사도행전, 45장

그 무렵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은 길을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머물렀다.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네 딸이 있었다. 우리가 그곳에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때, 유대 지방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우리에게 들어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며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묶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을 듣자, 우리와 그곳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바울은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포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설득할 수 없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사도행전 21:8-14

부활절 후 7주째 월요일

사도행전, 46장

그 무렵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마친 뒤,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 정결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며, 그들 각자를 위해 제물을 바쳐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일주일 이 다 되어 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백성을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얹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곳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 성소를 거스르는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헬라인들을 성전으로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도시에서 에베소 사람 트로피모가 그와

사도행전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려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온 도시가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고, 곧바로 성전 문이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스러워졌다는 소식이 천부장에게 전해졌다. 그는 즉시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갔고, 그들은 천부장과 병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쳤다.

사도행전 21:26-32
부활절 후 7주 차 화요일

사도행전, 47장 시작

그 무렵, 바울은 산헤드린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바울의 입을 때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회칠한 벽아! “너는 율법에 따라 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때리라고 명령하느냐?”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독하느냐?” 바울이 말하였다. “형제들아,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기록된 바 ‘네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그곳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한 무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른 무리로 나뉘어 있음을 알고, 산헤드린에서 외쳤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회중이 갈라졌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이다. 큰 소동이 일어났고,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일어나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툼이 더욱 심해지자, 천부장은 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일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데리고 나와 요새로 데려가게 하였다. 그 다음 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라,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23:1-11
부활절 후 7주째 수요일

사도행전, 48장 시작

그 무렵 아그립바 왕과 베레니케가 페스도를 축하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는 왕에게 바울의 사건을 언급하며 말하였다. “여기 펠릭스가 쇠사슬에 묶어 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로마인들은 피고인이 고발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혐의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얻기 전에는 누구도 사형에

사도행전

처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이곳에 오자, 나는 지체 없이 바로 다음 날 재판 석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를 둘러싼 고발자들은 내가 예상했던 어떤 혐의도 제시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죽은 어떤 예수에 대해 그와 논쟁을 벌였는데, 바울은 그분이 살아 계신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25:13-19
부활절 후 7주째 목요일

사도행전, 49장

그 무렵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말하였다. “네가 스스로 변론할 수 있다.” 그러자 바울이 손을 펴고 자기 변호를 시작하였다. “아그립바 왕이시여! 오늘 제가 유대인들이 저를 고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왕께서는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논쟁적인 견해를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말을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내 백성들 가운데서 지내온 내 삶의 전모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우리 신앙의 가장 엄격한 가르침에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명령을 받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한낮에 길 위에서 전하, 저는 하늘에서 태양의 광채를 능가하는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이 저와 함께 가던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에 엎드려졌고, 저는 히브리어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낮을 거슬러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제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라고 묻자, 그분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나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본 것과 내가 네게 드러낼 것들을 전하는 종이자 증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너를 유대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구원하여, 내가 지금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과 함께 몫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아그립바 왕이여, 나는 하늘에서 받은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다음에는 온 유대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6:1-5; 12-20
5월 21일, 성 콘스탄티노스 황제

사도행전, 50A장

그 무렵, 우리가 이탈리아로 항해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바울과 다른 몇몇 포로들을 아우구스투스 군단의 백부장인 율리우스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미스 배에 올라타 아시아 지방을 따라 항해할 생각으로 출발하였다. 우리와 함께 테살로니카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가 있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정박했다. 율리우스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그가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거기서 출발하여 우리는 역풍 때문에 키프로스에 도착했고, 킬리키아와 팜필리아를 향해 바다를 건너 리키아의 미라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발견하고 우리를 그 배에 태워 주었다.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다가, 우리에게 불리한 바람 탓에 크니도스와 겨우 나란히 지날 무렵, 우리는 살몬 근처의 크레타 섬에 다다랐다. 그곳을 간신히 지나친 뒤, ‘좋은 부두’라고 불리는 한 곳에 도착했는데, 그 근처에 라세아라는 도시가 있었다. 그러나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금식 기간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지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항해는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큰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조타수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다. 또한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곳을 떠나 가 능하면 남서풍과 북서풍을 막아주는 크레타의 항구인 피니카까지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 자고 조언했다. 남풍이 불자, 그들은 이미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출발하여 크레타 섬 근처를 항해했다. 그러나 곧 ‘유로클리돈’이라 불리는 거센 역풍이 불어닥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려 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다녔다. 그리고 클라우다라 고 불리는 작은 섬에 부딪혔을 때, 간신히 배를 붙잡을 수 있었다. 배가 물 위로 떠오르자, 우 리는 구호 물품을 사용하고 배를 묶기 시작했으며, 좌초될까 두려워 뜻을 내리고 그 상태로 표 류했다. 다음 날, 폭풍이 우리를 심하게 몰아치자 화물을 버리기 시작했고, 사흘째 되는 날에 는 우리 손으로 직접 배에 실린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며칠 동안 해나 별도 보 이지 않고 거센 폭풍이 계속되자, 마침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곤경과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며, 배만 침몰할 뿐입니다. 내가 속해 있고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난밤 내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카이사르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네게 주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내 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섬에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아드리아 해에서 14일째 밤, 우리가 표류하고 있을 무렵,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어떤 땅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짐작하기 시작했고, 수심을 측정한 결과 20자(丈)를 기록했으며,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시 측정한 결과 15자(丈)를 기록했습니다. 바위 지대에 부딪힐까 봐 두려워하여 선미에서 닻 네 개를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 하여, 마치 뱃 머리에 닻을 내리려는 척하며 작은 배를 바다로 내리고 있을 때,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배에 남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작은 배의 밧줄을 잘라내자, 배는 물에 빠졌다. 날이 밝기 전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사도행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였다. “오늘로 여러분이 기다리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열네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음식을 드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머리카락 한 올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빵을 집어 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뒤, 쪼개어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다. 배에 탄 우리 모두는 이백칠십육 명이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 그들은 밀을 바다에 버려 배의 짐을 덜기 시작하였다. 날이 밝았을 때, 육지는 알아볼 수 없었고, 다만 경사가 완만한 해안을 가진 작은 만 하나만 보였기에, 가능하다면 배를 그곳에 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아갔으며, 키를 풀고 바람을 타고 작은 돛을 올린 뒤, 해안을 향해 나아갔다. 모래톱에 부딪혀 배가 좌초되었다. 뱃머리는 모래에 파묻혀 움직이지 못했고, 선미는 파도의 힘에 부딪혀 부서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누군가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로들을 죽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고자 하여 그들을 말리고, 헤엄칠 줄 아는 자들에게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나가라고 명령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판자나 배에서 뜯어낸 어떤 물건에 의지하여 탈출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모두 육지로 무사히 탈출했다.

사도행전 27:1-44
부활절 후 7주 금요일

사도행전, 51A장

그 무렵, 살아남은 바울과 함께 있던 이들은 그 섬의 이름이 멜리토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상당한 인자함을 베풀었는데, 이는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불을 피워 우리 모두를 맞아주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많이 모아 불에 던지던 중, 열기를 피해 나온 독사가 그의 팔에 매달렸다. 이방인들은 그의 팔에 매달린 뱀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 살인자일 것이다. 바다에서 살아남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살려두지 않으시니 말이다.” 그러나 그는 뱀을 불 속으로 털어 버리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염증을 일으키거나 갑자기 죽어 쓰러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오랫동안 지켜보아도 그에게 아무런 해가 없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고 말하였다. 그곳 근처에는 푸블리우스라는 섬의 수장이 소유한 저택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를 맞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푸블리우스의 아버지는 열병과 복통으로 앓고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 치유해 주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찾아와 치유를 받았으며, 우리에게 큰 예우를 베풀고 떠날 때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주었다. 삼 개월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거울을 나던 ‘디오스쿠리’라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항하여 시라쿠사에 도착해 사흘 동안 머물렀다. 거기서 배를 타고 리기아에 도착했고, 하루 뒤 남풍이 불자 이틀 만에 푸테올에 도착하여 형제들을 만났으며, 그들에게 7일 동안 머물러 달라는 간청을 받고 나서 로마로 향했다. 그곳의 형제들은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아 광

사도행전

장과 세 여관까지 나와 우리를 맞이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자 백부장은 포로들을 군 사령관에게 넘겼고,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사흘 뒤 바울은 유대인 중 가장 저명한 자들을 소집하였고, 그들이 모이자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에 거스르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예루살렘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은 나를 재판한 후, 내게 죽을 만한 죄가 없음을 알고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카이사르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는 내 백성을 무엇으로든 고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내가 여러분을 불러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족쇄를 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대 지방에서 당신에 관한 편지도 받지 못했고, 방문한 형제들 중에서도 당신에 대해 알리거나 나쁜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입에서 직접 듣고 싶다. 이 가르침에 대해 곳곳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에게 낱자를 정해 주었고, 아주 많은 사람이 여관에 있는 그를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설명하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확신시켜 주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말에 납득했으나,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던 중,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자 그들은 자리를 떠났다.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는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귀로는 듣기 어렵고, 눈은 감아 버렸으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려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음을 알라.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가 이 말을 하자, 유대인들은 서로 크게 다투며 떠났다. 바울은 온전히 두 해 동안 자기 생계를 꾸리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담대함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 28:1-31

부활절 후 7주째 안식일

야고보서

야고보서, 50B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흠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평안을 빕니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라. 인내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하니, 그리하여 너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리라. 혹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꾸짖음 없이 아낌 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일렁이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의 물결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마음이 두 갈래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확고하지 못합니다.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낮추는 것으로, 부자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할 것이니, 그는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더위가 찾아오면, 그 더위가 풀을 말리고 꽃은 떨어지며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나니, 부자도 자기의 길에서 이와 같이 시들어 가느니라. 유혹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시험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혹을 당할 때, 아무도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신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유혹받지 않으시며, 그분께서도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나, 각 사람은 자기의 정욕에 이끌리고 유혹되어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정욕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이루어지면 죽음을 낳는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곧 변함이 없으시고 변동의 그림자조차 없으신 만물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은 뜻하심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1-18

31주 수요일

야고보서, 51B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모든 사람은 듣는 데는 신속하고, 말하는 데는 느리며, 분노하는 데는 더디어야 하리니,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악의의 잔재를 벗어 버리고, 온유함으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는 사

야고보서

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고는 떠나가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을 깊이 새기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잊어버리기 쉬운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서, 그 행함으로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중에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자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흠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가 겪는 슬픔을 돌보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것이다.

야고보서 1:19-27

31주 목요일

야고보서, 52장

형제들아, 우리 주이시며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편파 없이 믿으라. 만일 너희 모임에 금반지를 끼고 호화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초라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면, 너희가 호화로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그에게 “여기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저기 서라’거나 ‘내 발치에 앉아라’라고 한다면, 너희는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리고 악한 생각을 품은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들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다. 부자들이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재판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선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왕의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파적으로 행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 앞에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하면, 그대는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자들로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요, 자비는 심판보다 더 높습니다.

야고보서 2:1-13

31주 금요일

야고보서, 53장

형제들아, 누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군가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고 말한다면, 네 행함 없는

야고보서

믿음을 내게 보여 주라. 그러면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여 주겠다.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다. 그러나 이 무지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알고 싶으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지 않았느냐? 보라, 믿음이 그의 행실을 돕고, 행실을 통해 믿음이 온전해졌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여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 사람이 믿음만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십니까?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숨겨 주고 다른 길로 보내줌으로써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14-26

32주 월요일

야고보서, 54장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 하지 말라. 말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온 몸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자이다. 보라,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고, 온 몸을 다스린다. 보라, 배들도 아무리 크고 강한 바람에 휩쓸려도 작은 키로 조타수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혀도 마찬가지로 작은 지체이지만 많은 일을 일으킨다. 보라, 작은 불꽃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태우는지! 혀는 불이며, 거짓의 장식이다;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명의 바퀴를 불태우며, 정작 지옥의 불에 타오르는 지위에 놓여 있다. 모든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과 바다 생물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 길들여지고 길들여져 왔으나, 허만큼은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으니, 이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며; 그것은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아버지를 축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3:1-10

32주 화요일

야고보서, 55장 시작

형제들아, 한 샘에서 달콤한 물과 쓴 물이 함께 솟아날 수 있겠느냐? 형제들아, 무화과나 무가 올리브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한 샘에서 짠 물과 달콤한 물을 동시에 뿜어낼 수는 없다. 너희 중에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가 있다면, 지혜로운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 이를 실제로 증명하라.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쓴 시기심과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도 말고 진리를 왜곡하지도 마십시오. 이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육신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시기심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순결하고, 평화롭고,

야고보서

온유하며, 순종적이고,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편파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열매는 평화를 지키는 자들에게서 세상에 뿌려집니다. 여러분의 원한과 분쟁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싸우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죽이고 시기하지만 얻지 못하며, 다투고 원수 지내지만 얻지 못하니,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구하기 때문이다.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아니면 성경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질투하듯 사랑하신다”고 헛되이 기록된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3:11-4:6

32주 수요일

야고보서, 56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바로잡으라. 통회하고, 울며, 통곡하라. 너희의 웃음이 울음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게 하라.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자이다. 네가 율법을 심판한다면, 너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이다.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율법 제정자이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느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저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겠다”고 말하는 너희를 들어보라.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나?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러저러하게 하겠다”고 말해야 할 터인데, 너희는 교만함으로 자랑하고 있으니, 모든 그런 자랑은 악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있느니라. 부자들아, 잘 들어라. 너희에게 닥칠 재앙을 생각하며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이 먹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를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너희의 살을 갉아먹을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을 위해 보물을 쌓아 두었다. 보라, 너희 밭을 수확한 일꾼들에게서 너희가 착취한 임금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으며, 수확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여호와께까지 이르렀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호화롭게 살며 즐거워하였고, 마치 제사 드리는 날처럼 너희 마음을 배불리 채웠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여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저항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래

야고보서

참으십시오. 보라, 농부는 땅에서 귀한 열매를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으시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7-5:9

32주 목요일

야고보서, 57A절

형제들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보기로 삼으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보라. 보라, 우리는 참아 낸 자들을 복되다 하노라. 너희는 욕의 인내에 대해 들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형제들아,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의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의 말은 “예, 예”와 “아니오, 아니오”로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기쁜 자가 있으면 찬송을 부르라.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사해될 것이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치유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한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였더니,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렸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를 돌이키는 자가 있거니와, 그 사람은 죄인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많은 죄를 덮어 줄 것임을 알라.

야고보서 5:10-20

7월 20일, 선지자 엘리야.

가뭄 때

야고보서, 57B절

형제들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보기로 삼으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보라. 보라, 우리는 참아 낸 자들을 복되다 여기노라. 너희는 욕의 인내에 대해 들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형제들아,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의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예, 예”와 “아니오, 아니오”만 하라. 그래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중 누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으면 시편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중 누가 병들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칠 것이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며, 만일 그가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받을

야고보서

것이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치유받으라.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한다.

야고보서 5:10-16
병든 자들에 대하여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58A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폰테와 갈라디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피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순종하고 그 피로 씻김을 받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으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따를 영광을 예고하실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일과 어떤 시기를 가리키시는지 살피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한 바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드러났으니, 천사들도 이를 깊이 알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모퉁이 돌, 곧 택함 받은 귀한 돌을 놓으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귀중한 보배이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시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으며, 걸림돌이요 유혹의 돌이 되셨으니,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로 인해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소유로 삼으신 백성으로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분의 훌륭한 행적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때는 긍휼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1-2, 10-12; 2:6-10

32주 금요일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58B절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살아 있는 소망과 켜지 않는 유산, 순결하고 시들지 않으며, 하늘에 너희를 위해 간직되어 있는 유업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유업을 향해. 이 일로 기뻐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지금 잠시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슬퍼하더라도, 시험을 거친 여러분의 믿음이 불로 단련된 금보다 더 귀중함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사랑하고, 지금까지 뵈지는 못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했으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며, 마침내 믿음으로 너희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베드로전서 1:3-9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축일, 파리미아 1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58B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깨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너희에게 주어진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시절에 가졌던 옛 욕망에 따라 행하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람을 행위에 따라 편파 없이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삶에서 썩지 않는 은이나 금으로가 아니라, 흠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구속받았음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너희의 나그네 생활을 보내라.

베드로전서 1:13-19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축일, 파리미아 2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58년 초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 영혼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악당으로 비방하는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인간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왕이든, 최고 권위자로서, 통치자들이든, 그분께서 범죄자들을 징계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내신 자들이든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를 막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자유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종들은 모든 경외심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온유한 주인뿐만 아니라 엄한 주인에게도 그러하라. 이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을 때 참는다고 해서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며 참아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남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술에는 아침이 없었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을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로우신 재판관께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친히 그분의 몸으로 나무에 지시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59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술에는 아침이 없었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을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로우신 재판관께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친히 그분의 몸으로 나무에 지시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를 위해 살게 하셨으니, 그분의 상처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너희는 마치 (목자가 없어) 방황하던 양과 같았으나,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분께로 돌아왔느니라. 또한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중에도, 너희의 순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고, 말 없이도 아내들의 삶으로 인해 감화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장식은 겉으로 보이는 머리 꾸미기나 금 장신구,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썩지 않는 아름다움인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지닌 마음 속의 사람이어야 하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기 때문이다. 옛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거룩한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며 스스로를 단장하였느니라.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느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녀의 자녀들이니라. 또한 남편들아, 아내들을 가장 연약한 그릇처럼 지혜롭게 대하고, 은혜로운 생명의 공동 상속자처럼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여, 너희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 동정하며, 형제 사랑을 품고, 자비롭고, 친절하며, 겸손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거나 욕설로 욕설을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을 상속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아십시오.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6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악에서, 입을 궤환한 말에서 금하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여지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땅에서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너희가 선을 열렬히 추구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는 복이 있다.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도 말라.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 너희가 바라는 바에 대하여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경건함으로 대답할 준비를 항상 갖추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악당처럼 비방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한 삶을 비난하는 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악한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한 번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러나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으로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내려가,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짓던 때, 한때 불순종하며 그들을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선포하셨으니, 그 방주 안에서 소수, 곧 여덟 영혼만이 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본을 따라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약속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10-22

33주 화요일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6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여, 육체에 있는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과거에 이방인의 뜻대로 살며, 음행과 정욕(남색, 수색, 음란한 생각), 술 취함, 과식 과음, 그리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 지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함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한다. 그들은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께 대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은, 그들이 육신에 따라 사람의 심판을 받은 후, 영으로 하나님께 따라 살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열렬한 사랑을 품으십시오.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어 주기 때문입니다. 불평 없이 서로를 환대하십시오.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 서로를 섬기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잘 관리하는 집사들처럼 말입니다. 누구든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섬기라. 이는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1-11

33주 수요일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6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진 불같은 시련을 낮설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낯선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으니 기뻐하십시오. 또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기뻐하고 환호하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복이 있나니, 영광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너희 위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로 말미암아 모욕을 받으시나,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다만 너희 중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 악당, 혹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운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겠는가? 의인조차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하고 죄 많은 자는 어디에 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며, 신실한 창조주이신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라. 나는 너희의 목자들에게 간청하노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동료 목자이자 증인이며, 장차 드러날 영광에 동참할 자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 떼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고, 비열한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 떼에게 본을 보이며 치십시오. 그러면 목자의 으뜸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급자들도 목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서로 복종하며 겸손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12-5:5

33주 목요일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63절

형제들아,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근심을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포효하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굳건한 믿음으로 그에게 맞서십시오.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에게도 같은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아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시니, 너희가 잠시 고난을 겪은 후에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화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과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글을 나는 실루아노를 통해 여러분에게 간략히 썼습니다. 그는, 제 생각에, 여러분의 신실한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시키고, 위로하며,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의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6-14

4월 25일, 성 마르코 사도

베드로의 둘째 서신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 64절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서,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라 귀중한 믿음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졌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선하심을 알게 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 약속들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세상에 만연한 정욕의 타락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일에 온 힘을 다하여, 믿음 안에서 덕을, 덕 안에서 분별력을, 분별력 안에서 절제를, 절제 안에서 인내를, 인내 안에서 경건을, 경건 안에서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고 더욱 자라난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 성공과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고, 눈을 감은 자이며, 자신의 과거 죄들이 씻김을 받은 것을 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의 소명과 선택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힘쓰십시오.

베드로후서 1:1-10

33주 금요일

베드로의 둘째 서신, 65절

형제들아, 너희의 소명과 선택을 더욱더 확고히 하도록 힘쓰라. 그렇게 행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자유롭게 들어갈 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으며 참된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 있더라도, 나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이다. 또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하신 대로 내가 곧 이 장막을 떠나야 함을 알기에,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꾸며낸 우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대함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으니, 위엄 있는 영광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쁨을 받는 자라”는 음성이 그분께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들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

려온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날이 밝아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의지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베드로후서 1:10-19
8월 6일, 주님의 변모

베드로의 둘째 서신, 66절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어떤 예언도 스스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오.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으로 말해진 적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한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 해로운 이단을 퍼뜨리고, 그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배반함으로써 스스로 속히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방탕함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탐욕으로 인해 아첨하는 말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고, 그들의 멸망은 지체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의 어둠으로 묶어 심판과 형벌을 위해 가두어 두셨으며; 또한 첫 번째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을 때 진리를 선포한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을 구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멸망으로 정죄하여 재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올 불의한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셨고, 극도로 방탕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내는 데 지친 그를 구원하셨으니(이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매일 불법적인 행실을 보고 듣고 의로운 영혼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이라)—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유혹에서 구원하시고, 불법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벌하시기를 아시는 분이시라.

베드로후서 1:20-2:9
34주 월요일

베드로의 둘째 서신, 67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벌하실 줄 아십니다. 특히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좇는 자들, 권위를 멸시하며, 거만하고 제멋대로 행하며, 높은 자들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반면 그들보다 힘과 능력에서 우월한 천사들조차 주님 앞에서 그들에 대해 책망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없는 짐승처럼 본성에 이끌려, 잡히고 멸망당하기 위해 태어난 자들로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 타락 속에서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매일의 사치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며; 수치스러운 자들이요 더럽히는 자들로서,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자신들의 속임수를 즐깁니다. 그들의 눈은 음탕함과 끊임없는 죄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확고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

혹하고, 그들의 마음은 탐욕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바른 길을 버리고, 그들은 미혹되어 보소르의 아들 발람의 발자취를 따랐으니, 그는 불의한 대가를 사랑했으나 자신의 불법을 드러내게 되었으니, 말 못하는 암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이 없는 샘이며, 폭풍에 휩쓸리는 구름과 안개와 같으니, 그들에게는 영원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거만한 헛소리를 내뱉으며, 미혹된 자들로부터 겨우 벗어난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방탕으로 유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썩어 없어질 것의 노예이면서도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다. 누구에게 정복당하느냐에 따라 그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주님이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다시 그 더러움에 얽매어 정복당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후자가 전자보다 더 나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알았으면서도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계명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개는 자기 토한 것 위로 돌아가고, 씻은 돼지는 다시 진창에 뒹굴러 간다.’

베드로후서 2:9-22

34주 화요일

베드로의 둘째 서신, 68A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맑은 이성을 일깨워, 성스러운 선지자들이 이전에 전한 말씀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 준 주님이자 구주께서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마지막 날에 뻘뻘한 비방자들이 나타나 자기들의 욕망대로 행하며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임을 아십시오. 창조의 시작부터 조상들이 죽기 시작한 이래로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물로 말미암아, 또 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당시의 세상은 물에 잠겨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심판의 날과 불경건한 자들의 멸망의 날을 위해 불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숨겨서는 안 되니, 주님께서서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데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니, 어떤 이들은 이를 지체로 여기지만, 주님께서서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이 오듯 올 것이며, 그때 하늘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타오르며 무너질 것이며,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버릴 것입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멸망한다면, 불타는 하늘이 무너지고 타오르는 원소들이 녹아내릴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여러분은 거룩한 삶과 경건함에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를 기다리며, 그분 앞에 더럽혀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

지지 않고 흠 없는 자로 서기 위해 힘쓰십시오.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으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그에게 주신 지혜로 여러분에게 쓴 대로, 그는 이 일에 대해 모든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서신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무지하고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왜곡하여 자기들의 멸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 미리 경고를 받았으니, 불의한 자들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분께 지금과 영원한 날에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1-18
34주 수요일

요한의 첫 번째 서신

요한의 첫 번째 서신, 68B절

태초부터 있던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직접 살펴본 것, 우리 손으로 만져 본 것, 곧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생명이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보고 증언하며, 아버지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께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1-7

5월 8일, 성 요한 신학자 사도

요한일서, 6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중보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며,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나는 그분을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8-2:6

34주 목요일

요한일서, 7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태초부터 가졌던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다. 옛 계명은 너희가 태초부터 들은 말씀이다. 그러나 또한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는데, 이는 그분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거하며, 그에게는 유혹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으며, 어둠 속을 걷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으므로 이 편지를 씁니다. 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으므로 이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으므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며,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으므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머무릅니다.

요한일서 2:7-17

34주 금요일

요한일서, 71절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들었거니와, 이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를 통해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왔으나,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편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편이 아닌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께로부터 기쁨 부음을 받았으므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으며, 모든 거짓이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고백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생이다. 내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이 글을 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쁨 부음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니,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요한의 첫 번째 서신

이 기쁨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며,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것이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므로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그래야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의로우신 분임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난 것임을 또한 알라.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임을 알 뿐인데, 이는 우리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처럼 거룩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죄를 짓는 자는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셨으며,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니,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과 같으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바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이렇게 구별된다.

요한일서 2:18-3:10A

35주 월요일

요한의 첫 번째 서신, 7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악한 자에게서 나와 자기 형제를 죽인 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가 왜 형제를 죽였느냐? 그의 행실은 악했으나, 형제의 행실은 의로웠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므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니, 너희는 어떤 살인자에게도 그 안에 거하는 영생이 없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풍족히 가진 자가,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그에게 마음을 닫는다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아!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에게서 난 자임을 알게 되는 이유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쉼을 얻게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서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10b-20

35주 화요일

요한일서, 73A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며,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로부터 받을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쁘게 여기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계명은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십시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분별하십시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들었던 대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이미 세상에 있는 자이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이미 그들을 이겼느니라.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느니라.

요한일서 3:21-4:6

35주 수요일.

9월 26일, 성 요한 신학자 사도, 1 파리미아

요한의 첫 번째 서신, 73B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11-16

요한의 첫 번째 서신, 73B절

사랑하는 자들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보고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서 그토록 온전해져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4:12-19

9월 26일, 성 요한 신학자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 74A절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받았습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외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20-5:5

9월 26일, 성 요한 신학자 사도 기념일, 3번째 파리미아

요한의 첫 번째 서신, 74B절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

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외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물만으로는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으며, 성령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세 분이 증언하시니, 곧 아버지, 말씀, 성령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땅 위에서도 세 가지가 증언하느니라. 곧 영과 물과 피니, 이 세 가지는 한 분을 가리키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며, 이 생명은 그분의 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가졌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그분께 갖는 담대함은 바로 이것이다. 곧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께 구한 것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을 초래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니, 곧 죽음을 초래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그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이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지키며, 악한 자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온 세상이 악에 빠져 있음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이성을 주셨으니,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참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 하심임을 압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십시오. 아멘.

요한일서 4:20-5:21

35주 목요일

요한의 둘째 서신

요한의 둘째 서신, 75절

장로 – 택하심을 받은 여인님과 그 자녀들에게, 내가 진리로 사랑하는 자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이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진리를 위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네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제 여인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초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시 부탁한다.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태초부터 들은 계명이며, 그 계명에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많은 미혹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혹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자신을 잘 살피어, 우리가 수고한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기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갖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갖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를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쓸 말이 많으나, 종이에 먹으로 쓰기보다는 너희에게 가서 입으로 직접 말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 지기를 바란다. 네가 택한 자매의 자녀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아멘.

요한2서 1:1-13

35주 금요일

요한의 세 번째 서신

요한의 세 번째 서신, 76절

장로 – 진리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번영하듯이 네가 모든 일에서 건강하고 번영하기를 기도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네 신실함을 증언해 주었을 때,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형제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행하는 일에서 당신은 신실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앞에서 당신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마땅히 그들을 보내 주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디오폰레페는 우리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 곧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으며,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막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느니라. 디미트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가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희도 우리 증언이 참됨을 아느니라. 쓸 말이 많으나, 잉크와 붓으로 네게 편지를 쓰고 싶지는 않고, 곧 너를 만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기를 바라노라. 평화가 네게 있기를. 친구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 문안해 주라. 아멘.

요한3서 1:1-15
사순절 첫 주 월요일

유다의 서신

유다의 서신, 7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야고보의 형제,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게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구원에 관해 편지를 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나, 성도들에게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노라. 이는 옛적부터 정죄받기로 예정된 어떤 불경건한 자들이 몰래 들어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구실로 삼으며, 유일한 주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백성을 구원하신 후,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셨으며, 자신의 존엄을 지키지 않고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으니, 이는 위대한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하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처럼,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육체를 좇았던 자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본보기가 되었듯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세를 거부하며 높은 권세자들을 비방하는 이 몽상가들에게도 똑같이 될 것입니다. 대천사 미가엘은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논쟁할 때, 책망하는 심판을 내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금하시기를”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며, 본성상 말 못하는 짐승처럼 아는 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유다서 1:1-10

치즈 주간의 화요일

유다의 서신, 78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걷고, 발람처럼 샅을 바라는 유혹에 빠지며, 고레처럼 완고함으로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너희의 사랑의 만찬에서 유혹이 되며, 너희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두려움 없이 배를 불린다. 이들은 바람에 휩쓸리는 물 없는 구름이며, 열매 맺지 못하고 두 번 죽은, 뿌리째 뽑힌 가을 나무들이며,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내는 사나운 바다의 파도들이며, 영원토록 어둠의 흑암 속에 갇혀 있는 방황하는 별들이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인 에녹도 그들에 대해 예언하며 말하기를, “보라,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오시니, 모든 자를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을 그들의 불경건함으로 인해 저지른 모든 행실과,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향

유다의 서신

해 내뱉은 모든 잔혹한 말들로 인해 책망하시리라”고 하였다. 이들은 불평만 하고, 무엇에도 만족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욕대로(불경건하고 불법적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은 거만한 말을 내뱉으며, 이득을 위해 편파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언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불경건한 욕망대로 행하는 모독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일치에서) 스스로를 분리하는 자들이며, 영이 없고 육신에 치우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생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분별력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이들은 두려움으로 구원하여 불에서 끌어내십시오. 또한 육신으로 더럽혀진 옷조차도 혐오하며, 두려움으로 책망하십시오.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모든 세기 이전에,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과 위엄,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유다서 1:11-25

치즈 주간의 목요일

로마서

로마서, 79A절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로서 그 민족들 가운데 계십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마음먹었으나(지금까지도 방해를 받아)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에게서도 어떤 열매를 맺고자 했던 사실을 너희가 모르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헬라인과 이방인,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 모두에게 빛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곧 먼저 유대인에게, 그다음 헬라인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1-7; 13-17
오순절 후 첫 번째 주 화요일

로마서, 79B절

형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감사드리나니,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을 전파하는 일에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생각하며, 나의 기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언젠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내가 여러분을 빕기를 간절히 원하여,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은사를 전해 드리고자 함이며, 즉, 여러분과 저의 공통된 믿음으로 서로 위로받기 위함입니다.

롬 1:7-12
제1주 토요일

로마서, 80절 시작

형제들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명백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창세 이래로 피조물을 통해 관찰함으로써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생각으로 헛된 길로 빠져 무지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자칭했으나 미쳐 버렸으며,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으니,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에 따라 부정한 행위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더럽히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으니,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비자연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와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버리고 서로에 대한 정욕에 불타올라,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자기들의 그릇된 행실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스스로 받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1:18-27

제1주 수요일

로마서, 81A절

형제들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것을 돌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음란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리하여 그들은 온갖 불의와 음행, 간사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기만, 악한 성품, 비방, 중상모략,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남을 해치는 자, 자만하는 자, 교만한 자, 악을 꾸미는 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 무분별한 자, 배신하는 자, 사랑이 없는 자, 화해하지 않는 자, 자비롭지 않은 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알고 있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을 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아, 네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정죄하면서도 (스스로)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나 네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너는 스스로 진노의 날과 하나님으로부터 올 의로운 심판의 계시를 향해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로마서

행위에 따라 갚아 주실 것이니, 선한 일을 꾸준히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그러나 완고하여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빠진 자들에게는 분노와 진노를 주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 곧 먼저 유대인, 그다음 헬라인에게 슬픔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롬 1:28-2:9
제1주 목요일

로마서, 81B절

형제들아,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그다음 헬라인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할 것이며, 그러나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적인 일을 행할 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니, 그들은 율법의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그들의 양심과 생각이 때로는 서로를 정죄하고 때로는 서로를 변호함으로써 증거하는 바이다) 내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숨은 일을 심판하실 그 날에.

로마서 2:10-16
2주

로마서, 82절

형제들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은 율법이 없어도 스스로가 곧 율법이 되는 것이니, 그들은 율법의 일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나타내는데, 그들의 양심과 생각이 때로는 서로를 정죄하고 때로는 서로를 변호하느니라. 이는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숨은 일을 심판하실 그 날에 그러하리라. 보라, 너는 유대인이라 자칭하며, 율법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율법에서 배워 더 나은 것을 분별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인도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빛이요, 무지한 자들의 지도자요, 어린아이들의 스승이며, 율법 안에서 행함과 진리의 본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확신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가? 흠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흠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정작 간음하고, 우상을 미워하면서 정작 신성모독을 저지르는가? 너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다. 할례는 율법을 지키면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라면, 네 할례는 할례가 아닌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마치 할례를 받은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성상 할례를 받지 않았으

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성경과 할례를 가진 율법을 어기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겉모습만 유대인인 자가 참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에 겉으로 행하는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 유대인은 내면이 유대인인 자요, 참 할례는 마음속에서, 곧 영으로 행하는 것이지 글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에게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로마서 2:14-29

제1주 금요일

로마서, 83절 시작

형제들아, 겉모습만 유대인인 자가 참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니, 오직 속으로 유대인인 자, 곧 마음속에서 영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라. 그의 칭찬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며, 할례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큰 유익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들이 불신실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신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로 만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주께서는 말씀에 의로우시며, 심판에 승리하시나이다.”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실 때 불의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만일 나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나를 죄인으로서 더 이상 무엇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마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는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전혀 없다. 우리는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음을 증명하였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을 벗어나고, 하나도 쓸모없는 자들이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들의 입은 비방과 쓴 말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기에 빠르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멸망이 있고,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로마서 2:28-3:18

제2주 월요일

로마서, 8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하여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분 앞에서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바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신 그분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동안에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심으로써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고, 현재에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어, 그분께서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19-26

제2주 토요일

로마서, 8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물론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그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롬 3:28-4:3

제3주 토요일

로마서, 86절

형제들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행하지 않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시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칭한다: “불법을 사함 받고 죄가 덮인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 해당되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말한다. 언제

로마서

인정되었는가? 할례를 받은 후에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인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다. 그리고 그는 할례의 표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졌던 믿음을 통해 의의 인장으로 받았으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에게도 의가 인정되게 하였으며, 또한 할례를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는 단순히 할례를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까지 포함됩니다.

롬 4:4-12
제2주 화요일

로마서, 87절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낳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는 약속이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믿음에 의해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리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는 소망을 넘어 소망을 가지고 믿었으므로, “네 자손이 이토록 많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지치지 않은 그는, 거의 백 세에 가까운 자신의 육신이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이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과 같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심을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 의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13-25
제2주 수요일

로마서, 88A절

형제들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분을 통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자랑합니다. 환난에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에서 경험이 생기며, 경험에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

로마서

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정해진 때에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 어쩌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위하여는 누군가 죽을 결심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물며 화목한 자로서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1-10

제3주

로마서, 88B절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정해진 때에 불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요, 어쩌면 선한 사람을 위하여는 누군가 죽을 용기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더욱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물며 화목한 자로서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6-11

성금요일 제3시

로마서, 89절

형제들아,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물며 화목한 자로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노니,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이와 같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으면 죄가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서도 죽음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장차 올 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베풀어집니다. 또한 그 선물

로마서

은 한 죄인을 향한 심판과 같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죄에 대한 심판은 정죄로 이어지지만, 은혜의 선물은 많은 죄로부터의 의롭다 함으로 이끎니다.

로마서 5:10-16

2주 목요일

로마서 90절

형제들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다스렸다면, 하물며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더욱더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 후에 들어왔으므로, 그로 인해 범죄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넘치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으니, 이는 죄가 죽음을 향해 다스렸던 것처럼, 은혜도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으로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야 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어떻게 다시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로마서 5:17-6:2

2주 금요일

로마서, 9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음에 묻혔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되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폐하여지도록 함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면, 그것은 죄를 위하여 단 한 번 죽으신 것이며, 살아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로마서 6:3-11

성 토요일

로마서, 92절

형제들아,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죄가 너희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 하여 너희로 하여금 그 정욕을 따라 순종하게 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지배해서는 안 되나니,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바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대상에 따라, 여러분은 죽음을 향한 죄의 종이 되거나, 의를 향한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전에 죄의 종이였으나, 이제 마음을 다해 여러분이 따르기로 한 그 가르침의 본을 순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11-17

제4주 토요일

로마서, 93절

형제들아, 죄에서 해방되어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육체의 연약함을 생각하여 사람의 이치로 말하노라. 여러분이 한때 여러분의 지체를 불결함과 불법에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적인 일을 행했듯이, 이제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한 일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얻은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너희의 열매는 거룩함이며, 그 결말은 영생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영생이다.

로마서 6:18-23

4주

로마서, 94절

형제들아, 너희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느냐? 기혼 여자는 살아 있는 남편에게 율법으로 묶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결혼의 율법에서 해방된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로 불리지만,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서 해방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하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 앞에서 죽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께 속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

이라. 우리가 육신에 따라 살았을 때에는, 율법이 드러내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제 우리를 속박하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낱은 글자대로가 아니라 영의 갱신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과연 율법에서 죄가 나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내는 마음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계명을 빌미로 삼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때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주려고 주신 계명이 내게는 죽음의 도구가 되었으니, 죄가 계명을 빌미로 삼아 나를 유혹하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과연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선한 것을 통해 내게 죽음을 초래함으로써 죄가 드러나는 것이니, 그리하여 죄는 계명을 통해 지극히 죄악된 것이 된다.

로마서 7:1-13

3주 월요일

로마서, 95절

형제들아,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린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니, 이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살아 있지 않음을 압니다. 선을 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행할 힘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내게는 악이 따르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면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쁨을 찾지만, 내 지체들 속에서는 내 마음의 법과 대립하며,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드는 또 다른 법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내어 주시겠는가? 나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율법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정죄도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율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14-8:2

3주 화요일

로마서

로마서, 96A절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인해 약해진 율법은 무력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자기 아들을 죄를 위한 제물로 보내시고,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사,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에 따라 사는 자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못하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신에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사는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육체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영은 의에 대하여 살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에 빚진 자들이 아니니, 육신대로 살지 말라. 만일 육신대로 산다면 죽을 것이요, 만일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면 살게 될 것이니라.

로마서 8:2-13

제3주 수요일

로마서, 96B절

형제들아, 육신으로 인해 약해진 율법은 무력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신 자기 아들을 죄를 위한 제물로 보내시고,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에 따라 사는 자들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에 따라 사는 자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못하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신에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사는 것이다.

로마서 8:3-9A

12월 28일, 니코미디아의 성 순교자들

로마서, 96B절

형제들아, 육신에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갖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육체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영은 의에 대하여 살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의무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8-14

1월 4일, 70인 사도들

로마서, 97절

형제들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 가운데 살기 위해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영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줍니다. 만일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도 한데, 이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현재의 일시적인 고난은 우리 안에 드러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피조물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드러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헛된 것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굴복시킨 분의 뜻에 따라,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14-21

제5주 토요일

로마서, 98절

형제들아,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음을 압니다.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서도 신음하며, 자녀의 신분을 얻고 우리 몸이 구속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때,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성령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8:22-27

제3주 목요일

로마서

로마서, 99절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그분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분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인가, 곤고인가, 박해인가, 굶주림인가, 헐벗음인가, 위험인가, 칼인가?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주를 위하여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현재도, 미래도, 높은 곳도,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28-39

순교자들에게

로마서, 100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않노니,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내게 증언하노니, 내게는 큰 슬픔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나니, 나는 내 육신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에게는 양자의 신분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속해 있기에,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로부터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분이시니, 아멘.

로마서 9:1-5

제6주 토요일

로마서, 101절

형제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여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요, “이삭을 통해 네 후손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하셨느니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후손으로 인정받는 것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은 이러하니, ‘이 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서 한번에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하나님의 택하심이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종할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원하는 자에게서나 힘쓰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바로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온 땅에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고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내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더 책망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9:6-19

제3주 금요일

로마서, 10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를 완고하게 하신다. 너는 내게 말하리라. “그러면 또 무엇을 비난하겠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다투느냐? 지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도공이 진흙을 다스려, 같은 흙으로 하나는 귀한 용도로, 다른 하나는 천한 용도로 그릇을 만들 수 없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서, 멸망할 준비가 된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인내로 참아 주셨다면, 이는 그분이 영광을 위해 예비하신 자비의 그릇들, 곧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우리 위에,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함께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호세아의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 받는 자라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을 마치시고 속히 공의로 판결하시며, 단호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만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아졌을 것이며, 고모라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

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유혹의 돌을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9:18-33

4주 월요일

로마서, 103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증언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 애쓰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으니, 율법의 끝은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곧 그리스도를 데려오려는 것이다. 또는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곧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으니, 네 입과 네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로마서 10:1-10

5주

로마서, 104장 시작

형제들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은 한 분이시며,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평화를 전하는 자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누가 우리에게 들은 것을 믿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은 세계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으로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발시키리라.” 이사야는 담대하게 말합니

로마서

다.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이 나를 찾았고, 나를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고 완고한 백성에게 내 손을 내밀었노라.” 그러므로 묻노니,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롬 10:11-11:2A

4주 화요일

로마서, 105장

형제들아, 엘리야에 관한 기록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명을 내가 남겨 두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은혜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만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구하던 것을 얻지 못했고, 택함 받은 자들은 얻었으나, 나머지는 완고해졌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든 영을 주셨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으니, 오늘날까지도 그러하다’고 하였다.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보복이 되는 그물과 올가미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허리가 영원히 굽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묻노니, 그들이 실족하여 완전히 넘어진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니, 이는 그들 안에서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만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요가 되고, 그들의 결핍이 이방인들에게 풍요가 된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클까.

롬 11:2-12

제4주 수요일

로마서, 106장

형제들아,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나의 사역을 자랑합니다. 내가 육신의 동족들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의 버림이 세상의 화해라면, 그들의 받아들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거룩하면 전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만일 어떤 가지들이 꺾여 나갔고, 너희가 들올리브로서 그 자리에 접붙여져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수액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면, 가지들 앞에서 교만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교만해한다면, 네가 뿌

로마서

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말하리라. “가지들이 꺾여 나로 하여금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좋다. 그들은 불신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서 있다. 교만해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너를 아껴 주실지 잘 살펴보아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비와 엄위를 보게 된다. 배교한 자들에게는 엄위가,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른다면 너에게는 자비가 임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여질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나와 본래가 아닌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다면, 하물며 이 본래의 가지들이 자기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지 않겠느냐.

로마서 11:13-24

제4주 목요일

로마서, 107절

형제들아, 나는 이 비밀에 대해 너희가 무지한 채로 두지 않으려 한다. 너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에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완고한 마음이 생긴 것은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이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의 죄악을 없애실 것”이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해 줄 때 그들에게 주실 언약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원수가 되었으나, 택하심에 있어서는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이제 그들의 불순종 덕분에 은혜를 입었듯이, 그들도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불순종하고 있으니, 그들도 은혜를 입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속에 가두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하심이라. 오,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의 심연아! 그분의 계획은 얼마나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탐구할 수 없는가! 누가 주님의 뜻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으며, 누가 그분께 먼저 주었기에 그분이 갚아야 하겠는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며, 그분을 통해, 그분을 향하여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아멘.

로마서 11:25-36

4주 금요일

로마서, 108절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분별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니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로마서

자에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하게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1-3

7주째 안식일

로마서, 109절

형제들아,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기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느니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십시오.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겸손한 자들을 본받으십시오. 자만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다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보복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네가 이렇게 함으로 그에게 타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두게 될 것이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4-5; 15-21

5주 월요일

로마서, 110절

형제들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으니,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섬김에 힘쓰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침에 힘쓰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다면 권면하고, 나누는 은사가 있다면 순수하게 나누고, 지도하는 은사가 있다면 열심을 다해 지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자라면, 기쁜 마음으로 베풀라.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하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좇으라. 서로 형제 사랑을 다정하게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며 먼저 배려하고, 열심을 잃지 말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라. 주님을 섬기라. 소망으로 위로를 얻으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예 힘쓰라.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아 주라. 손님 대접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6-14

제6주

로마서, 111절

형제들아, 모든 사람은 윗권위에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위는 없으니, 있는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권위에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스르는 것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통치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두렵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두렵다.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로마서

하느냐? 선한 일을 하라. 그리하면 그 권세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니,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는 헛되이 칼을 차고 있지 아니하니,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기 위한 보복자이다. 그러므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순종해야 한다. 이 때문에 너희는 세금도 내니,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라. 세금을 내야 할 자에게는 세금을, 공물을 내야 할 자에게는 공물을, 두려움을 가져야 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존경을 받아야 할 자에게는 존경을. 상호 사랑 외에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의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 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3:1-10

8주째 안식일

로마서, 112절

형제들아, 이제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밤은 지나가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를 입읍시다. 낮에 그러하듯, 우리는 품위 있게 행하며, 방탕한 잔치와 술 취함, 음탕함과 방종, 다툼과 시기심에 빠지지 말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정욕으로 변질시키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의견 다툼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기 때문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셨기 때문이다. 남의 종을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님 앞에 있는 일이다. 그는 다시 일으켜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실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13:11b-14:4

사순절 첫 주.

6월 24일, 세례 요한의 탄생

로마서, 113절

형제들아, 날을 구별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이요, 날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먹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며, 먹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누구도 자신을 위해 죽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죽든지 주님을 위해 죽는다. 그러

로마서

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다스리시기 위함이다.

로마서 14:6-9

9주째 안식일.

고인들을 기리는 날 (월요일)

로마서, 114절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다스리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정죄하느냐? 아니면 너도 어찌하여 네 형제를 멸시하느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살아 있노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을 고백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보고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차라리 형제에게 걸림돌이나 유혹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생각하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나니, 다만 무엇이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만일 네 형제가 음식 때문에 근심한다면, 너는 이미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음식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람을 망치지 말라. 너희의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니라. 이것으로 그리스도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만하니라.

로마서 14:9-18

5주 화요일

로마서, 115절

형제들아, 우리가 화평과 상호 유익을 도모하는 일을 추구합시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깨끗하나, 유혹을 받아 먹는 사람에게는 해롭습니다. 차라리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형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유혹을 받거나 지치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네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라.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먹더라도 정죄를 받으니,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이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해,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 드러난 비밀의 계시를 따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 그들을 믿음으로 복종하게 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전능하신 분께, 유익하신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4:19-26

로마서, 116절

형제들아,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함을 참아 주어야 하며, 자기만 기쁘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유익을 주고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기록된 것이니, 우리가 성경에서 오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지키게 하려 함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이 서로 한마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15:1-7

7주

로마서, 117절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너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서로 받아들이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자비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섬기시는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주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또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민족들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시어 열방을 다스리실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분을 의지하리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온갖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 대해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선함이 넘치고 온갖 지식으로 충만하며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이방인들의 이 헌물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7-16

제5주 수요일

로마서, 118절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지 않으신 일은 감히 말하지 않겠으니,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 말과 행실, 표적과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셨으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일리리코에 이르기까지 나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 애썼으니, 남이 놓은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려 함이요, 기록된 바와 같이 ‘그분 에 대해 알지 못하던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여러 번 내가 여러분에게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고, 오랫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품어 왔기에, 스페인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자마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뵈게 될 것이며, 비록 잠시일지라도 여러분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린 후, 여러분이 저를 그곳으로 배웅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들을 섬기려 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디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성심을 다해 구제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빛진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육적인 것으로도 그들에게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고 그 열매인 헌금을 성실히 전달한 후, 저는 여러분이 계신 곳을 거쳐 스페인으로 갈 것이며, 여러분을 찾아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총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15:17-29

5주 목요일

로마서, 119절

형제들아,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는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내시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사역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5:30-33

10주째 안식일

로마서, 120절

형제 여러분, 켄크레이 교회의 집사인 우리 자매 피바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마땅한 대로 주님을 위하여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여러분에게서 무엇이든 필요로 할 때

로마서

도와주십시오. 그녀도 많은 사람과 나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실라와 아퀼라(그들은 내 영혼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 모두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와 그들의 가정 교회에 문안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페네토에게도 문안하십시오. 그는 아카이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첫 열매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자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명성을 떨쳤으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플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키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견뎌낸 아펠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볼로 집안의 신실한 이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르키소 집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이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트리페나와 트리포스를 문안하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페르시다를 문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파와 그의 어머니이자 나의 어머니를 문안하십시오. 아신크리토, 플레곤토, 에르마, 파트로, 에르미아와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형제들을 문안하십시오. 필로로그와 율리아, 니레이아와 그의 누이, 올림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로마서 16:1-16

5주 금요일

로마서, 121A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가르침에 반하여 분열과 유혹을 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며, 아침과 오후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순종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뻐하지만,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밟아 부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인 루키오, 야손, 소시파트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쓴 나 테르티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손님이자 온 교회의 손님인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시의 재무관 에라스토와 형제 콰르토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6:17-24

6주 월요일

로마서

로마서, 121B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가르침에 어긋나 분열과 유혹을 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며, 아첨과 웅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순종은 모든 이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뻐하지만,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밟아 부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로마서 16:17-20

대사순절 제1주, 기도 찬송 중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2절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페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우리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 곧 온갖 말씀과 온갖 지식으로 풍성해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히 서었으므로, –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와의 교제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9
6주 화요일

고린도전서, 12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 곧 온갖 말씀과 온갖 지식으로 풍성해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히 서었으므로, –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와의 교제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9
11주 토요일

고린도전서 124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한 말을 하고 너희 사이에 분열이 없으며,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클로이의 집안

고린도전서

사람들로부터 너희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 중에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 “나는 아폴로의 사람이다”, “나는 키피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분열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크리스파와 가이오 외에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누군가가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또한 스테반의 집안에도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 외에 또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10-18

8주

고린도전서, 125A절

형제들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슬기로운 자들의 슬기를 폐하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바꾸지 않으셨느냐?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이니,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이시다.

고린도전서 1:18-24

9월 14일, 주님의 십자가 높이심

고린도전서, 125B절

형제들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슬기로운 자들의 슬기를 폐하리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바꾸지 않으셨느냐?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누구인지 보라. 너희 중에 육신으로 지혜로운 자는 많지 않고, 강한 자는 많지 않으며, 귀한 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사 중요한 자들을 무효로 만드셨으니, 이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으니,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며, 의가 되시며, 거룩함이 되시며, 속죄가 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기 위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나는 말이나 지혜의 뛰어남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있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18-2:2

성금요일

고린도전서, 125B절

형제들아, 너희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라. 너희 중에 육신으로 지혜로운 자는 많지 않고, 강한 자도 많지 않으며, 귀한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사 중요한 자들을 무효로 만드셨으니, 이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6-29

제12주 토요일.

십자가 높이심 후 토요일

고린도전서 126절

형제들아, 우리는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선포하되,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썩어 없어질 권세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지극히 깊은 지혜, 곧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비밀을 선포하노니, 이 세상의 권세들 중 그 누구도 이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27절

형제들아,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를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거하는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함이며, 이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배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배운 말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여 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는 그것을 미친 소리로 여기기 때문이며, 또한 이해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나,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분별할 수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분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형제들아, 나도 너희를 영적인 자들처럼 대할 수 없었고, 육신적인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들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였지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았으니, 너희는 그때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도 감당할 수 없으니,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자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 사이에 시기, 다툼, 분열이 있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관습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의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아폴로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단지 여러분이 믿게 된 매개자일 뿐이며, 그것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입니다. 내가 심었고, 아폴로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 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십니다.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지만, 각자는 자신의 수고에 따라 상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8절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나, 각 사람은 어떻게 세우는지 주의해야 한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

고린도전서

으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건축하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것이니, 그 날이 밝히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불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며, 불이 각 사람의 일을 그 본래 모습대로 시험할 것이다. 건축한 일이 견고하게 서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은 일이 불타 버리는 사람은 손해를 볼 것이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마치 불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것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요, 그 성전은 바로 너희이다.

고린도전서 3:9-17
9주 차

고린도전서 129절

형제들아, 아무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지혜로워지려면 미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간교함으로 잡으십니다.” 또 “주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아시니, 그들이 헛된 자들임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모든 것은, 바울이든 아폴로든, 게바든, 세상이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현재든, 미래든, 모두 너희의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18-23
6주 목요일

고린도전서, 130A절

형제들아, 모든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각 사람은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나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때까지, 때이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1-5
14주째 안식일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30B절

형제들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미리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나와 아폴로에게 적용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가 우리로부터 배워서 기록된 것 이상으로 지혜를 내세우지 말고, 서로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다. 누가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만일 받았다면, 왜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처럼 다스리고 있다. 오, 너희가 정말로 왕처럼 다스린다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다스릴 수 있기를!

고린도전서 4:5-8

6주 금요일

고린도전서, 131절

형제들아, 우리 마지막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정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친 자들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며, 우리는 약한 자들이요, 너희는 강한 자들이며, 너희는 영광 속에 있고, 우리는 수치 속에 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굶주림과 목마름, 벌거벗음과 매질을 견디며, 방랑하며, 우리 손으로 일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면 우리는 축복하고, 쫓아내면 우리는 참으며, 모욕하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미줄 같은 존재요, 흠과 같아서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여러분을 훈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천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청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4:9-16

제10주.

사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32절

형제들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으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곧 여러분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

고린도전서

십니까?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 갈까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확실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도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듣지 못한 그런 음행이라, 어떤 사람이 아내 대신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희는 오히려 울어야 할 상황에서 교만해졌으니, 그런 일을 저지른 자가 너희 가운데서 제거되게 하라. 나는 육신으로는 너희 곁에 없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마치 너희 곁에 있는 것처럼 이미 결심하였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너희 모임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사탄에게 넘겨 육체를 꺾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고린도전서 4:17-5:5

15주 토요일

고린도전서, 133, 206절

형제들아,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옛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여 새 반죽이 되라. 너희는 누룩이 없으니,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누룩이나 악과 간사의 누룩으로가 아니라, 순결과 진리의 무교병으로 명절을 지키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으니(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였음),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5:6b-8; 갈라디아서 3:13-14

성 토요일, 아침 예배

고린도전서 134절

형제들아, 내가 편지에서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썼으나, 이는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강도들,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형제라고 자칭하면서도 음행하는 자나, 탐욕스러운 자나, 우상 숭배자나, 비방하는 자나, 술주정뱅이나, 강탈하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는 함께 식사조차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적인 자들을 심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내적인 자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 너희 가운데서 타락한 자를 내쫓으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다니, 어찌 감히 그러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면, 하물며 사소한 일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겠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임을 모르십니까? 하물며 세상의 일들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의 분쟁이 있을 때, 교회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여

고린도전서

러분의 수치를 드러내며 말하노니, 과연 여러분 가운데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나 형제가 형제와 소송을 벌이고,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에게 큰 수치입니다. 차라리 원한을 품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결핍을 참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오히려 남을 해치고 빼앗으며, 그것도 형제들에게서 빼앗고 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자와 동침하는 자나 도둑이나 강탈자나 술 취하는 자나 비방하는 자나 탐욕스러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되며 의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9-6:11

7주 월요일

고린도전서 135절

형제들아, 내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내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아무것도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다 멸하시리라.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부활시켰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내어 음녀의 지체로 삼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혹시 음녀와 합하는 자가 그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두 사람이 한 살이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며,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값비싼 대가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과 영혼, 곧 하나님의 것인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고린도전서 6:12-20

제34주, 탕자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6절

형제들아, 너희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둘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편지로 물었던 바에 대하여 말하노니, 사람이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각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아내에게 마땅한 사랑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러하리라. 아내는 자기 몸을 다스릴 권

리가 없고, 남편이 다스린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다스릴 권리가 없고, 아내가 다스린다. 서로를 피하지 말라. 단, 금식과 기도예 전념하기 위해 잠시 동안 서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후에는 다시 함께 지내라. 그래야 사탄이 너희의 절제하지 못함을 빌미로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내가 허락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각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미혼자와 과부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십시오; 불타오르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이혼한다면 독신으로 지내거나 남편과 화해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를 두고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6:20b-7:12
7주 차 화요일

고린도전서, 137절 시작

형제들아,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를 두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그녀를 떠나서는 안 된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가,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는 그를 떠나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부정할 것이나, 지금은 거룩하니라. 만일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하게 하라. 형제나 자매는 그런 경우에 얽매이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아내여,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네 남편을 구원하지 못할지? 남편이여,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네 아내를 구원하지 못할지?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렇게 명한다. 할례를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숨지 말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부이다. 각 사람은 부름받은 그 지위에 머물러 있으라. 네가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더 나은 길을 택하라. 주 안에서 부름받은 종은 주의 자유인이며,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비싼 대가로 사신 자들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누구든지 어떤 지위에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지위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서라.

고린도전서 7:12b-24
7주 수요일

고린도전서 138절

형제들아,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동정 생활에 관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가 없으나, 주님께 충실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조언을 드리는 바이다. 현재의 필요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그대로 머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결합되어 있습니까? 이혼을 구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없습니까?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며, 처녀가 시집가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근심을 겪게 될 것이니, 나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때가 이미 짧으니, 아내를 둔 자들은 아내 없는 자처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처럼, 사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처럼, 이 세상을 누리는 자들은 누리지 않는 자처럼 행해야 하리니, 이 세상의 형상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근심 없이 지내기를 원한다. 미혼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을 생각하며 주님의 일에 전념하지만, 기혼자는 아내를 기쁘게 할 방법을 생각하며 세상의 일에 신경 씁니다.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혼 여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몸과 영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일에 전념하지만, 기혼 여성은 남편을 기쁘게 할 방법을 생각하며 세상의 일에 신경 씁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에게 얽매임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산만함 없이 경건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24-35

7주 목요일

고린도전서 13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유익을 주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방해받지 않고 경건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처녀가 성숙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여긴다면, 그는 원하는 대로 하되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마음속으로 확고부동하고, 궁핍함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여 마음속으로 처녀를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은 잘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녀를 시집보내는 사람은 잘 행하는 것이요, 시집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잘 행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율법에 묶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주님 안에서만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내 조언대로 그대로 머무는 것이 그녀에게 더 복되리라. 나는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분께서 지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관

고린도전서

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압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소위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고,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며,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우상을 인정하는 양심으로 우상 제물을 우상 제물로 여겨 먹고, 그들의 양심이 연약하여 더럽혀집니다.

고린도전서 7:35-8:7

7주 금요일

고린도전서 140절

형제들아,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먹지 않아도 아무것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이 자유가 연약한 자들에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만일 누군가가 네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면, 연약한 자의 양심이 그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연약한 형제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연약한 양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너희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유혹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유혹하지 않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사도가 아니겠느냐? 내가 자유롭지 않겠느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 주 안에서 너희가 내 일이 아니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주 안에서 너희가 내 사도직의 인침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8:8-9:2

35주, 고기 금식 주간

고린도전서, 141절

형제들아, 내 사도직의 인치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너희들이다. 이것이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변명이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인가?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 그리고 게파처럼 자매인 아내를 곁에 둘 권리가 없단 말인가? 아니면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인가? 어떤 군인이 자기 양식으로 복무하겠느냐?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 떼를 치는 자가 그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이 말을 단지 인간적인 이성으로만 하는 것이겠느냐? 율법도 똑같이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타작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고 했으니 말이다.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고, 타작하는 자는 소망을

고린도전서

가지고 타작하여 기대하는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심었다면, 여러분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그리 큰 일인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행사한다면, 우리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어떤 장애물도 놓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다.

고린도전서 9:2b-12

11주

고린도전서, 142절 시작

형제들아,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양식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제단에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몫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쓴 것은 나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누군가가 나의 칭찬을 훼손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필수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면 상을 받겠지만, 비자발적으로 한다면 단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는 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내 권세를 이용하지 않고, 대가 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13-18

8주 월요일

고린도전서, 143A절

형제들아,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나는 유대인처럼 행하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였으며,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자처럼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였으며,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되어 연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이 되었으니, 적어도 어떤 이들은 구원하기 위함이라.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노니, 복음에 동참자가 되려 함이라. 경기장에 나서는 자들은 모두 달리지,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모르시나이까? 그러니 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달리십시오. 모든 경기자들은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어떤 이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헛된 것을 향해 달리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도 나 자신이 부적합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43B절

형제들아,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종으로 삼았나니,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행하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였으며, 율법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자처럼 되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로서,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였으며,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되어, 연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이 되었으니, 적어도 어떤 이들은 구원하기 위함이라.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노니, 복음에 동참자가 되려 함이라. 경기장에 나서는 자들은 모두 달리지,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모르시나이까? 그러니 상을 받기 위해 그렇게 달리십시오. 모든 경주자들은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어떤 이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헛된 것을 향해 달리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몸을 굴복시키고 복종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도 나 자신이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건넜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를 통해 세례를 받았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양식을 먹었으며,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9:19-10:4
주현절 전야 (토요일, 일요일)**고린도전서, 143B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르게 두지 않으려 한다. 곧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건넜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안에서 모세를 통해 세례를 받았고, 모두 같은 영적인 양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뒤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기 때문이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다.

고린도전서 10:1-4
물의 위대한 성화**고린도전서, 144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 중 많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그들처럼 악을 탐하지 않

고린도전서

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들 중 어떤 자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그들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더니, 일어나 놀았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음행을 저지르던 것처럼 우리도 음행을 저지르지 맙시다. 그날 하루 만에 그들 중 이만 삼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이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의 천사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불평하지 맙시다.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며,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5-12
8주 차 화요일

고린도전서, 145절

형제들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에게 닥친 유혹은 사람으로서 겪을 만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상으로 유혹받지 않게 하실 것이며, 유혹이 닥칠 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나는 분별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말하는 바를 너희 스스로 분별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떼어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 떡으로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을 이루니, 이는 우리 모두가 한 떡에서 나누어 먹기 때문이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거나,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아니라, 이방인들이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악령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잔과 악령들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는 없으며, 주님의 식탁과 악령들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을 화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합니까?

고린도전서 10:12-22
8주 수요일

고린도전서 146절

형제들아, 내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내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장터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의 평안을 위해 아무런 분별 없이 먹으라. 주님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믿지 않는 자 중 누군가가 너희를 초대하여 가고자 한다면, 양심의 평안을 위해 너희에게 차려진 모든 것을 가리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누군가 너희에게 ‘이것은 우상 제물이다’라고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너희에게 알려 준 자를 위해서도, 양심을 위해서도 먹지 말라. 주님의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23-28

제16주 토요일.

고기 금식 토요일

고린도전서 147절

형제들아,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우상 제물이다’라고 말하면, 너희에게 그렇게 말한 자를 위하여, 또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주님의 것이 땅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합니다. 내 자유가 어찌 타인의 양심에 의해 판단받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다면, 내가 감사하는 일로 인해 왜 나를 비난합니까?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유혹의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나 또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 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형제들아, 여러분이 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칭찬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머리를 깎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머리를 깎으라. 그러나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밀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머리를 가리도록 하라. 그러므로 남편은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다.

고린도전서 10:28-11:7

8주 목요일

고린도전서, 148절

형제들아, 남편이 아내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내가 남편에게서 난 것이니,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내는 천사들을 위하여 자기 머리에 권위의 표를 써야 하리라. 그러나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 없이는 없고, 아내는 남편 없이는 없느니라. 아내가 남편에게서 난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통하여 난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아내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자연의 이치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그것은 그에게 수치이지만, 여자가 머리를

고린도전서

기르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입니다. 머리는 그녀에게 머리 덮개 대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관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을 위해 모인다는 점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는데, 저는 그 말을 어느 정도 믿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야만, 여러분 가운데 능숙한 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모이는 방식은 주님의 만찬을 나누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자기 음식을 먹으려고 서두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경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것을 칭찬해야 할까요? 나는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8-22

8주 금요일

고린도전서 149절

형제들아,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니,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그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내 기념으로 이를 행하라.” 또한 만찬 후에 잔을 들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를 시험하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 많은 이가 쇠약하고 병들며, 죽는 자도 적지 않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을 받으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23-32

성목요일

고린도전서 150절

형제들아, 우리가 스스로를 심판한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데,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일 때 서로를 기다리십시오. 만일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집에서 먹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모일 때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

고린도전서

니다. 나머지는 내가 갔을 때 정리하겠노라. 형제들아, 영적인 은사에 관해서도 너희를 무지한 채로 두고 싶지 않다.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마치 너희를 이끄는 것처럼 말 없는 우상들에게로 갔던 것을 너희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은사는 다양하나 성령은 한 분이시요, 섬김은 다양하나 주님은 한 분이시요, 활동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1:31-12:6

9주 월요일

고린도전서 151절

형제들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방언의 은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따로따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7-11

11월 17일, 성 그레고리우스 네오케사리아 주교

고린도전서 152절

형제들아,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한 몸의 모든 지체는 비록 많으나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과연 그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온 몸이 눈이라면, 청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온 몸이 청각이라면, 후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를 몸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배치하셨습니다. 만일 모두가 하나의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지체가 많고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너희는 내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며, 우리 눈에 몸에서 덜 고귀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살핌을 기울인다. 또한 우리의 보기 흉한 부분은 더 아름답게 가려지지만, 보기 좋은 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 분열이 없도록, 덜 온전한 부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하심으로써, 모

든 지체가 서로를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2:12-26

9주 차 화요일

고린도전서, 15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각은 그 지체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또 어떤 이들은 교사로 세우셨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여러 방언을 주셨다. 모두가 사도인가? 모두가 예언자인가? 모두가 교사인가?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자인가? 모두가 치유의 은사를 가진 자인가?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자인가? 모두가 해석하는 자인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뛰어난 길을 보여 주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놋쇠나 울리는 심벌즈와 같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온갖 지식을 갖추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산을 옮길 수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눠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자비롭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27-13:8A

은사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

고린도전서, 154A절

형제들아, 사랑은 오래 참으며 자비롭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게 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나니, 비록 예언이 그치고 방언이 멈추며 지식이 없어지더라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젓먹이였을 때는 젓먹이처럼 말하고, 젓먹이처럼 생각하고, 젓먹이처럼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니 젓먹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마치 흐릿한 유리 너머로, 어렴풋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이 중에서 사랑이 가장 큼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구하라. 낯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권면과 위로를 주기 위해 말한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바라지만, 예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단,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4-14:5

9주 수요일

고린도전서, 154B절

형제들아, 내가 젓먹이였을 때에는 젓먹이처럼 말하고, 젓먹이처럼 생각하고, 젓먹이처럼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매 젓먹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마치 흐릿한 유리 너머로, 어렵 뜻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만,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이 중에서 사랑이 가장 큼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는 은사를 구하라. 낯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권면과 위로를 주기 위해 말한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바라지만, 예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단,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11-14:5

7월 15일, 성 키리쿠스와 유리타

고린도전서, 15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낯선 방언으로 말한다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으로 너희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소리를 내는 무생물인 피리나 거문고라도, 분명한 음을 내지 않는다면, 누가 피리나 거문고로 연주하는 것을 알아차리겠습니까? 또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말이 있는데, 그중 의미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말하는 이에게 낯선 사람이고, 말하는 이도 나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적인 은사를 갈망할 때,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들로 풍성해지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낯선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해석의 은사를 위해

고린도전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낯선 언어로 기도할 때, 비록 내 영은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으로 기도할 것이며, 이성으로 기도할 것이며, 영으로 노래할 것이며, 이성으로 노래할 것이다. 만일 네가 영으로 축복한다면, 서 있는 평신도가 네 감사의 말에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감사를 잘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니, 나는 너희 모두보다 방언으로 더 많이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내 이성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

고린도전서 14:6-19
9주 목요일

고린도전서 156절

형제들아, 생각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되, 생각에 있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른 방언과 다른 입으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모두 낯선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너희에게 들어온다면, 그들이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나 알지 못하는 자가 들어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책망받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속 비밀이 드러나고, 그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리라. ‘진실로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20-25
17주 토요일

고린도전서 157절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편이 있거나, 교훈이 있거나, 방언이 있거나, 계시가 있거나, 해석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교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누구든지 낯선 방언으로 말한다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말하고, 한 사람이 해석해야 한다. 만약 해석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선지자들은 두세 명이 말하게 하고, 나머지는 토론하게 하라. 만일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오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침묵하라. 너희는 모두 차례대로 예언하여, 모든 사람이 교훈을 받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라. 또한 예언의 영은 예언자들에게 순종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너희 아내들은 교회에서 침묵하라. 그들에게 말할 권리가 없으며, 율법이 말하듯이 복종

고린도전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보게 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전해진 것이냐?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말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누가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게 두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는 일에 힘쓰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26-40

9주 금요일

고린도전서, 15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노니, 너희가 받아들였고, 그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이다. 단, 내가 너희에게 전한 대로 그 가르침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나 자신도 받아들였던 바와 같이,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게파에게 나타나신 뒤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후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 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다음 야고보에게, 또한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 모든 이보다 나중에 나 같은 버림받은 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며, 그분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았으니,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수고하였으니, 실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든 그들이든,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였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1-11

제12주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전파된다면, 어찌하여 너희 중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고 증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며,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멸

고린도전서

망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만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12-19

10주 월요일

고린도전서, 160절 시작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왔듯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니, 각기 차례대로: 만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분의 재림 때에 말입니다. 그 후에야 끝이 나리니, 그분께서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신 분께 왕국을 넘겨드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폐하실 때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엮드리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은 멸망할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분께 모든 것이 복종되었다고 말할 때, 그분께 모든 것을 복종시킨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실 때, 그때에야 비로소 아들도 그분께 모든 것을 복종시키신 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20-28

고인들을 기리며 (목요일)

고린도전서 161절

형제들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만일 죽은 자들이 전혀 부활하지 않는다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가? 또 우리가 왜 매시간 고난을 당하는가? 나는 매일 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너희의 칭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의 이치로 볼 때,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선한 품성을 타락시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치로 말하건대,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말하겠지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어떤 몸으로 오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가 심는 것은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한다. 네가 심을 때, 장차 올 몸을 심는 것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것이든, 있는 그대로의 알갱이를 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알갱이에 몸을 주시며, 각 씨앗마다 그만의 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5:29-38

10주 화요일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62절

형제들아,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는 다르고, 짐승의 육체는 다르고, 물고기의 육체는 다르고, 새의 육체는 다릅니다. 하늘의 몸도 있고 땅의 몸도 있으니, 하늘의 몸은 그 영광이 다르고 땅의 몸은 그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들의 영광도 다르니, 별마다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며,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어나며, 약함 속에 심겨지고, 능력 속에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겨지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신의 몸도 있고,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39-45

18주째 안식일.

고인들을 기리는 날 (화요일)

고린도전서 163절

형제들아, 첫 사람은 땅에서 난 흙으로 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시다. 흙으로 된 자가 어떠한지, 흙으로 된 자들도 그러하며,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떠한지, 하늘에 계신 분들도 그러하다. 우리가 흙으로 된 자의 형상을 입었듯이, 하늘에 계신 분의 형상도 입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건대, 육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드리니,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은 아니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모두가 변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변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죽음이 승리로 삼켜졌다’는 것이다. 죽음아, 네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47-57

고인들을 기리며 (금요일)

고린도전서, 164절

형제들아,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라.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라.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있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정한 대로 행하라. 매주 첫째 날에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미리 따로 모아 두십시오. 그래야 내가 갔을 때 모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뽑은 사람들을 편지와 함께 보내어 여러분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5절 시작

형제 여러분, 제가 떠나도 무방하다면, 여러분이 뽑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갈 것입니다. 제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저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머물거나 겨울을 나며, 여러분이 제가 갈 곳으로 배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지나가며 잠깐 만나는 것은 원치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곁에 얼마 동안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에서는 오순절까지 머물 것입니다. 내게는 크고 넓은 문이 열려 있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가 여러분 곁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는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가 내게 올 수 있도록 평안히 배웅해 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폴로 형제에 관해서는,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그는 지금 당장은 가기를 원치 않았고, 자신에게 편할 때 오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4-12
10주 수요일**고린도전서 16장 1절**

형제들아,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기를 내고 굳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너희는 스테반 가문을 알고 있거니와, 그들이 아카이아의 시초이며 성도들을 섬기기로 헌신한 자들이라는 것을), 너희도 그들과 모든 협력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하라. 나는 스테파노와 포르투나토, 아카이코가 도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부재를 나에게 채워 주었으니,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존중하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주 안에서 그들의 가정 교회와 함께 여러분에게 간절히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13-24
13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67A절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카이아 전역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해질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며, 그 구원은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에도,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위로와 구원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뿐만 아니라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7
10주 목요일

고린도후서, 167B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모든 슬픔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해질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며, 이는 우리가 겪는 것과 같은 고난을 여러분이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에도,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위로와 구원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고난뿐만 아니라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7
순교자들에게

고린도후서, 168절

형제들아, 우리는 아시아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던 우리의 고난에 대해 형제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힘에 부칠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기에, 살아남을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으니,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토록 임박한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지금도 건져내고 계시며,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의 도움으로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의 중보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해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8-11

20주 토요일

고린도후서 169절

형제들아, 우리의 이 칭찬은 우리 양심의 증거니, 곧 우리가 단순함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진실함으로,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읽고 이해하는 바와 다르지 않으며,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깨달은 바와 같이,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의 자람이 되고, 여러분도 우리의 자람이 될 것임을, 끝까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에게 더 일찍 가려고 했으니, 여러분이 다시 은혜를 받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려 했으며, 여러분은 나를 유대 땅으로 배웅해 주실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을 품고 있었는데, 내가 경솔하게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육신에 따라 행하여, 때로는 “예, 예”라고 하고 때로는 “아니오, 아니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예”라고 했다가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곧 나와 실바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는 ‘예’가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예’이며 그분 안에서 ‘아멘’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고린도후서 1:12-20

10주 금요일

고린도후서, 170절

형제들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

고린도후서

라. 나는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슬프게 한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내가 갔을 때 기뻐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 대해 확신합니다.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말입니다. 큰 슬픔과 답답한 마음으로 나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향해 넘치도록 품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1-2:4
14주

고린도후서, 171절 시작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큰 슬픔과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향해 넘치도록 품고 있는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슬픔을 안겨 주었다면, 그 사람은 저만을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느 정도 슬픔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이들에게서 받은 이 징벌만으로도 충분하니, 여러분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가 지나친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무엇에 대해 용서하든지, 나도 그와 같이 용서합니다. 나 또한 누구를 무엇에 대해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한 것이니, 사탄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꾀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트로아에 갔으나,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의 형제 티토를 찾지 못하여 내 영혼이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향기를 퍼뜨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3B-15A
11주 월요일

고린도후서, 172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 곳곳에 그분에 대한 지식의 향기를 퍼뜨리십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으로 이끄는 죽음의 냄새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진실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내거나 여러분으로부터 받는 추천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로서,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보여 주십니다. 이 편지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의 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14-3:3

11주 화요일

고린도후서, 173절

형제들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마치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영이다. 왜냐하면 글자는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만일 돌판에 새겨진 죽음을 가져오는 글자에 대한 사역이 그토록 영광스러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비친 일시적인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면, 영에 대한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죄의 사역이 영광스럽다면, 의롭다 함을 주는 사역은 더욱더 영광으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영광스러운 것조차도 뒤따르는 더 큰 영광 때문에 이쪽에서는 영광스럽지 않게 보인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이 영광스럽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3:4-11

11주 수요일

고린도후서, 174절

형제들아,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큰 담대함으로 행하노니,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썩어 없어질 것의 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베일을 씌웠던 것과는 달리.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오늘날까지 그 같은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그 베일을 벗기시

고린도후서

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면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지만, 주님을 향할 때면 그 베일이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베일을 벗은 얼굴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12-18

21주 토요일

고린도후서, 175절

형제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사역을 맡은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간계를 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며,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종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1-6

11주 목요일

고린도후서, 176절

형제들아,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으니, 이는 넘치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돌리려 함이라.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으나 갇히지는 아니하며, 곤경에 처하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쓰러지나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으니, 이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도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자로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도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우리도 믿으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부활시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은혜의 풍성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큰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6-15

고린도후서, 177절

형제들아,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우리도 믿으므로 말하노니,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부활시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은혜의 풍성함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큰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해 가더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잠시 동안의 가벼운 고난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영원한 영광을 낳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13-18
11주 금요일

고린도후서 178절

형제들아, 우리가 이 땅의 집, 곧 이 초가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있는 거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을 받았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거처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탄식합니다. 다만 입은 채로 벌거벗은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에 거하는 동안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입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차라리 육신을 벗고 주님 곁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무르든지 떠나든지 그분께 기쁘시게 하려고 부지런히 힘쓰나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1-10A
22주 토요일.
고인들을 기리는 날 (수요일)

고린도후서, 179절

형제들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이는 각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며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훈계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드러나 있나니, 너희 양심 앞에서도 드러나 있기를 바란다.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하려는 것

고린도후서

이 아니라, 여러분이 겉모습만 자랑하고 마음은 없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함이며, 겸손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10-15

12주 월요일

고린도후서, 180절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으로 누구도 알지 아니하노라. 설령 우리가 전에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사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15-21

12주 화요일

고린도후서, 18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헛되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며, 모든 일에서 큰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질과 감옥과 유배와 수고와 기도와 금식과 순결, 분별력 가운데, 너그러움 가운데, 선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른손과 왼손에 진리의 무기를 들고, 명예와 불명예 가운데, 비난과 칭찬을 받을 때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사기꾼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신실합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알려지고, 죽은 자로 여겨지나 보라, 우리는 살아 있으며, 징계를

고린도후서

받으나 죽지 않고, 슬픔을 당하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하나 많은 이를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1-10

16주.

순교자들에게

고린도후서, 182A절

형제들아, 우리 입은 고린도인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좁아져 있습니다. 공정한 보답으로, – 아이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불신자들과 함께 타인의 명예를 메지 마십시오.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신실한 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6:11-16A

12주 수요일

고린도후서, 182B절

형제들아,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가운데 다니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되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는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완성합시다.

고린도후서 6:16b-7:1

17주

고린도후서, 183절

형제들아, 육체와 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자.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았으며, 누구에게서도 이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며, 여러분을 크게 자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나는 위로로 가득 차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아무런 안식을 얻지 못했고, 사방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밖에서는 공격이,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

고린도후서

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티토의 방문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 대해 전한 위로의 말로도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열심과 눈물, 그리고 나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에, 나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 해도, 비록 한때는 후회했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을 슬프게 했으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슬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슬픔이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슬퍼했으므로, 우리로 인해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변함없는 회개를 낳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1B-10A

12주 목요일

고린도후서, 184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을 위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변함없는 회개를 낳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슬퍼한 바로 그 일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열심과, 어떤 변명과, 죄인에 대한 어떤 분노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소망과, 어떤 열심과, 어떤 징계를 낳았는지! 여러분은 이 일에서 모든 면에서 순결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모욕한 자나 모욕당한 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염려가 드러나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여러분의 위로로 위로를 받았으며, 더 나아가 티토의 기쁨으로 더욱 기뻐하였으니, 여러분 모두가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티토 앞에서 여러분에 대해 어떤 점을 자랑했다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던 것처럼, 티토 앞에서도 우리의 칭찬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티토는 여러분 모두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그를 맞이했던 그 순종을 떠올리며, 여러분을 향해 깊은 호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여러분을 의지할 수 있어 기쁩니다.

고린도후서 7:10-16

12주 금요일

고린도후서, 185절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은 큰 시련 가운데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고, 깊은 궁핍 속에서도 관대함의 풍성함이 넘쳐흐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닿는 대로, 아니 힘 이상으로 기꺼이 행하였으니, 내가 증인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위한 봉사에 그들의 헌금과 참여를 받아 달라고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먼저 주님께,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86절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면에서 풍성하듯이—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온갖 열심과 우리를 향한 너희의 사랑에서—이 덕목에서도 풍성하게 하라. 이 말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열심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함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시다시피, 그분은 부유하셨으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셨으니, 이는 여러분이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도록 하려 하심입니다. 이에 대해 내가 권면하노니, 이는 이미 이 일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이를 간절히 원해 온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일을 완성하여, 간절히 원했던 바가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열심이 있다면, 그것은 각자가 가진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없는 것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부담이 덜하고 여러분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풍족함이 그들의 부족함을 메우고, 나중에는 그들의 풍족함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메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이 모은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모은 자도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87절

형제들아, 티토의 마음에 너희를 향한 이러한 열심을 심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에게 부탁하기도 했으나, 그는 매우 열심이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모든 교회에서 복음 전파로 칭찬받는 형제도 보냈는데, 그는 이 자선 사업을 위해 교회들로부터 우리와 동행하도록 선택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에 부응하여 이 자선 사업을 섬기고 있으며, 우리 사역에 맡겨진 이 풍성한 헌물로 인해 누구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도 보냈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일에서 여러 번 그 열심을 입증받은 자이며, 지금 여러분에 대한 큰 확신으로 인해 더욱 열심입니다. 티타에 관해서는, 그는 여러분 곁에서 나의 동역자이자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 관해서는, 그들은 교회들이 보낸 사절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나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해 여러분에게 편지하는 것은 제게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열심을 알고 있으며,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카이아 지역이 작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열정이

고린도후서

많은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번 일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에 대한 칭찬이 헛되지 않게 하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나와 함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여러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그토록 확신에 차서 자랑스런 탓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제들에게 미리 여러분에게 가서 사전 준비를 하도록 부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미 선포된 여러분의 축복이 강요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으로서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16-9:5

13주 화요일

고린도후서, 188절

형제들아,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겠고, 아낌없이 심는 자는 아낌없이 거두리라. 각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역지나 마지못함이 없이 내어주라.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니, 여러분이 언제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행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흠어 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의 의는 영원히 남으리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이 뿌린 것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배가시켜 주시리니,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풍성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6-11

18주

고린도후서, 189절

형제들아, 이 섬김의 사역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 봉사의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과 진심으로 교제하는 것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을 향한 호의로 인해, 여러분 안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는 온유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을 향해 담대하게 말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인내로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부디 제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들에게 대항하여 사용하려 하는 그 단호한 담대함을 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육신 안에 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교만과 계락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며, 여

고린도후서

러분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징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9:12-10:7

13주 수요일

고린도후서, 190절 시작

형제들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자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만일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것임—더 자랑한다고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편지로만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편지에서는 엄격하고 강하지만, 직접 만나면 약하고 말도 별것 아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편지를 통해 멀리서 말로 표현하는 모습 그대로, 실제로 직접 만났을 때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들과 우리를 대조하거나 비교할 감히 못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아, 이성 없이 자신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분량대로, 곧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도록 허락하신 만큼만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애쓰지 않으니,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수를 넘어서 자랑하지 않으며, 남의 수고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 몫을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늘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의 몫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자만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7b-18

13주 목요일

고린도후서, 191절

형제들아, 오, 너희가 내 어리석음을 조금만 너그럽게 봐 주었더라면!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나를 너그럽게 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한 분의 남편께 약혼시켜, 그리스도께 순결한 처녀로 바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의 순수함에서 벗어나 타락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성령을 받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매우 너그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뛰어난 사도들에 비해 어떤 면에서도

고린도후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는 말에는 서툴지만, 지식에는 서툴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1-6

24주 토요일

고린도후서, 192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어떤 면에서도 뛰어난 사도들에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는 말에는 서툴지만, 지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상으로 전한 것이 죄가 되었습니까? 다른 교회들에게는 제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그들에게서 생활비를 받음으로써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을 때 비록 궁핍을 겪었지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 부족함을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두고 말하건대, 아카이아 지방에서 이 칭찬은 내게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행할 것입니다. 이는 빌미를 찾는 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함이며, 그들이 자랑하는 바가 우리와 똑같은 것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교활한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하기 때문입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인 척하니까, 그의 종들이 진리의 종인 척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하겠는데,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비록 어리석은 사람으로라도 나를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조금이나마 자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할 말은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리석음 속에서 감히 자랑하려는 듯한 태도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에 따라 자랑하듯이,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분별 있는 자들이니,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참아 주니, 누군가 너희를 노예로 삼을 때, 누군가 너희를 착취할 때, 누군가 너희를 약탈할 때, 누군가 자만할 때, 누군가 너희 얼굴을 때릴 때도 참아 주니. 부끄럽게도 말하건대,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부족했다.

고린도후서 11:5-21A

13주 금요일

고린도후서, 193절

형제들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리석게도 말하건대) 나도 감히 자랑하리라. 그들이 유대인인가? 나도 그러하다.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나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종들인가? (미친 듯이 말하건대) 나는 그들보다 더

고린도후서

났다. 나는 수고도 훨씬 더 많이 했고, 상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입었으며, 감옥에 갇힌 적도 더 많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40 대에서 한 대 모자란 때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은 막대기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세 번은 배가 난파되어 밤낮으로 바다 깊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수많은 여행을 했으며, 강에서 위험을 겪었고, 강도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도시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위험을 겪었으며, 수고와 고된 노동 속에서, 자주 밤을 새우며,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종종 금식하며, 추위와 벌거벗은 채로 지냈습니다. 이 밖의 여러 모험들 외에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든 교회를 돌보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지치면, 내가 그와 함께 지치지 않겠습니까? 누가 유혹을 받으면, 내가 그를 위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바구니에 실려 창문에서 성벽을 타고 내려와 그의 손아귀를 피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14년 전(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신다)에 제3의 하늘까지 끌어올려졌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다만 육신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육신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는 낙원으로 끌어올려져 사람이 말로 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연약함만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나저나, 만일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어리석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니,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듣는 것이상으로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있다. 또한 내가 받은 계시의 특별함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게는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으니, 곧 사탄의 천사가 나를 괴롭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 세 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고, 오히려 내 약한 점을 자랑하기를 훨씬 더 기꺼이 하리라.

고린도후서 11:21b-12:9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고린도후서, 194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는 바구니에 실려 창문에서 성벽을 타고 내려와 그의 손

고린도후서

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으니, 이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이르기 때문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신다)에 제3의 하늘까지 끌어올려졌더라. 또 어떤 사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다만 육체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육체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는 낙원으로 끌어올려져 사람이 말로 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의 연약함만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나저나, 만일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어리석게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니, 진실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도록 자제하고 있다. 또한 내가 받은 계시의 특별함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게는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으니, 곧 사탄의 천사가 나를 괴롭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님께 세 번이나 그를 내게서 치워 달라고 간구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고, 오히려 내 약한 점을 자랑하기를 훨씬 더 기꺼이 하리라.

고린도후서 11:31-12:9

19주

고린도후서, 195절

형제들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 모욕, 궁핍, 박해, 괴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비로소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랑하느라 어리석은 짓까지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자랑해야 마땅합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뛰어난 사도들에 비해 어떤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표징은 온갖 인내와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드러났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점뿐입니까? 이러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가려고 준비 중이며,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서 덜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 재산을 쓰고 내 몸을 소진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헌신하겠노라. 설령 내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교활하게 속임수로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취했다고 치자.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중 누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가? 나는 디도를 간청하여 그와 함께 형제 중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만 하고 있다고 생각

고린도후서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10-19

14주 월요일

고린도후서, 196절

형제들아, 내가 두렵다. 내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너희를 만나게 될까 봐, 또한 너희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만나게 될까 봐. 곧 너희 가운데서 분열과 시기, 분노, 다툼, 비방, 비방, 교만, 무질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다시 갔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저를 비하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이전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이 저지른 부정, 음행, 방탕함에서 회개하지 않은 많은 이들을 위해 제가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모든 말이 확증될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 곁에 있을 때처럼 미리 경고했고,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전에 죄를 지은 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 제가 다시 올 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20-13:2

14주 화요일

고린도후서, 19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지 그 증거를 찾고 있느냐?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무력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이는 그분이 비록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나,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여,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모르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니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임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악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항하여 강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여러분이 강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바로 이 점, 곧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멀리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로 엄하게 꾸짖지 않으려 함입니다. 그 권위는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형제들아, 기뻐하고, 온전해지며, 서로 위로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화목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고린도후서

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3-13

14주 수요일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98절

사람에게서나 사람을 통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받은 사도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신 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내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분을 떠나, 그리도 빨리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놀랍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나라 하늘에서 온 천사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호감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호감을 구하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인가? 만일 내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직접 알지는 못했으나, 한때 그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 전에 박멸하려 했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티토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습니다. 나는 계시를 따라 갔으며, 그곳에서 특히 저명한 이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헛된 수고가 아니었는지, 또 헛된 수고를 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함께 있던 티토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 했던 거짓 형제들에게는 단 한 순간도 양보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보존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갈 1:1-10; 1:20-2:5

14주 목요일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99절

형제들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내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떠나, 그리도 빨리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놀랍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나라 하늘에서 온 천사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호감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호감을 구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만일 내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갈 1:3-10
25주 토요일

갈라디아서, 20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니, 나도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제가 유대교에서 살던 옛 생활 방식, 곧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하고 황폐화시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따르던 나머지, 제 동족 중 많은 이보다 유대교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던 일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분을 전하게 하려고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 그때 나는 육신과 피를 따르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에게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서야 나는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갔고,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 외의 사도들 중에서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갈 1:11-19
20주.
그리스도 탄생 후 첫 주

갈라디아서, 201절

형제 여러분, 어떤 면에서든 유명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저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람들도 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말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

갈라디아서

로가 할례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듯이, 나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할례 받은 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사역을 도우신 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며), 내게 주어진 은혜를 알게 되자, 기둥으로 존경받는 야고보와 게파와 요한은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손을 내밀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자들에게로 가도록 하였으나,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점만 명심하라고 하였으니, 나는 이를 정확히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갈 2:6-10
14주 금요일

갈라디아서, 202절

형제들아, 베드로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나는 그가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그에게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으나, 그들이 오자 할례 받은 자들을 두려워하여 숨고 물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다른 유대인들도 위선을 부렸으므로,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성상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육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갈 2:11-16
15주 월요일

갈라디아서, 203절

형제들아,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육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구하다가 우리 자신도 죄인이 되었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 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허물어 놓은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율법을 위하여 율법에서 죽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함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04절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유혹하여 진리를 따르지 않게 하였느냐? 너희 눈앞에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드러나 계셨는데도 말이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르침으로 인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영으로 시작하고 이제 육체로 끝내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겪은 것입니까? 오, 설령 헛된 것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갈라디아서, 205절

형제들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나,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율법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이다. 율법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나, 그것을 지키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206절

[133절](#) 참조.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07절

형제들아, 사람의 이치로 말하건대, 사람이 확정한 유언조차도 아무도 취소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후손들’이라고 하여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네 후손’이라고 하였으니, 그 후손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을, 430년 후에 나타난 율법이 약속이 효력을 잃게 할 정도로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율법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약속이 적용되는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악들로 인해 나중에 주어진 것이며, 중보자의 손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한 분만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생명을 주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의는 참으로 율법에서 나왔을 것이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였습니다.

갈 3:15-22

15주 수요일.

그리스도 탄생 전야, 저녁 기도 (토요일, 일요일)

갈라디아서, 208A절

형제들아,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며 지내왔으니, 이는 믿음이 드러나기까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양육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양육자의 인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에 따라 상속자입니다.

갈 3:23-29

경건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 탄생 전야, 제3시

갈라디아서, 208B절

형제들아,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곧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까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양육자였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는 더

갈라디아서

이상 양육자의 인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라 상속자이다. 또 말하노니, 상속자는 어린아이일 때에는 주인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과 다를 바가 없으니, 아버지가 정한 기한이 올 때까지 후견인과 집사들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린아이일 때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원리들에 종노릇했으나,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독일자)를 보내셨으니, 그분은 여인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계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양자로 삼아 주실 수 있게 하셨느니라.

갈 3:23-4:5

15주 목요일

갈라디아서, 209절

형제들아,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여인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계셨으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사 우리가 양자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하다.

갈 4:4-7

12월 25일, 주님의 탄생

갈라디아서, 210A절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본질상 신이 아닌 신들을 섬기곤 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었으니, 어찌하여 다시 연약하고 빈약한 물질적 원리들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노예가 되려 하는가? 너희는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고 있다. 나는 여러분을 걱정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부디 나처럼 되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록 제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은 제 육신에 닥친 시련을 멸시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증언하노니,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눈을 뽑아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던 말입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향해 부정한 마음으로 시기하며, 여러분이 그들을 시기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배제하려 합니다. 선한 일에는 언제나 시기하는 것이 좋으나, 단

갈라디아서

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내가 다시 한 번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구나! 지금 당장 너희 곁에 가서 내 목소리를 바꾸고 싶구나. 너희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너희가 내게 말해 보라. 너희는 율법을 듣지 않는가?

갈 4:8-21

15주 금요일

갈라디아서, 210B절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본질상 신이 아닌 신들을 섬겼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연약하고 빈약한 물질적 원리들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노예가 되려 하는가? 너희는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을 위해 걱정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요? 형제들아, 부디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비록 내가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은 내 육체의 연약함을 멸시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맞아주었습니다.

갈 4:8-14

병든 자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10B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 여인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고, 자유 여인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는 두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시나이 산에서 나온 것으로, 노예의 삶을 낳는 것이며, 이는 하갈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산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자녀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롭습니다. 그곳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불임의 여인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라. 해산 고통 없이 낳은 자여, 소리 높여 외치라. 버림받은 자에게는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녀가 훨씬 더 많으니라.”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을 통해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영으로 태어난 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과 그녀의 아들을 쫓아내라. 종의 아들은 자유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입니다.

갈 4:22-31

9월 9일, 의로운 요아킴과 안나

갈라디아서, 211절

형제들아, 우리는 이삭을 통해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영으로 태어난 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인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보라,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너희는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은혜에서 벗어났으나,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기다리며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달리 생각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 그가 누구든지, 그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 4:28-5:10

16주 월요일

갈라디아서, 212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도 할례를 전파한다면, 도대체 왜 나를 박해하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유혹은 사라졌을 것이다. 오,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 제거되었더라면! 형제들아, 너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만 너희의 자유가 육체를 만족시키는 구실이 되지 않게 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은 한 마디로 요약되니,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서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말하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을 것이니,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이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여,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육체의 행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곧 간음, 음행, 부정한 행위, 음탕함,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노, 분열, 이견, (유혹), 이단, 증오, 살인, 술 취함, 방탕함 및 이와 유사한 것들입니다. 이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갈 5:11-21

갈라디아서, 213절

형제들아,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 자비,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이 있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고, 서로 자극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지더라도, 영적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또한 각자 자신을 잘 살피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로의 짐을 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십시오.

갈 5:22-6:2
27주 토요일.
성인

갈라디아서, 214절

형제들아, 서로의 짐을 지어 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아무것도 아닌 자이면서 스스로를 무엇인 양 여기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살피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만 칭찬을 받게 되리니,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선한 것을 나누어 주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음을 거두고, 영에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지치지 않는다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갈 6:2-10
제16주 수요일

갈라디아서, 215A절

형제들아,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보라. 육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만 너희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자들조차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기를 원하여 너희 육신을 자랑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내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원칙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은혜가

갈라디아서

있을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상처를 지니고 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제들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갈 6:11-18

22주

갈라디아서, 215B절

형제들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새 피조물일 뿐이니라. 이 원칙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평화와 자비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상처를 지니고 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제들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갈 6:14-18

성금요일, 1시

에베소서

에베소서, 216절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죄 사함을 얻었으니, 이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분은 모든 지혜와 총명함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밝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엡 1:1-9A
16주 목요일

에베소서, 217절

형제들아,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분은 모든 지혜와 총명함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시며, 때가 차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으시려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전에 그분 안에서 정하신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의 예정에 따라,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유산의 보증이시며, 그분의 기업을 구속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듣고,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엡 1:7-17A
16주 금요일

에베소서, 218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의 기도 중에 너희를 기억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유산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믿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권능의 위대함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분은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보다 높이시어,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두어,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교회는 모든 것을 모든 것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엡 1:16-23

28주 토요일

에베소서, 219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높이 올리사,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이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의 뜻에 따라, 지금은 대적의 아들들 안에서 활동하는 그 영의 뜻에 따라, 우리도 한때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라 행했고, 본성상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엡 1:22-2:3

17주 월요일

에베소서, 220A절

형제들아,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장차 올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어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엡 2:4-10

23주

에베소서, 220B절

형제들아, 너희가 한때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행하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할례 받은 자’라고 부르며 너희를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라. 그 당시 너희는 그리스도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하며,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엡 2:11-13
29주 토요일

에베소서, 22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두 무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가운데에 서 있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으며, 그분의 육체로 원수를 없애시고, 계명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바꾸어, 두 무리를 그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평화를 이루시며, 한 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원수를 죽임으로써 두 무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셔서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모두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굳게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어, 그분 위에 온 건물이 조화롭게 쌓여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며, 그 성전 안에서 여러분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엡 2:14-22
24주

에베소서, 222절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굳게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분 위에 온 건물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 성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통해 여러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집 짓는 일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계시를 통해 나에게 그 비밀이 알려졌기 때문이며(이에 대해서는 앞서 간략히 썼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전 세대의 인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드러난 바와 같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

에베소서

루는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약속에 동참하게 하려 함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분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엡 2:19-3:7

17주 화요일

에베소서, 223절

형제들아,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으니, 곧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전파하고, 영원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하고 풍성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영원 전부터 정하신 뜻대로,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바니,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고한 접근권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겪는 고난들, 곧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그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문의 이름이 그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에 따라 그분의 성령으로 내면의 사람 안에서 여러분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사,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서,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고, 지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차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엡 3:8-21

17주 수요일

에베소서, 224A절

형제들아, 주 안에서 갇힌 자인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평의 유대를 통해 성령의 일치를 지키도록 힘쓰라. 한 몸과 한 영이 있듯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소망도 하나입니다.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모든 이의 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분,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며,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엡 4:1-6

25주

에베소서, 224B절

형제들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높이 올라가사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이, 그분이 이전에 땅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것 외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려가신 그분은 또한 모든 하늘보다 높이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하려 하심이라.

엡 4:7-13
주현절 후 첫 주.
성인들에게

에베소서, 225절

형제들아, 우리가 더 이상 유아처럼 흔들리거나, 사람의 간계와 교묘한 속임수의 꾀에 따라 온갖 교리의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참된 사랑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서로 연결하는 모든 관절을 통해 조화롭게 결합되어, 각 지체가 제 몫을 다할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 나가며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두고 간청하며 맹세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민족들이 하는 대로, 마음의 헛된 생각에 따라 행하지 말라. 그들은 무지와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 이성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느니라. 그들은 감각을 잃은 채 방탕에 빠져, 만족할 줄 모르고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엡 4:14-19
17주 목요일

에베소서, 226절

형제들아, 내가 주님을 두고 맹세하며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민족들이 하는 대로, 곧 마음의 헛된 생각에 따라 행하지 말라. 그들은 무지와 굳어진 마음 때문에 이성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 방탕에 빠져, 만족할 줄 모르고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듣고 그분 안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대로, 속이는 정욕 속에서 썩어가는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엡 4:17-25A

에베소서, 227절

형제들아, 거짓을 버리고 각자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너희의 분노 가운데 지게 하지 말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도둑질하던 자는 이제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차라리 수고하여 자신의 손으로 유익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썩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교훈이 되는 선한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또한 속죄의 날에 여러분을 인치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모든 분노와 격분, 노여움, 고함, 악한 말은 온갖 악의와 함께 여러분에게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엡 4:25-32

18주 월요일

에베소서, 228절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향기로운 제물로 삼으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서 그 이름조차 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욕설과 헛말, 조롱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나 부정한 자, 또는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음을 아십시오.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는 그러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반역의 자식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에페소서 5:1-8A

제30주 토요일

에베소서, 229절

형제들아,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지를 분별하고, 어둠의 무익한 일들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지나니, 드러나는 모든 것은 빛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비추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주의하여, 분별 없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

에베소서

처럼 행하며, 이 시대를 악용하는 자들이 많으니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러므로 분별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방탕함을 초래하는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마음속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엡 5:8b-19
26주.
성령의 월요일

에베소서, 230A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서로 순종하며,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분께서도 몸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그 교회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엡 5:20-26
18주 화요일

에베소서, 230B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서로 복종하며,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분께서도 몸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사, 말씀으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나 결점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 하신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양육하고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요, 그분의 살과 뼈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은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할 것이니라.

엡 5:20-33A
결혼 성사를 거행할 때

에베소서, 23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이는 교회를 흠이나 결점이나 그와 같은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양육하고 보살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요, 그분의 살과 뼈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크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도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엡 5:25-33A

18주 수요일

에베소서, 232절

형제들아,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경외할 것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의의 요구이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따르는 첫 번째 계명이니, 곧 네게 복이 있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신의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마음의 순수함으로,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 단지 겉으로만 봉사하는 척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께 섬기듯 열심을 다해 섬기되, 사람에게 섬기듯 하지 말라.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 사람이 행한 선에 따라 주님께 상을 받을 것임을 알라. 주인 여러분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며, 엄격함을 자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그들 위에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계시며, 그분께는 편파함이 없음을 아십시오.

엡 5:33-6:9

18주 목요일

에베소서, 233절

형제들아, 주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마귀의 꾀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아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맞서 싸워 모든 것을 이기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베소서

전신 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갑옷을 입고, 평화를 전할 준비가 된 신발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 악한 자의 모든 불타는 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칼을 잡으십시오.

엡 6:10-17

27주.

주현절 후 토요일.

고백자들에게

에베소서, 234절

형제들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모든 성도와 나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그래야 내게 – 내 입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나는 쇠사슬에 묶인 채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니, 마땅히 해야 할 대로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여러분이 나의 사정과 행한 일들을 알 수 있도록, 티키킨가 모든 것을 전해 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이자 주님 안에서 신실한 종으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대해 알게 하고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엡 6:18-24

18주 금요일

빌립보서

빌립보서, 235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주교들과 집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드리는 나의 모든 기도 속에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파에 동참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수호하고 확립하는 일에서 여러분 모두를 은혜의 동역자로 여기며, 여러분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 1:1-7
19주 월요일

빌립보서, 236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감흥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 더 나은 것을 분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 사정이 복음 전파에 더 큰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전 프리토리아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며,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 대다수가 나의 갇힘을 보고 용기를 얻어, 더 큰 담대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음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빌 1:8-14
19주 화요일

빌립보서, 23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내 처지가 복음 전파에 더 큰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얹힌 쇠사슬 소식이 전 프리토리아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의 대다수가 나의 쇠사슬 소식으로 용기를 얻어, 더욱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물론 어떤 이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또 다른 이들은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

빌립보서

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쟁심 때문에 내 족쇄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려고 생각하며 순수하지 않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다른 이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도록 세워졌음을 알기에 사랑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선적으로 전하든 진심으로 전하든, 나는 그것도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확신과 소망에 따라 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 1:12-20A
19주 수요일

빌립보서, 238절

형제들아, 나는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모든 담대함으로, 지금이나 언제나처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니, 그것이 생명이든 죽음 이든 간에 그러하리라. 내게 있어 생명은 그리스도요, 죽음은 이득이니라. 만일 육신에 있는 삶이 내 사역에 열매를 맺는다면,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노라. 이 두 가지 모두 나를 끌어 당깁니다.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내가 남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자랑이 나를 통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빌 1:20B-27A
19주 목요일

빌립보서, 239절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가지 않고 소식을 듣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힘쓰며, 어떤 적대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게서 보았고 지금도 나에 대해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고난을 그분을 위해 겪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위로가 있든지, 사랑의 어떤 기쁨이 있든지, 영의 어떤 교제가 있든지, 자비와 긍휼이 있든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각자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돌보십시오.

빌 1:27-2:4

빌립보서, 240절

형제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것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띠시며, 겉모습도 사람과 같아지셨다. 또한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허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계신 분임을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빌 2:5-11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

빌립보서, 241절

형제들아, 너희가 내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는 이 때에 더욱더 항상 순종해 온 것처럼, 경외와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원하시는 바와 행하시는 바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의심 없이 행하여, 흠 없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고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흠 없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빛처럼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나를 자랑하게 하십시오.

빌 2:12-16A

20주 월요일

빌립보서, 242절

형제들아, 내가 헛되이 수고한 것도 아니요, 헛되이 애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위하여 제물이 된다 해도, 나는 기뻐하며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일에 대하여 너희도 기뻐하며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도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영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여러분을 그토록 진심으로 돌보는, 나와 같이 열심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충성심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 전파에 있어 나를 섬겨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처지가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대로, 그를 즉시 보내기를 바랍니다.

빌 2:16b-23

20주 화요일

빌립보서, 243절

형제들아,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나 자신도 곧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이자 동역자이며 나의 동지인 에파프로디토스를, 곧 여러분의 사자이자 나의 곤경에서 나를 도운 자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뵙기를 간절히 원했고, 여러분에게 그의 병에 대한 소문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깊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을 지경까지 병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그뿐만 아니라 나 까지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슬픔에 또 다른 슬픔이 더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서둘러 보냈으니,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나도 슬픔이 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온갖 기쁨으로 그를 맞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으며, 여러분이 저를 위해 베풀지 못한 봉사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빌 2:24-30
20주 수요일

빌립보서, 244절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내용을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스럽지 않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행자들을 조심하고, 할례를 조심하라. 할례란 곧 우리와 같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비록 나도 육체를 의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육체를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야말로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출신,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며,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따르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며, 율법상으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버렸으며,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빌 3:1-8
20주 목요일

빌립보서, 245절

형제들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으며,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 그분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음에 본을 따라,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도달했거나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분께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뻗어 나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소명의 영광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든지, 그에 따라 생각하고 그 원칙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본받고, 우리 안에서 본을 보인 자들을 따라 하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했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세상의 일만 생각한다.

빌 3:8b-19

20주 금요일

빌립보서, 246절

형제들아, 우리의 거처는 하늘에 있으니, 거기서 우리는 구주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일치하게 하실 것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에보디아에게 간청하노니, 신티키아에게도 간청하노니, 주님께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한 너, 진실한 동역자여, 나와 클레멘트,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부탁한다.

빌 3:20-4:3

순교자 성인들의

빌립보서, 247절

형제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며 너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참된 것과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 곧 모든 미덕과 칭찬할 만한 것만을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내게서 배운 것과 받아들이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 4:4-9

빌립보서, 248절

형제들아,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하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돌보기 시작하였음이라. 너희는 전에도 나를 돌보았으나, 형편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궁핍해서가 아니니,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음이니라. 궁핍한 가운데서도 살 줄 알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살 줄 압니다. 모든 일에 익숙하여, 배부름도 굶주림도, 풍요도 궁핍도 다 견딜 줄 압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신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때,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났을 때, 여러분 외에는 어떤 교회도 구제나 환대를 베풀어 준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에서도 한두 번이나 내 필요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구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더 풍성해지는 열매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풍족합니다. 에파프로디토를 통해 여러분이 보내 주신 것을 받았으니, 그것은 향기로운 향과 같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 저를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히 황제의 궁궐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빌 4:10-23

21주 월요일

골로새서

골로새서, 249A절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에게, 곧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프라스로부터 배웠듯이, 그는 여러분을 위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가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적인 사랑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모든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 그분의 영광의 능력으로 모든 힘으로 굳건해지며, 모든 인내와 너그러움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간구합니다.

골 1:1-2, 7-11

21주 화요일

골로새서, 249B절

형제들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하늘에 예비된 것을 바라며,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 말씀 안에서 이미 들었던 바와 같이, 그 말씀이 온 세상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도 머물러 있으며 열매를 맺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하듯이, 그날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 안에서 듣고 알게 된 날부터 자라나고 있습니다.

골 1:3-6

제31주 토요일

골로새서, 250절

형제들아,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좌든, 주권든, 통치권이든, 권세든,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그분은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며,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 있습니다. 그분은 교

골로새서

회의 몸의 머리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첫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 1:12-18

28주.

8월 16일,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상 이전 기념일

골로새서, 25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의 머리이시며, 그분은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첫째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화해시키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한때는 악한 행실을 좇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었던 여러분도, 이제 그분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시려 하심이라. 단,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된 것이며, 나 바울이 그 사역자가 되었다.

골 1:18-23

21주 수요일

골로새서, 252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겪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부족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너희를 위하여 맡겨진 사역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곧 세상과 세대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이루기 위해,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전파하는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니, 이를 위해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수고하며 힘쓰고 있는데, 그 능력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24-29

21주 목요일

골로새서, 253절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이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지혜의 모든 풍성함과,

골로새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데 이르러 위로받게 하려 함입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가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의 번영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보며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분 안에서 행하며,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서, 배운 대로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며, 감사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번성하십시오.

골 2:1-7
21주 금요일

골로새서, 254절

형제들아, 누구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승이나 세상의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주의하라.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며, 너희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얻었느니라.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골 2:8-12
1월 1일, 주님의 할례

골로새서, 25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는 죄와 육체의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죽어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던 우리에게 대한 기록된 채무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없애셨으며, 그것을 가운데서 제거하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서 권세를 빼앗으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그분께서 친히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음식이나 음료, 또는 어떤 명절이나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장래의 것의 그림자일 뿐이며,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무도 제멋대로의 겸손을 가장하거나 천사들의 섬김을 내세우며, 보지 못한 것을 엿보려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무모하게 교만해지며, 온 몸이 관절과 인대로 연결되고 굳건히 묶여 하나님의 성장으로 자라나는 그 머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원소들에 대하여 죽었다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자들처럼 규례를 따르는가?

골 2:13-20
22주 월요일

골로새서, 256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원소들에 대하여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자들처럼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이 모든 것은 사용함에 따라 썩어 없어지는 것들)는 인간의 계명과 교훈에 따라 규례를 지키고 있느냐? 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건과 겸손한 척하는 태도, 육체의 고행, 그리고 육체의 만족을 다소 소홀히 하는 데서만 지혜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골 2:20-3:3

22주 화요일

골로새서, 257절

형제들아,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육신적인 행실을 죽이라: 음행, 부정, 정욕, 악한 욕망, 그리고 우상 숭배인 탐욕을 죽이라.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반역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너희도 한때는 그들 가운데 살 때 그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라: 분노, 격분, 악의, 악한 말, 너희 입의 더러운 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도,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키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모든 것과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뿐입니다.

골 3:4-11

29주.

성조들의 주간

골로새서, 258절

형제들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인 너희는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 서로 용납하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무엇보다도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모든 온전함의 총합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스리게 하시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은혜 가운데서 너희 마음속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골 3:12-16

제30주.

성인

골로새서, 259절

형제들아, 너희가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주 안에서 마땅한 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거칠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다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에게 아첨하듯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처럼 진심으로 하라. 주님께로부터 상으로 상속을 받을 줄을 알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께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하게 행하는 자는 그 불의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니, 주님께서는 편파적이지 않으십니다. 주인들아, 너희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음을 알고, 종들에게 마땅하고 공정한 대우를 해 주십시오.

골로새서 3:17-4:1

제22주 수요일

골로새서, 260A절

형제들아, 기도에 힘쓰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 주셔서, 내가 갇혀 있는 이유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전해야 할 대로 그것을 밝히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지혜롭게 처신하며, 시간을 잘 활용하라. 너희의 말씀이 항상 은혜로 가득하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하라. 나에 관한 모든 일은 티키코가 여러분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이자 주님 안에서 신실한 종이며 동역자로,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온니시모, 곧 여러분 가운데서 나온 우리의 신실하고 사랑하는 형제도 함께 갑니다. 그들이 이곳의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골 4:2-9

22주 목요일

골로새서, 260B절

형제들아, 세상의 사람들과는 지혜롭게 처신하며, 때를 잘 활용하십시오. 너희의 말은 언제나 은혜로워야 하며,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에 대해서는 티키코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전해 줄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자 충실한 종이며 동역자로,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온니시모, 곧 여러분 중 한 사

골로새서

람인 우리의 충실하고 사랑하는 형제도 함께 갑니다. 그들이 이곳의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사 루가와 디마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내 손, 곧 바울의 손으로 인사합니다. 나의 갇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골 4:5-9, 14, 18
10월 18일, 성 루카 사도

골로새서, 261절

형제 여러분,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그에 대해서는 ‘그가 여러분에게 오면 영접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스토라고 불리는 예수, 이 둘은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유일한 동역자들이며, 제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에파프라스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며 항상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이들을 향한 큰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디마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님파노, 그리고 그의 가정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이 편지가 여러분에게 읽히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히도록 조치하십시오. 또한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여러분이 직접 읽어 주십시오. 아르키포에게 전하십시오: 주 안에서 맡은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힘쓰십시오. 내 손, 곧 바울의 손으로 인사하노라. 나의 갇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골 4:10-18
22주 금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262절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는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단지 말뿐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많은 증거를 동반하였기 때문이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1-5

23주 월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263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로 인해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나갔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문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우리가 따로 무엇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대해,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우상에서 떠나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 과정을 말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분이시며, 우리를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10

23주 화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264절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너희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큰 용기를 내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는 우리의 가르침에 오류도 없고, 부정한 동기도 없으며, 간사함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기에 합당하게 여기신 대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

데살로니가 전서

려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여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아첨하는 말이나 이득을 쫓는 태도를 보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위엄 있게 나타날 수도 있었으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다정하게 대하듯이 여러분 가운데서 온유하게 지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8

23주 수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265절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도 증인이시니, 우리가 믿는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흠 없이 행했는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각자를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면하고 설득하며 간청했음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나니,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믿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9-14A

23주 목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266절 시작

형제들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동족들에게서, 주 예수님과 그분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낸 유대인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전하는 것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항상 자기들의 죄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끝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 동안 육신으로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으로는 함께 있었기에, 더욱 간절히 여러분의 얼굴을 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곧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이나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14-19

데살로니가 전서, 267절

형제들아,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는 아테네에 홀로 머물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이자 하나님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어,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위로 하여, 이 환난들 가운데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여러분 곁에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제로 일어난 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유혹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 상태를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여러분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여러분을 그리워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주었으니, 우리는 모든 슬픔과 궁핍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위로받았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20-3:8

24주 월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268절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의 얼굴을 뵈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기쁨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로 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서로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흠 없이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9-13

24주 화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269절

형제들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간청하고 간곡히 부탁하노니, 너희가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어떻게 행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지를 받아들여, 그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어떤 계명을 주었는지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의 거룩함이니, 음행을 멀리하고, 여러분 각

데살로니가 전서

자가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엄함으로 지키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며, 어떤 일에서도 형제에게 불법적으로나 이득을 탐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증언했던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결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는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편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 전역의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더욱 더 잘하고 부지런히 힘써서 조용히 지내며, 자기 일을 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걸사람들 앞에서 품위 있게 행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1-12

24주 수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270절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대해 너희가 무지한 채로 있게 하고 싶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나셨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우리가 죽은 자들보다 먼저 가지 않을 것임이라. 주님께서 친히 나팔 소리와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7

고인들을 기리며 (토요일)

데살로니가전서, 27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올 것임을 너희 스스로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이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파멸이 갑자기 닥칠 것이니,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과 같아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도둑처럼 여러분을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의 자녀도 아니고 어둠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잠을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낮의 자녀로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정신을 차리자.

데살로니가전서, 27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를 받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과 주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너희를 훈계하는 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수고를 생각하여 특히 사랑으로 그들을 공경하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형제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주님을 두고 간청하노니, 이 편지를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9-13; 24-28
24주 금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273절 초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선을 구하라.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온갖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온전히 보존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흠 없이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4-23
32주째 안식일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74A절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의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노니, 형제들아, 이는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 모두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너희를 자랑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보여주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증거하며, 너희가 그 왕국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노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은, 여러분을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슬픔을 갚아 주시고, 모욕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분의 권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불타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복을 행하실 때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위대하게 나타나실 때, 주님의 면전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부터 형벌과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의 증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1-10

25주 월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274B절

형제들아, 여러분은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일을 능력으로 이루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또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로 모이는 일에 관하여, 어떤 영이나 말이나 편지, 마치 우리가 보낸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여 서두르지 말아 주십시오. 마치 그리스도의 날이 이미 도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10b-2:2

25주 화요일

데살로니가 후서, 275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로 모이는 일에 관하여, 영이나 말이나 마치 우리가 보낸 것처럼 보이는 편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당황하여 서두르지 말기를 간청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날이 이미 도래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날은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인 죄의 사람이 드러나기 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이나 거룩한 것이라 불리는 것 위에 대적하며 스스로를 높이 들어, 마치 하나님인 양 행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을 너희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는 때가 되면 그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불법의 사람이 드러날 것이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숨결로 그를 죽이시고, 재림의 영광으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 온갖 능력과 거짓 표적과 기적을 행하며, 또한 멸망하는 자들을 향한 온갖 불의한 미혹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혹의 작용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사랑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1-12

25주 수요일

데살로니가후서, 276절

형제들아,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인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에 택하셨으며, 우리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말이나 편지를 통해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고 서 있으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복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행실에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처럼 널리 퍼지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무질서하고 간사한 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앞으로도 실천할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3-3:5

25주 목요일

데살로니가후서, 277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우리로부터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도 너희가 우리를 본받아야 할 바를 잘 알고 있으니,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공짜로 빵을 먹지도 않았으며,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밤낮으로 수고하며 일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럴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본받을 모범으로 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이렇게 유언했노라.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무질서하게 행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헛된 일만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노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자들을 훈계하고 권면하노니, 그들이 조용히 일하며 자기의 양식을 먹게 하라. 형제들아, 선을 행하는 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와 교제하지 말아 그를 부끄럽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훈계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모든 일에서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내 손, 곧 바울의 손으로 인사하노니, 이는 모든 편지에 있는 표식이라. 내가 이렇게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6-18

25주 금요일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 278절 시작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분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네가 에베소에 머물며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전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보다 다툼만 일으키는 끝없는 허황된 이야기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권면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권면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위선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에 있는 것이나, 이를 저버리고 어떤 이들은 헛된 말장난에 빠져 율법 교사가 되고자 하면서도, 자신이 말하는 내용도, 주장하는 바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1-7

26주 월요일

디모데전서, 279절

내 아들 디모데여, 우리는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압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말입니다.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 음란한 자와 더러운 자, 부모를 모독하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잡아먹는 자, (비방하는 자, 수간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맹세를 어기는 자, 그리고 건전한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자를 위한 것임을 알고, 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내게 맡겨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신실한 자로 인정하시고 사역에 부르셨으니, 나는 이전에 모독자요 박해자요 학대자였으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 그렇게 행하였기에 자비를 입었습니다.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풍성히 나타났습니다.

디모데전서 1:8-14

26주 화요일

디모데전서, 280A절

내 아들 디모데여, 내게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드리나니,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인정하시고 사역에 부르셨으니, 나는 이전에 모독자요 박해자요 학대자였으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 그렇게 행하였기에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게 풍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참되고, 모든 면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그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 모든 인내를 보여 주셔서,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유일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왕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1:12-17
10월 2일, 성 키프리아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 280B절

내 아들 디모데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참되고 모든 면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곧 첫 번째인 나를 통해 모든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세상의 왕이시며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유일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15-17
31주

디모데전서, 281절

내 아들 디모데여, 네게 관한 예언들에 따라, 네가 그 예언들에 따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용감한 전사로서 싸우도록 이 유언을 전하노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하였으니, 이메네오와 알렉산드로가 바로 그런 자들인데, 나는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지 않도록 배우게 하려고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모든 곳에서 분노와 의심 없이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또한 아내들도 단정한 차림으로, 수줍음과 정절을 지키며, 머리카락을 짧거나 금이나 진주, 값비싼 옷으로 꾸미지 말고, 경건함에 헌신하는 아내들에게 마땅한 선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모든 온유함으로 조용히 배우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아내가 가르치거나 남편을 지배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조용히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어졌기 때문이며, 아담이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유혹을 받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순결함 안에 머무르면, 자녀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1:18-20; 2:8-15
26주 수요일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 282절

내 아들 디모데여,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위하여, 간구와 감사를 드려 주기를 간청하노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순결함 가운데 평온하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 증인으로 세워져 전도자와 사도가 된 이유입니다. —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 이방인들을 믿음과 진리 안에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1-7

9월 1일, 새해

디모데전서, 283절

내 아들 디모데여, 이 말은 참되니, 누구든지 감독직을 원하면 선한 일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독은 흠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고, 순결하며, 품행이 바르고, 정직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가르치는 데 능하며, 술에 취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으며, 온유하고, 화평하며, 돈을 탐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정직함으로 순종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새로 회심한 자 중에서 뽑혀서는 안 되는데, 이는 교만해지지 않고 마귀와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는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며, 비난을 받거나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사들도 또한 정직해야 하며, 허가 두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술에 치우치지 말며, 탐욕스럽지 않아야 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먼저 시험을 거쳐야 하며, 흠이 없으면 비로소 사역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아내들도 정직해야 하며, 비방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한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는 잘 섬긴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있어 더 높은 지위와 큰 담대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3:1-13

26주 목요일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 284절

내 아들 티모테오여,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곧 네게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니,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 곧 진리의 기둥이자 터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경건의 위대한 비밀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서신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시고, 영광 중에 승천 하셨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악마의 교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양심이 타버린 위선적인 거짓말쟁이들의 행위로, 그들이 결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비난받을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3:14-4:5
주현절 전 토요일

디모데전서, 285A절

내 아들 디모데여,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것도 비난받을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이라. 이 말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면, 네가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랐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종이 될 것이니라. 그러나 무익하고 헛된 이야기들은 멀리하고, 경건함에 힘쓰라. 육체의 단련은 조금밖에 유익하지 않으나, 경건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여 현세와 장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 자신과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이에 전념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 자신과 너를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4-8, 16
26주 금요일

디모데전서, 285B절

내 아들 디모데여, 이 말씀은 참되며 모든 면에서 받아들일 만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모욕을 참는 것은, 모든 사람, 특히 신실한 자들의 구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파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네 젊은 나이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서 신자들에게 본이 되라. 내가 올 때까지 성경 읽기와 권면과 가르침에 힘쓰라. 네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은사는 예언을 통해 사제 안수를 받을 때 네게 주어진 것이다. 이 일에 힘쓰고, 이 일에 전념하여, 네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모범이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4:9-15
32주

디모데전서, 285B절

내 아들 디모데야, 늙은이를 책망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권면하며, 어린 이들은 형제를 대하듯, 늙은 여인들은 어머니를 대하듯, 젊은 여인들은 자매를 대하듯, 온전한 순결함으로 대하라. 과부들을 공경하라. 참된 과부들을 말이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은 먼저 자기 가족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과부는 홀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에 전념하지만, 쾌락을 좇는 자는 살아서 이미 죽은 자나 다름없다. 이 점을 그들에게 깊이 새겨, 흠이 없게 하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집안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로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쁘다. 과부는 적어도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선한 행실로 알려진 자여야 한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영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겨 주고, 궁핍한 자를 도우며, 모든 선한 일에 부지런했던 자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5:1-10

27주 월요일

디모데전서, 286절

내 아들 디모데야, 젊은 과부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재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전의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을 만하며, 게다가 한가한 나머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습관을 들였고, 단지 한가할 뿐만 아니라 수다스럽고 호기심이 많으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곤 한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원수에게 비방할 빌미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어떤 이들은 사탄을 따라 타락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신자나 신녀가 과부들을 돌보고 있다면, 그들을 부양하여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리하여 교회가 참된 과부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장로들에게는 마땅히 특별한 존경을 표해야 하며,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힘쓰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성경은 “타작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고 말하며, “수고하는 자는 그 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도 말하기 때문이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이들도 두려움을 갖게 하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네게 맹세하노니, 편견 없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편파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5:11-21

27주 화요일

디모데전서, 287절

내 아들 디모데야, 서둘러 누구에게도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연루되지 말라. 네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네 잦은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하여 곧바로 정죄로 이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선한 행실도 명백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숨길 수는 없다. 멩에를 메고 있는 종들은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으로 공경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에 대한 비방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믿는 자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이므로 그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그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이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기에 더욱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를 가르치고 권면하라. 다른 것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함에 관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교만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만 논쟁과 말다툼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기, 분쟁, 비방, 악의적인 의심들이 생겨난다. 진리에서 멀어진, 정신이 타락한 자들 사이의 헛된 논쟁은 경건함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 자들로부터 멀리하라. 경건하고 만족하는 것이 큰 이득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음이 분명하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그러나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가미, 그리고 사람들을 재앙과 파멸로 빠뜨리는 무모하고 해로운 욕망들에 빠지게 된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니, 이에 사로잡힌 자들 중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벗어나 스스로 많은 고통을 자초하였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5:22-6:11A

27주 수요일

디모데전서, 288절

내 아들 디모데여, 진리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에서 더욱 성장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가 부르심을 받은 영생을 붙잡으며,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라. 모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본티우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곧 그 때가 되면 복되시고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이신 분, 유일하게 불멸을 지니신 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며, 사람 중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영광과 권능이 있기를! 아멘.

디모데전서 6:11b-16

주님의 탄생 후 첫 번째 토요일

디모데전서, 289절

내 아들 디모데야,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권면하여, 스스로를 높이 여기지 말고, 헛된 부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그들이 선행을 베풀고, 선한 일로 부유해지며, 관대하고 친절하게 행동하여, 장래를 위한 좋은 기초가 되는 보물을 쌓아 영생을 얻게 하라. 오, 디모데여,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되, 무익한 헛소리와 거짓 지식의 논쟁을 멀리하라. 어떤 이들은 그 거짓 지식에 빠져 믿음에서 벗어나고 말았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6:17-21

27주 목요일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290A절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따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의 포로인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은혜에 따른 것이며, 세상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으니, 그분은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나타내셨으며, 나는 그 복음을 위해 이방인의 전도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알고 있으며, 그분이 그 날을 위해 나의 보증을 지켜 주실 수 있으심을 확신합니다. 네가 내게서 들은 건전한 교리의 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선한 보증을 지키십시오. 너도 알다시피, 아시아 사람 모두가 나를 떠났으니, 그중에는 피젤과 에르모겐도 있다. 오니시포로의 집안에게 주님께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의 갇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로마에 있을 때 큰 정성을 다해 나를 찾아내어 만났기 때문이다. 주님께에서 그날 그에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섬겼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1-2, 8-18

27주 금요일

디모데후서, 290B절

내 아들 디모데여, 조상 대대로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 온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고, 네 눈물을 떠올리며 너를 뵈기를 간절히 바라며, 네 할머니 로이데와 네 어머니 에브니케 안에 거했던 네 진실한 믿음을 기억함으로써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이 너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기시켜 주노니, 내 안수식을 통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의 포로인 나도 부끄러워하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3-9A
1월 22일, 성 사도 디모데

디모데후서, 291절

내 아들 디모데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의 포로인 나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세상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으니, 그분은 죽음을 무력화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나타내셨으며,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사도요 이방인의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알고 있으며, 그분이 그 날을 위해 나의 보증을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네가 내게서 들은 건전한 교리의 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선한 보증을 지키십시오. 너도 알다시피, 아시아 사람 모두가 나를 떠났으니, 그중에는 피겔과 에르모겐도 있다. 오니시포로의 집안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는 여러 번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나의 간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로마에 있을 때 큰 정성을 다해 나를 찾아내어 만났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날 그에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섬겼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8-18
11월 28일, 성 스테파노 노보.
성인 순교자들.
고백자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292절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라.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서 들은 것을, 다른 이들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으로서 고난을 견뎌라. 어떤 군인도 지휘관을 기쁘게 하려고 세속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만일 누가 수고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수고한다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는 가장 먼저 열매를 맛보아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을 깨달아라. 주님께서 네게 모든 일에 분별력을 주시기를 바란다. 다윗의 후손이시며, 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복음 때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문에 악당처럼 쇠사슬에 묶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쇠사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내니,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1-10
순교자들에게

디모데후서, 293절

내 아들 디모데여, 이 말씀은 참되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이 점을 상기시키며, 주님 앞에서 맹세하노니,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듣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인 말다툼에 끼어들지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 흠잡을 데 없는 일꾼, 진리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그리고 무익한 헛소리는 멀리하라. 그들은 불의에 더욱 깊이 빠져들 것이며,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네오와 필리토가 바로 그런 자들인데, 그들은 부활이 이미 있었다고 말하며 진리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으며, 그 위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인장이 찍혀 있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불의를 멀리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다.

디모데후서 2:11-19
33주째 안식일

디모데후서, 294절

내 아들 디모데야,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으며, 어떤 것은 귀한 용도로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한 용도로 쓰인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깨끗한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유익하게 쓰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젊은이의 정욕을 피하고, 진리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지키라. 어리석고 무지한 논쟁은 피하라. 그것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라.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며, 가르침을 잘 주고,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하며, 온유함으로 반대하는 자들을 훈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기 뜻대로 그들을 사로잡은 마귀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20-26
28주 월요일

디모데후서, 295절

내 아들 디모데여, 마지막 날에는 어려운 때가 올 것임을 알라.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거만하며, 비방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건하고, 친절하지 않으며, 화해할 줄 모르고, 비방하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 잔인한 자, 선을 사랑하지 않는 자, 배신자, 뻔뻔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자, 경건의 겉모습은 있으나 그 힘은 저버린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자들로부터 멀리하라. 이들 중에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죄에 빠져 있고 온갖 정욕에 이끌리는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늘 배우기만 할 뿐 진리를 깨닫는 데는 결코 이르지 못한다. 야니와 야므리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 자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마음이 타락하고 믿음에 무지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일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1-9

34주째 안식일

디모데후서, 296절

내 아들 디모데여, 너는 가르침과 생활 방식과 성품과 믿음과 너그러움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아와 루스트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에 있어서 나를 본받았으니, 내가 그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셨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악을 일삼으며, 남을 미혹하고 스스로도 미혹당할 것이다. 너는 네가 배운 것과 네게 맡겨진 것을 굳게 지키며, 누가 너를 가르쳤는지를 기억하라. 또한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지혜를 줄 수 있다.

디모데후서 3:10-15

33주,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297절

내 아들 디모데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으며 의로움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을 두고 너에게 간곡히 부탁하노니,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전하며, 책망하고, 금하고, 모든 인내와 교훈으로 권면하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귀에 달

곰한 말을 하는 교사들을 스스로 택할 것이며,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허황된 이야기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16-4:4

28주 화요일

디모데후서, 298절

내 아들 디모데여, 모든 일에 깨어 있으라. 고난을 견디고, 전도자의 사역을 다하며, 네 사명을 다하라. 이는 내가 이미 제물이 되어 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도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5-8

주현절 전 주간

디모데후서, 299절

내 아들 디모데야, 가능한 한 빨리 내게 오도록 힘쓰라. 디마스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고, 크리스켄트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으니, 나에게는 루가만 남아 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티키카는 에베소로 보냈다. 네가 갈 때, 내가 트로아데의 카르파에게 맡겨 둔 펠론과 책들, 특히 가족으로 묶인 책들을 가져오너라. 구리 세공인 알렉산더는 내게 많은 해를 끼쳤다. 주님께서 그의 행실대로 갚아 주시기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는 우리의 말을 심히 거역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론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었고, 다 나를 떠났느니라. 그들에게 죄가 되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굳건하게 하사, 나를 통해 복음이 확립되고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셨으며,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하늘 나라를 위해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아멘. 프리스킬라와 아퀼라, 그리고 오니시포로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트로피모는 병든 채로 밀레토스에 남겨 두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도록 노력하십시오. 에불과 푸드와 린과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영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아멘.

디모데후서 4:9-22

28주 수요일

디도서

디도서, 300A절

하나님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진리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말씀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때가 이르러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 말씀을 드러내신 바, – 같은 믿음을 가진 참된 아들 티토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 말을 전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경시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상급자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베풀도록 상기시켜라. 우리도 한때는 무지하고, 불순종하며, 길을 잃고, 정욕과 온갖 쾌락의 노예가 되어, 악의와 시기심 속에 살며, 추악하고 서로 미워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르테마스나 티키코를 네게 보내면, 서둘러 니코폴리스에 있는 내게로 오라. 내가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율법학자 시나스와 아폴로를 잘 돌보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보내주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아멘.

디도서 1:1-4; 2:15-3:3; 3:12-13, 15
8월 25일, 성 티토 사도

디도서, 300B절

내 아들 티토여,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 둔 것은, 네가 미완성된 일을 마무리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모든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곧, 흠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들이 신실하여 방탕함이나 불순종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여야 한다. 주님의 집안 일을 맡은 자로서 감독은 흠이 없어야 하며, 거만하지 않고, 성급하지 않으며, 술에 취하지 않고, 다툼을 좋아하지 않으며, 돈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을 사랑하고, 절제하며, 의롭고, 경건하며, 절제하며, 교리에 부합하는 참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여야 한다. 그래야 그가 건전한 교리로 가르치고, 반대하는 자들을 책망할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들과 헛소리하는 자들,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할례를 받은 자들 중에서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들은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며 온 가정을 타락시키고 있다. 그들 중 한 시인이 말하기를, “크리타인들은 항상 거짓말

쟁이요, 사나운 짐승들이며, 게으른 자들이다”라고 했다. 이 증언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책망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서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유대인 우화와 규정을 따르지 않게 하십시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마음과 양심마저 더럽혀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실로는 부인하며, 추악하고 불순종하며, 어떤 선한 일도 할 능력이 없다. 너는 건전한 가르침에 합당한 말을 하라.

디도서 1:5-2:1
28주 목요일

디도서, 301절

내 아들 티토야,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 더럽혀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실로는 부인하며, 가증스럽고 불순종하며, 어떤 선한 일도 할 능력이 없다. 너는 건전한 가르침에 합당한 말을 하라. 장로들은 깨어 있고, 품위 있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굳건해야 한다. 노파들도 성도답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비방하지 않으며, 술에 빠지지 말고, 선을 가르쳐야 한다; 젊은 여성들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절제하고, 순결하며, 가정을 잘 돌보고, 선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청년들에게도 절제를 지키라고 권면하라. 모든 일에서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고, 가르침에 있어서는 순결함과 품위, 흠 없음, 건전한 말, 흠잡을 데 없는 말을 보여 주어, 대적자가 우리에게 대해 나쁜 말을 할 수 없게 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라.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거역하지 말고, 흠치지 말고, 온전한 충성을 다하도록 권면하여,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도록 하라.

디도서 1:15-2:10
28주 금요일

디도서, 302A절

내 아들 티토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이는 우리가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절제하며, 의롭게, 경건하게 이 세대를 살아가며, 복된 소망과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특별한 백성을 자신에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때, 그분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과 갱신의 세례로,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아 소망에 따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02B절

내 아들 디도야, 이 말은 참되니, 네가 이를 확증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문제, 율법에 관한 다툼과 분쟁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라. 이단자는 한 번,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는 타락하여 죄를 짓고 스스로 정죄받은 자임을 알라. 내가 아르테모스나 티키코를 네게 보내면, 서둘러 니코폴리스에 있는 내게로 오라. 내가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율법학자 지노와 아폴로를,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잘 보내주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 형제들도 선한 일을 실천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헛되지 않게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너에게 문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서두 302B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인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빌레몬과 사랑하는 (자매) 아프피아, 그리고 우리 동지 아키폰, 그리고 네 집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에게 품고 있는 네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듣고, 나의 기도 속에서 항상 너를 기억하노니, 네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닫는 데에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네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으니, 형제여, 네 덕분에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대함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것을 명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차라리 간청하노니, 바로 나, 늙은이 바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인 내가, 내 갇힘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니시모에 대하여 네게 부탁하노니, 그는 한때는 네게 합당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너는 내 마음처럼 그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 네 대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갇힌 나를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네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이는 네 선한 행위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되게 하려 함이었다. 아마도 그가 잠시 떠난 것은, 네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보다 더 높은, 특히 나에게, 그리고 너에게는 더욱더 사랑하는 형제로서, 육신으로도 주님 안에서도 말이다. 그러니 네가 나와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를 나처럼 받아들여라. 만일 그가 너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을 졌다면, 그 책임을 내게 돌리라.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썼노라. 내가 갇으리라. 네가 이미 나에게 빚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노라. 그러니 형제여, 주 안에서 네게서 유익을 얻게 해 주라. 주 안에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라. 네가 내 말을 들을 것을 믿으며 이 편지를 썼으니,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 줄 것을 알고 있노라. 또한 나를 위해 숙소도 마련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에바프라스와, 마가, 아리스다르코, 디마스, 누가, 나의 동역자들이 너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레몬서 1:1-25

11월 22일, 성 필리몬 사도

히브리서

히브리서, 303절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신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말씀으로 만물의 힘을 지탱하시고, 친히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 높으신 곳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분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며, 그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름을 상속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제 너를 낳았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또 “내가 그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한 장자를 우주에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는 당신의 천사들로 영을 지으시며, 당신의 종들로 타오르는 불을 만드시나이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보좌는 영원토록 서리니, 주의 왕국의 지팡이는 의의 지팡이로다. 주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주님의 동역자들보다 더 풍성하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지겠으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며, 모든 것이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주께서 옷을 걷어 올리시니 그것들은 변하겠으나, 주께서는 변치 않으시며 주의 해는 끝이 없으시니이다.”

히브리서 1:1-12

대순교 기간 첫째 주 토요일.

그리스도 탄생 전야

히브리서, 304절

주님, 태초에 주님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라지겠지만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모든 것이 옷처럼 낡아지고, 주님께서 옷을 걷어 올리시듯 그것들은 변하겠지만, 주님은 변함없으시며 주님의 세월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언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밟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모두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하지 않도록 들은 말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확고했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의로운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히브리서

주님께서 처음에 전파하시고, 그분에게서 들은 자들을 통해 우리 안에 확고히 세워진 이토록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0-2:3

대사순절 2주

히브리서, 305절

형제들아, 천사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확고했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다면, 처음에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들은 자들을 통해 우리 안에 확고히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증언으로 표적과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과 그분의 뜻에 따라 명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확증된 이토록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않으셨으니, 오히려 어떤 이가 어딘가에서 증언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그를 관을 씌우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 때,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죽음을 겪으신 대가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천사들 앞에서 조금 낮추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있고 그분에게서 나온 분이시며,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은 고난을 통해 그들의 구원의 지도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2-10

11월 8일, 대천사들의 날

히브리서, 306절

형제들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 모두 한 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리라.” 또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자녀들은 육과 피를 지니고 있으니,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무력화시키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평생 노예 생활을 해 온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으니, 이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

히브리서

이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며 고난을 겪으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으시다.

히브리서 2:11-18

12월 26일, 지성모 대축일.

3월 25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

성금요일 6시.

작은 물 축복식

히브리서, 307절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소명에 참여하신 이들이여, 우리의 고백의 사자이시며 대제사장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십시오. 그분은 모세가 그분의 온 집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세우신 분께 충실하십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니, 이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 때문이며, 모든 집은 누군가에 의해 지어지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1-4

성전 봉헌을 위하여

히브리서, 308절

형제들아, 모세는 그분을 세우신 분의 온 집안에서, 전할 바를 증거하기 위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분의 집안에서 아들로 계십니다. 그분의 집은 바로 우리입니다. 단, 우리가 사랑하는 그 담대함과 소망을 끝까지 굳게 지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시험하며, 40년 동안 나의 행적을 보았던 그 날, 불평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를 향하여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릇 행하며,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 분노 중에 맹세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분이 40년 동안 누구를 향하여 노하셨는가? 죄를 지은 자들, 곧 광야에서 뼈가 흩어진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맹세하신 대상은, 불순종하는 자들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 3:5-11; 17-19

29주 월요일

히브리서, 309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에게도 악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도 죄에 현혹되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뭍을 받은 자들이 되었

으니, 다만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불평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동안, 우리가 시작한 삶을 끝까지 굳건히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들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은 불평했으나,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나온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3:12-16
사순절 제2주 토요일

히브리서, 310절

형제들아,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 너희 중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그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해졌으나, 들은 자들의 믿음으로 녹아들지 않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여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비록 그분의 일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일곱째 날에 대해 이렇게 기록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아직 그곳에 들어갈 여지가 남아 있고, 이전에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오늘”이라는 특정 날을 정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에 대해 말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안식일이 남아 있다. 누구든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서 쉬신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일에서 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자. 그래야 그와 같은 본을 따라 불순종에 빠지는 자가 없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으며, 양날이 날카로운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심판한다. 그분께 숨겨진 피조물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고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4:1-13
29주 화요일

히브리서, 311A절

형제들아, 하늘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의 고백을 굳게 지키자. 이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함께 느끼지 못하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자비를 얻고 때맞춰 도움을 받을 은혜를 얻도록 합시다.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택함을 받아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졌으니, 죄를 위한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무지하고 길을 잃은 자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자신도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위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스스로 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14-5:6

사순절 3주

히브리서, 311B절

형제들아, 아무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영광을 취하느니라. 아론과 같이 말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대제사장의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너는 내 아들, 내가 이제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을 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죽음에서 그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그 경건함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아들이셨으나,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고, 온전해지신 후에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지명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4-10

성인들에게

히브리서, 312절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마땅하겠으나, 너희가 듣는 데 미숙해졌으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희는 이미 선생이 되어야 했으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배워야 하며, 너희에게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합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젖먹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익숙해진 완전한 자들에게 어울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초보적인 단계는 뒤로 하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서둘러 나아가자.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을 다시 기초로 삼지 말자.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참여자가 되

히브리서

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래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다시 떨어져 나가서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금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없이 내리는 비를 마시고, 경작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곡식을 맺는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나,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땅은 쓸모없으며 저주에 가까우니, 그 끝은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11-6:8

29주 수요일

히브리서, 313절

형제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더 나은 상태에 있고 구원을 굳게 지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보여준 사랑의 수고와 일을 잊으실 만큼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얻기 위해 끝까지 같은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9-12

사순절 4주 토요일

히브리서, 314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더 높은 분을 두고 맹세하실 수 없었으므로,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시며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얻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이를 두고 맹세하며, 맹세는 그 맹세를 증명함으로써 모든 논쟁을 종결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함없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 주시고자, 맹세를 매개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함없는 사실 안에서, 앞으로 뻗어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 하는 우리에게 확고한 위로를 주시려 하셨으니, 그 소망은 영혼에게 마치 안전하고 견고한 닻과 같아서, 휘장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 우리를 위해 선구자로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곳입니다.

히브리서 6:13-20

사순절 4주.

선지자들

히브리서, 315절

형제들아, 멜기세덱은 살림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축복해 준 자로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십일조를 그에게 바친 바로 그 사람이다. 첫째로,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의의 왕’이며, 또한 ‘살림의 왕’, 즉 ‘평화의 왕’이시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히브리서

끝도 없으시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시어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보십시오,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의 가장 좋은 전리품 중에서 십일조를 바쳤던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 즉 자신의 형제들에게서 십일조를 거두라는 계명을 받았으나,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족보에서 나지 않은 이분은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를 받으시고, 약속을 받은 자를 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1-6

29주 목요일

히브리서, 316절

형제들아, 이의를 제기할 여지 없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여기서는 죽을 운명의 사람들이 십일조를 거두지만, 저기서는 자신이 살아 있음을 증거하는 분이 십일조를 받으신다. 말하자면, 십일조를 받는 레위 자신도 아브라함을 통해 십일조를 드렸으니, 멜기세덱이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아직 아버지의 태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완전함이 레위 제사직을 통해 이루어진다면—그 제사직에는 백성의 율법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니—어찌하여 또 다른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일어나,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불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사직이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셨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빛나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모세는 그 지파에 대해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덱의 형상을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시는데, 그분은 육신의 계명에 따른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끊이지 않는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하시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고 증언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7-17

2월 2일, 주님의 성전 입성

히브리서, 317절

형제들아, 이전에 있던 계명이 폐지되는 것은 그 계명이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이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것이 맹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이분은 맹세를 통해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해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게다가 그 제사장들은 많았으니, 죽음이 한 사람만 남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쇠하지 않는 제사장직을 가지셨고, 그러

므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

히브리서 7:18-25

29주 금요일

히브리서, 318A절

형제들아, 우리 대제사장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악에 물들지 않으시며, 흠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늘 위로 높이 올리우신 분이시니, 그분은 옛 대제사장들처럼 매일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그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이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이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 이후에 주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 성소와 참 장막의 섬기는 이이신 그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7:26-8:2

성인들에게.

순교자들에게.

고백자들에게

히브리서, 서두 318B

형제들아,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세워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도 드릴 것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세가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 들은 말씀대로, 하늘의 형상과 그림자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산에서 네게 보여준 형상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 그러나 이 대제사장은 더 뛰어난 사역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이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그 언약은 더 나은 약속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8:3-6

고백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319절

형제들아, 만일 첫 언약에 흠이 없었다면, 다른 언약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을 책망하며 말하기를,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기 위해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었을 때 그들과 맺었던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버렸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

히브리서

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ی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는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 것”이라고 함은 첫 번째 것이 낡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니, 낡고 늙어가는 것은 소멸에 가까워진 것이다.

히브리서 8:7-13

30주 월요일

히브리서, 320절

형제들아, 첫 번째 언약에는 예배와 지상의 성소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첫 번째 성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으며, 이를 ‘성소’라고 불렀다.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금 향로와 사방이 금으로 도금된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안에는 만나가 담긴 금 그릇과 꽃이 핀 아론의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었고, 그 위에는 정결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첫 번째 성막에는 제사장이 언제나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성막에는 일 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이는 자신과 백성의 무지한 죄를 위해 바치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히브리서 9:1-7

11월 21일, 성모 마리아의 성전 입성 축일

히브리서, 321A절

형제들아, 성령께서는 옛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음을 보여 주십니다. 그 성막은 현 시대의 모형으로, 그곳에서는 제물을 바치지만, 바치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들이 드러지며, 음식과 음료, 그리고 육체에 속한 각종 씻음과 의식이 정해진 것은 오직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첫 번째 언약에서 저지른 죄악을 속량하기 위해 치르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유업을 받도록 부름 받은 자들이 약속받은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뒤따라야 하니, 유언은 죽은 자에게서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라.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는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온 백성 앞에서 율법의 모든 계명을 선포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붉은 양털, 그리고 송뭍치와 함께 가져다가 책 자체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이다.” 또한 성막과 모든 예배 용품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하게 되며, 피를 흘리지 않

히브리서

고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형은 이러한 수단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했고, 하늘 그 자체는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9:8-10; 15-23

30주 화요일

히브리서, 321B절

형제들아, 장차 올 복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즉 그런 구조가 아닌 성막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가 뿌려짐으로써 더럽혀진 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육체가 깨끗하게 된다면,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11-14

사순절 5주

히브리서, 322절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성소의 모형으로 지어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시니, 이는 대제사장이 매년 남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거듭거듭 드리시기 위함이 아니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창세 때부터 거듭거듭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끝 무렵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희생 제물로 죄를 없애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후 심판이 따르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단 한 번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후,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24-28

사순절 5번째 안식일

히브리서, 323절

형제들아, 율법은 장차 올 복의 그림자일 뿐 실체가 아니므로, 매년 끊임없이 드러지는 똑같은 제사로는 결코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쳤을 것이니,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단 한 번 정결함을 받았더라면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상기시켜 주는데, 이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몸을 예비하셨

히브리서

나이다.” 번제와 속죄 제물은 주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니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오나이다. 책의 처음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앞서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물도, 예물도, 번제도, 속죄 제물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 뒤, 이어서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러 오나이다, 하나님이시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첫 번째 것을 폐지하심으로써 두 번째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매일 제사 드리는 일을 하며, 결코 죄를 없애 줄 수 없는 똑같은 제물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후,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 후로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보라, 그 날들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니,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이 있는 곳에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1-18

30주 수요일

히브리서, 324절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이 휘장, 곧 그분의 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열어 주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으니,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뿌림으로 악한 양심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은 뒤,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자. 어떤 사람들의 관습처럼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서로 권면합시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고, 오직 두려운 심판의 기다림과 대적들을 삼키려 하는 불의 맹렬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가 두세 증인 앞에서 자비 없이 사형에 처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얼마나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복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0:19-31

성금요일, 9시

히브리서, 325절

형제들아, 너희가 빛을 받고 큰 고난의 시련을 견뎌냈던 옛날을 기억하라. 때로는 모욕과 슬픔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때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었으니, 여러분은 나의 간함을 함께 아파해 주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니, 하늘에 더 좋고 썩지 않는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상을 받을 그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받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32-38A
대사순절 3번째 안식일.
성순교자들에게

히브리서, 326절

형제들아, 큰 상을 받을 너희의 소망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약속받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나, 누구든지 흔들린다면 내 영혼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멸망으로 향하는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한 믿음 안에 서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이 믿음으로 증거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알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생겨났음을 압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가 없어졌습니다.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받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 믿음으로 그는 온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0:35-11:7
30주 목요일

히브리서, 327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이 상속받게 될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불임이었음에도) 씨를 받을 힘을

얻어, 나이를 먹은 뒤에 아이를 낳았으니,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 사람, 그것도 이미 죽은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믿음 가운데서 죽었으나, 다만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자신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조국을 찾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마음속으로 떠난 그 조국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시간이 있었을 것이나, 그들은 더 나은 것, 곧 하늘의 것을 갈망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위해 성을 예비해 두셨다.

히브리서 11:8; 11-16

30주 금요일

히브리서, 328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마치 타국 땅처럼 여기며, 그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기초가 있는 성읍을 기다렸는데, 그 성읍의 설계자이자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쳤으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된 독생자를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표징으로 삼아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를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지팡이 끝을 짚고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유해를 어떻게 처리할지 유언으로 남겼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동안 부모에게 숨겨졌으니, 그들이 그 아이가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무엇을 말하리요?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다윗,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았으며,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힘을 끄고, 칼날을 피하고, 쇠약함에서 힘을 얻으며, 전쟁에서 강해져 이방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아내들은 죽은 남편들을 부활한 자로 맞이했고,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해방을 거절하고 고문을 당했으며, 다른 이들은 모욕과 구타, 쇠사슬과 감옥을 겪었고, 돌에 맞아 죽거나 톱으로 잘리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칼에 죽임을 당했으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 옷을 입고 방랑하며 궁핍과 슬픔,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이들은 광야와 산, 땅의 동굴과 협곡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증언한 이 모든 이들은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이 우리 없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1:9-10; 17-23; 32-40

히브리서, 329A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쳤으며, 약속을 받았기에 ‘이삭을 통해 네 자손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된 독생자를 바쳤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예표로 삼아 이삭을 되찾았다.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를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 각각을 축복하고 자신의 지팡이 끝을 쥐고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유해를 어떻게 처리할지 유언으로 남겼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동안 부모에게 숨겨졌으니, 그들이 그 아이가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마치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굳건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 장자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건듯이 건넜고, 이를 흉내 내려던 이집트인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은 7일 동안 돌고 난 후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화롭게 맞아들여(그리고 다른 길로 안내하여)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17-23; 27-31

31주 월요일

히브리서, 329B절

형제들아,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일시적인 죄악의 쾌락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부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또 무엇을 말하리요?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다윗,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았으며,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힘을 끄고, 칼날을 피하고, 쇠약함에서 힘을 얻으며, 전쟁에서 강해졌고, 이방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아내들은 죽은 남편들을 부활한 자로 맞이했고,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해방을 거절하고 고문을 당했으며, 다른 이들은 모욕과 구타, 족쇄와 감옥을 겪었고, 돌에 맞아 죽거나 톱으로 잘리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칼에 죽임을 당했으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 옷을 입고 방랑하며 궁핍과 슬픔,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온 세상이 감당할 자격이 없었던 이들은 광야와 산, 땅의 동굴과 협곡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증언한 이 모든 이들은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이 우리 없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히브리서

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이러한 증인들의 구름을 두르고,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며,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24-26; 32-12:2A

사순절 첫째 주

히브리서, 330절

형제들아,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았으며,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힘을 꺾고, 칼날을 피하며, 쇠약함에서 힘을 얻고, 전쟁에서 굳건히 서서, 이방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내들은 죽은 남편들이 부활한 것을 맞이하였고,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해방을 거절하고 고문을 당했으며, 다른 이들은 모욕과 구타는 물론 쇠사슬과 감옥을 겪었고, 돌에 맞아 죽거나 톱으로 잘리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칼에 죽임을 당했으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 옷을 입고 방랑하며 궁핍과 슬픔,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온 세상이 감당할 자격이 없었던 이들은 광야와 산, 땅의 동굴과 협곡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증언한 이 모든 이들은 약속받은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이 우리 없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이러한 증인들의 구름을 두르고,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며,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33-12:2A

오순절 후 첫 주, 모든 성인의 날.

순교자들에게

히브리서, 331A절

형제들아, 우리 주위에 이러한 증인들의 구름이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완주하며,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자신 앞에 놓인 기쁨 대신 십자가를 참아 내시고, 수치를 무시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서 그와 같은 모욕을 당하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영혼이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죄와 싸우며 피 흘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으면서도,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위로, 곧 ‘내 아들이, 주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받아들이신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처럼 대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합법적인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일 뿐이다. 게다가 우리

히브리서

가 육신의 부모들에게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을 두려워했다면, 살기 위해서 영의 아버지께 훨씬 더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는 유익을 위해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1-10

3월 9일, 세바스티아의 성 순교자들

히브리서, 331B절

형제들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참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처럼 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합법적인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일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육신의 부모들에게 징계를 받을 때 그들을 두려워했다면, 살기 위해서 영의 아버지께 훨씬 더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는 유익을 위해 징계하십니다. 모든 징계는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은 후에는 의의 평안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처진 손을 굳게 잡고, 약해진 무릎을 곳곳이 세우며, 발걸음을 굳게 내딛으십시오. 그래야 절뚝거리는 발이 비틀어지지 않고, 오히려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도 말씀하시는 분을 외면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징벌을 피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분의 음성은 당시 땅을 흔들었고, 지금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으니, “다시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 곧 창조된 것이 변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게 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6-13; 25-27

지진이 일어날 때

히브리서, 332절

형제들아,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거룩함을 힘쓰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뵈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쓰라린 뿌리가 싹트어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에사우처럼 한 끼 식사를 위해 장자권을 포기한 음행자나 불경건한 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후 그는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했으나 거절당했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져질 수 있고 불타는 산이나, 어둠과 암흑과 폭풍우, 나팔 소리와 말씀의 음성에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이상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어지지 않기를 간청했으니, 그들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계명을 건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화살에 맞으

히브리서

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 환상은 너무나 끔찍하여 모세조차 “나는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혔노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들, 기쁨으로 모인 성회와 하늘에 기록된 만이들의 교회, 모든 이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완전함에 이른 의인들의 영혼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아벨의 피보다 더 큰 말을 하는 뿌려진 피에게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2:14-24

화재 당시

히브리서, 333A절

형제들아, 보라, 너희도 말씀하시는 분을 외면하지 말라. 땅에서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도 형벌을 피하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어찌 피하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은 당시 땅을 흔들었고, 지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라.” 형제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 많은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음을 아십시오. 그가 곧 오면, 저도 그와 함께 여러분을 뵈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이탈리아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히브리서 12:25-26; 13:22-25

31주 화요일

히브리서, 333B절

형제들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로서, 경외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지키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사이에 형제 사랑을 지키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한 적이 있다. 갇힌 자들을 기억하라. 마치 너희도 그들과 함께 갇힌 것처럼,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마치 너희 자신도 육신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의 결혼은 정결해야 하고, 침상은 순결해야 한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탐욕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태도를 가져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너희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생을 마친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2:28-13:8

사순절 6주 토요일

히브리서

히브리서, 334절

형제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너희의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생을 마감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각종 이단적인 가르침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은혜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좋으니, 그것에 몰두하는 자들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 음식들로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섬기는 자들이 먹을 권리가 없는 제단이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져가는 동물의 피가 성막 밖에서 불태워지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좇아 진영 밖으로 나가, 그분이 당하신 모욕을 짊어지자. 우리는 이곳에 영구한 성읍이 없고, 오직 장차 올 성읍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곧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또한 자선과 나눔을 잊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3:7-16

7월 16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 여섯 차례의 세계 공의회 성부들에게.

순교자 성인들

히브리서, 335절

형제들아, 너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장차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너희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으니, 그들이 탄식하며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라. 탄식하며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므로, 양심이 맑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제가 더 빨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안에서 그분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시며, 모든 선한 일에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아멘.

히브리서 13:17-21

성인들에게

목차로.

사도서 낭독 순서 주간의 모든 주일

부활절 주간

프로키멘, 8음조

이는 주님께서 지으신 날이니, /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절: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선하시니,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시편 117:24, 1

시작 1A.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주님, 주께서 일어나시어 시온을 불쌍히 여기시나이다.

구절: 주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셨도다.

시편 101:14A, 20B

부활 후 첫 주 월요일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제2장.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88:6A, 8A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부활 후 첫 주 화요일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구절: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제4성가.

할렐루야, 8음조

구절: 일어나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성막이 함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8, 11A

부활 후 일곱째 주 수요일

프로키멘, 6음조

주님의 이름을 모든 세대와 세대에 걸쳐 기억하게 하리이다.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시편 44:18A, 11A

제5장.

할렐루야, 2음조

구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구절: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을 것이니라. 루카 1:46-48

부활 후 넷째 주 목요일

프로키멘, 제3음조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 우리 왕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구절: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치고,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시편 46:7, 2

시작 6.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할렐루야, 4음조

구절: 굳건히 서서 번영하며, 진리와 온유와 의를 위하여 다스리소서.

성구: 주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시편 44:5A, 8A

부활절 후 첫 주 금요일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그리고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루카 1:46-47

제7장 및 성모송, 제240장.

할렐루야, 제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절: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절: 들으소서, 딸이여, 보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88:6A, 8A; 44:11A

부활 후 첫 주 토요일

프로키멘, 3음조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구절: 주님은 내 생명의 보호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6:1

제8장.

할렐루야, 5음조

절: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시고, 위엄을 입으셨도다.

구절: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굳게 세우셨으니,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92:1A, 1B

부활절 후 2주, 도마 주일

프로키멘, 제3음조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크시며, /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도다.

성구: 주님을 찬양하라. 시를 부르는 것은 복된 일이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달콤하기를 바란다.

시편 146:5, 1

시작 14.

할렐루야, 8음조

구절: 오라,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 환호하자.

구절: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시며, 온 땅에 걸쳐 위대하신 왕이시니라.

시편 94:1, 3

월요일, 제9주.

목요일, 제12주.

화요일, 10번째 주간.

금요일, 13번째 시작.

수요일 11일.

토요일, 15일 시작.

부활절 후 3주, 향유 여인들에 관하여

프로키멘, 6음조

주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 그리고 당신의 유산을 축복하소서.

절: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묵과하지 마소서.

시편 27:9, 1A

제16장.

할렐루야, 8음조

구절: 주님, 주께서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구절: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었나이다.

시편 84:2, 11

월요일, 제17주.

목요일, 20일째.

화요일, 18일.

금요일, 21A일.

수요일, 19일 시작.

토요일, 22일 시작.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부활절 후 4주째, ‘이완된 자’에 대하여

프로키멘, 제1음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소서.

절: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라. 의인에게 합당한 것은 찬양이니라.

시편 32:22, 1

제23장.

할렐루야, 5음조

구절: 주님,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리이다.

구절: 주께서 말씀하셨나니, “자비는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리라.”

시편 88:2A, 3A

월요일, 제24주.

화요일, 25주.

중간 주간 수요일

프로키멘, 3음조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도 크시며, /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도다.

절: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을 부르는 것이 좋으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달콤하기를.

시편 146:5, 1

시작 34.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태초부터 얻으신 주의 무리를 기억하소서.

구절: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시편 73:2A, 12

목요일, 제26주.

금요일, 27일째.

토요일, 29일째.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부활절 후 5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주일

프로키멘, 제3음조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 우리 왕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절: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치고,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시편 46:7, 2

제28장.

할렐루야, 4음조

구절: 굳건히 서서 번영하며, 진리와 온유와 의를 위하여 다스리소서.

성구: 주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시편 44:5A, 8A

월요일, 제30주 첫날.

목요일, 제35주.

화요일, 31일째.

금요일, 36주.

수요일, 32일째.

토요일, 37일째.

부활절 후 6주, 눈먼 자에 관하여

프로키멘, 8음조

기도하고 /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드리십시오.

구절: 하나님은 유대에서 알려지시며,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이름은 위대하시도다.

시편 75:12,

서문 38.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절: 주의 말씀대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시편 118:132A, 133A

월요일, 제39장.

화요일, 40B 주간.

수요일, 부활절 후 첫 주일

프로키멘과 할렐루야는 부활절과 동일하다.

제41장.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목요일, 주님의 승천

프로키멘, 7음조

하늘로 올라가소서, 하느님, /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리이다.

절: 나의 마음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느님, 나의 마음이 준비되었나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시편 56:12, 8

시작 1B.

할렐루야, 2음조

구절: 환호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나타나셨도다.

구절: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치며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환호하라.

시편 46:6, 2

42번째 주 금요일.

토요일, 43주.

**부활절 후 7주일,
성부들과 제1차 세계 공의회 주일**

프로키멘, 4음조, 성부들의 찬가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여, 찬미받으시며, / 주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양받고 영광받으시나이다.

절: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의로우시니이다.

단 3:26, 27A

시작 44.

할렐루야, 1음조

구절: 신들의 신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땅을 부르셨나이다.

구절: 그분과 제물에 관한 언약을 맺은 그분의 성도들을 그분께 모이게 하소서.

시편 49:1, 5

월요일, 제45주.

목요일, 48번째 주간.

화요일, 46번째 시작.

금요일, 50A.

수요일, 47일째.

토요일

전체 예배는 고인 추모 예배.

프로키멘, 6음조

그들의 영혼이 / 복된 곳에 거하게 하소서.

절: 주님,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리오니, 나의 하나님이지여.

참조: 시편 24:13A, 1-2A

서문 51A와 고인을 위한 서문 270.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이는 복이 있나이다.

성구: 그들의 기억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참조: 시편 64:5; 44:18A

오순절 주간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제3장.

할렐루야, 1음조

구절: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굳게 세워졌고, 그분의 입술의 영으로 그 모든 군대가 지어졌도다.

구절: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 모든 인류를 보셨도다.

시편 32:6, 13

오순절 후 첫째 주.

성령 강림절 월요일

프로키멘, 6음조

주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 그리고 당신의 유산을 축복하소서.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절: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지여,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묵과하지 마소서. 시편 27:9, 1A

시작 229.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절: 나를 주님의 면전에서 물리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0:3, 13

화요일, 제79A장.	목요일, 81A 주간.
수요일, 80번째 시작.	금요일, 82장.
	토요일, 79B편.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모든 성인들의 주일

프로키멘, 8음조

기도하고 / 우리 주 하느님께 서원을 드리십시오.

성구: 유대에서 하나님이 알려지셨고,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이름이 위대하시다. 시편 75:12A, 2

그리고 성가,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67:36A

시작 330.

할렐루야, 4음조

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A, 20

제2주

월요일, 83번째 시작.	목요일, 89일째.
화요일, 86일째.	금요일 90일째.
수요일 시작 87.	토요일 시작 84.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오순절 후 2주째,
모든 성인의 날,
러시아 땅에서 빛을 비추신**

프로키멘, 1음조

주님,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절: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라 – 의인에게 합당한 찬양이니라.

시편 32:22, 1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프로키멘, 4음조

주님께서는 땅 위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뜻을 놀랍게 나타내셨도다.

시편 15:3

서두 81B와 성도들을 위한 서두 330.

할렐루야, 1음조

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수하시며, 민족들을 내게 복종시키시나이다.

절: 위엄 있게 왕을 구원하시며,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자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참조. 시편 17:48, 51

거룩하신 분들께 할렐루야, 제4음조

절: 하느님, 저희는 귀로 들었고, 저희 조상들이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구절: 주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43:2A, 8

제3주

월요일, 94번째 시작.

목요일, 98번째 시작.

화요일, 95번째 시작.

금요일, 101번째 시작.

수요일 시작 96A.

토요일 시작 85.

3주 차 시작 88A.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4주차

월요일 시작 102.	목요일 시작 106.
화요일 시작 104.	금요일, 107일째.
수요일 시작 105.	토요일 시작 92.

4주 차 시작 93.

5주차

월요일 시작 109.	목요일 시작 118.
화요일 시작 114.	금요일 시작 120.
수요일 시작 117.	토요일 시작 97.

5주 차 시작 103.

6주차

월요일, 121A편 시작.	목요일 129회 시작.
화요일 122편 시작.	금요일 130B 시작.
수요일 127장 시작.	토요일 시작 100.

일주일 6, 시작 110.

7주차

월요일 시작 134.	목요일 시작 138.
화요일 시작 136.	금요일 시작 139.
수요일 시작 137.	토요일 시작 108.

7주 116일째.

8주차

월요일 142회.	목요일 시작 147.
화요일 시작 144.	금요일, 148일째.
수요일 시작 145.	토요일 시작 111.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8주 124.

9주

월요일 시작 150.	목요일 시작가 155.
화요일 시작 152.	금요일 시작 157.
수요일 시작 154A.	토요일 시작 113.

9주 128.

10주

월요일 시작 159.	목요일 시작 167A.
화요일 시작 161.	금요일, 169절.
수요일 시작 165.	토요일 시작 119.

10주, 시작 131.

11주

월요일 시작 171.	목요일 시작 175.
화요일 시작 172.	금요일 시작 177.
수요일 시작 173.	토요일 시작 123.

11주, 시작 141.

12주

월요일 시작 179.	목요일 시작 183.
화요일 시작 180.	금요일 시작 184.
수요일 시작 182A.	토요일 시작 125C.

12주 158.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13주

월요일 시작 186.	목요일 시작 190.
화요일 시작 187.	금요일 시작 192.
수요일 시작 189.	토요일 시작 126.

13주 시작 166.

14주

월요일 시작 195.	목요일 시작 198.
화요일 시작 196.	금요일 시작 201.
수요일 시작 197.	토요일 시작 130A.

14주 170.

15주

월요일, 202장 시작.	목요일 시작 208B.
화요일 시작 204.	금요일 210A.
수요일 207강.	토요일 시작 132.

15주, 176 시작.

16주차

월요일 시작 211.	목요일 시작 216.
화요일 시작 212.	금요일 시작 217.
수요일 시작 214.	토요일 시작 146.

16주, 시작 181.

17주

월요일 시작 219.	목요일 시작 225.
화요일 시작 222.	금요일, 226일째.
수요일 시작 223.	토요일 시작 156.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17주, 시작 182B.

18주

월요일 시작 227.	목요일 시작 232.
화요일 시작 230A.	금요일 시작 234.
수요일 시작 231.	토요일 시작 162.

18주, 시작 188.

19주차

월요일 시작 235.	목요일 시작 238.
화요일 시작 236.	금요일 시작 239.
수요일 시작 237.	토요일 시작 164.

19주 194.

20주

월요일 시작 241.	목요일 시작 244.
화요일 시작 242.	금요일, 245일째.
수요일 시작 243.	토요일 시작 168.

일주일 20, 시작 200.

21주

월요일 시작 248.	목요일 시작 252.
화요일 시작 249A.	금요일 시작 253.
수요일 시작 251.	토요일 시작 174.

21주, 203장.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22주

월요일 시작 255.	목요일 시작 260A.
화요일 시작 256.	금요일, 261일.
수요일 259일 시작.	토요일 시작 178.

22주, 시작 215A.

23주

월요일 시작 262.	목요일 시작 265.
화요일 시작 263.	금요일, 266일째.
수요일 시작 264.	토요일 시작 185.

23주 220A.

24주

월요일 시작 267.	목요일 시작 271.
화요일 시작 268.	금요일 시작 272.
수요일 시작 269.	토요일 시작 191.

24주 221.

25주

월요일 시작 274A.	목요일 시작 276.
화요일 시작 274B.	금요일, 277절.
수요일 시작 275.	토요일 시작 199.

25주 224A.

26주

월요일 시작 278.	목요일 시작 283.
화요일 시작 279.	금요일, 285A 시작.
수요일 281.	토요일 시작 205.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26주 229.

27주

월요일 시작 285B.	목요일 시작 289.
화요일 시작 286.	금요일 시작 290A.
수요일 시작 287.	토요일 시작 213.

27주 233.

28주

월요일 시작 294.	목요일 시작 300B.
화요일 시작 297.	금요일, 301일째.
수요일 시작 299.	토요일 시작 218.

28주, 시작 250.

29주

월요일 시작 308.	목요일 시작 315.
화요일 시작 310.	금요일 시작 317.
수요일 시작 312.	토요일 시작 220B.

29주, 시작 257.

30주

월요일 시작 319.	목요일 시작 326.
화요일 시작 321A.	금요일 시작 327.
수요일 시작 323.	토요일 시작 228.

30주 258.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31주

월요일 시작 329A. 목요일 시작 51B.
화요일 시작 333A. 금요일, 52절.
수요일 시작 50B. 토요일 시작 249B.

31주, 280B 시작.

32주

월요일 시작 53. 목요일 시작 56.
화요일 시작 54. 금요일 시작 58A.
수요일 55일째. 토요일 시작 273.

일주일 32, 시작 285B.

33주

월요일 시작 59. 목요일 시작 62.
화요일 시작 60. 금요일 시작 64.
수요일 시작 61. 토요일, 293장.

제33주, 세리와 바리새인에 관한 본문 296.

제34주

월요일, 66장. 목요일, 69절.
화요일, 67절. 금요일, 70일째.
수요일 시작 68A. 토요일, 295장.

제34주, 탕자에 관한 본문 135.

제35주

월요일, 71장. 목요일, 74B.
화요일, 시작 72. 금요일, 75절.
수요일, 73A.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고기 금식 전 토요일

프로키멘, 6음조

그들의 영혼은 / 복된 곳 가운데 거하리라.

절: 주님,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리오니, 나의 하나님이지여.

참조: 시편 24:13A, 1-2A

시편 146편과 영면 기도를 위한 시편 270편.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구절: 그들의 기억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참조: 시편 64:5; 44:18A

제35주, 사순절 전 주일

프로키멘, 제3음조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크시며, /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나이다.

구절: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을 부르는 것이 좋으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달콤하기를.

시편 146:5, 1

시편 140편.

할렐루야, 8음조

구절: 오라,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 환호하자.

구절: 찬양으로 그분 앞에 서자, 시편으로 그분께 외치자.

시편 94:1, 2

월요일, 제76장.

화요일, 제77주.

목요일, 78번째 시작.

토요일 37, 시로푸스트나야

프로키멘, 4음조

성도들이 영광 중에 찬양하며 / 자기들의 침상에서 기뻐하리라.

모든 주간의 사도서신 낭독 순서

절: 그들의 목구멍에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들의 손에는 양날 칼이 있다. 시편 149:5, 7

시편 115편과 성인들의 시편 213편.

할렐루야, 2음조

구절: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라.

구절: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인들아, 마음이 바른 모든 이여, 찬양하라.

시편 91:14; 31:11

사순절 전 주일

프로키멘, 8음조

기도하고 주 우리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십시오.

구절: 하나님은 유대에서 알려지셨고,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하시도다. 시편 75:12,

2

시작 112.

할렐루야, 6음조

절: 주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복되도다.

구절: 이른 아침에 주의 자비를 선포하며, 밤마다 주의 진리를 전하리이다.

시편 9 1:2, 3

목차로.

사도서 낭독 순서

대사순절

대사순 제1 토요일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절: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서문 303과 성서문 292.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들은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대사순절 제1주일

프로키멘, 4음조, 조상들의 찬가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 찬송받으시며, /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나이다.

구절: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단 3:26, 27A

서문 329B.

할렐루야, 4음조

구절: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사무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있도다.

구절: 그들이 주님을 부르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시편 98:6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서신 읽기 순서

**기도 찬송 중에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 /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라.

성구: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라. 의로운 자에게 찬양은 마땅한 일이다.

시편 91:14; 32:1

시작 121B.

알렐루야는 부르지 않는다.

대사순절 둘째 주 토요일

이날의 프로키멘과 알렐루야, 그리고 고인들을 위한 기도.

제309장 및 고인을 위한 기도 제270장.

대사순 제2주

프로키멘, 5음조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리니 / 이 세대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구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의로운 자가 없나이다.

시편 11:8, 2A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시편 48:4

제304장 및 성스러운 제318A장.

알렐루야, 제1음조.

대사순절 제3 토요일

오늘의 프로키멘과 알렐루야, 그리고 고인들을 위한 기도.

제325장 및 고인을 위한 기도 제270장.

대사순 제3주일

프로키멘, 6음조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 주의 유산을 축복하소서.

구절: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지여,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묵과하지 마소서.

시편 27:9, 1A

시작 311A.

할렐루야, 8음조

구절: 주께서 태초부터 얻으신 주의 무리를 기억하소서.

구절: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73, 2A, 12

사순절 제4주 토요일

오늘의 프로키멘과 알렐루야, 그리고 고인을 위한 기도.

시작 313, 고인을 위한 기도 시작 163.

대사순 제4주

성가의 음조와 성인을 위한 성가, 제7음조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서 찬양하며 자기 침상에서 기뻐하리라.

시편 149:5

제314장, 성인을 위한 제229장.

음조의 알렐루야.

성인을 위한 할렐루야

구절: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4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서신 읽기 순서

대사순절 5주 토요일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구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으리라.

루카 1:46-48

제322조 및 성모 마리아 제320조.

할렐루야, 8음조

절: 일어나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성소 궤를 모시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소서.

절: 주님, 다윗과 그의 온유함을 기억하소서.

시편 131:8, 1

대사순절 제5주일

이 성가의 음조와 성인의 프로키멘, 프로키멘, 제4음조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67:36A

서문 321B 및 성녀 서문 208A.

성조의 알렐루야.

대사순절 6주 토요일, 나사로 주일

프로키멘, 제3음조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구: 주님은 나의 생명의 보호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6:1

시작 333B.

할렐루야, 5음조

구절: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시고, 위엄을 입으셨도다.

구절: 주께서 온 세상을 굳게 세우셨으니,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92:1A, 1B

바이이 주일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으시니, /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도다.

구절: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선하시니,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시편 117:26A, 27A, 1

시작 247.

할렐루야, 1음조

절: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구절: 땅 끝 모든 곳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편 97:1A, 3B

성대한 목요일

프로키멘, 제7음조

방백들이 함께 모여 / 주님과 그분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였도다.

구절: 이방인들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시편 2:2B, 1

시편 149편.

할렐루야, 6음조

구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원 하시리라.

구절: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였나니, “그가 언제 죽어 그의 이름이 사라 지겠느냐?”

구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향해 발뒤꿈치를 들었다.

시편 40:2, 6, 10B

성금요일

첫 번째 시간에는 215B가 시작되었다.

세 번째 시간대에 88B가 시작되었다.

여섯 번째 시간에 306이 시작되었다.

아홉 번째 시간에는 324번을 불렀다.

저녁 기도 때 프로키멘, 6음조

그들은 나를 가장 깊은 구덩이에, /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던져 두었나이다.

절: 주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지여, 낮에도 내가 부르짖었고, 밤에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87:7, 2

시편 125B.

할렐루야, 5음조

구절: 하나님이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영혼까지 미쳤나이다.

구절: 내 영혼은 모욕과 고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68:2, 21A, 24A

성 토요일

아침 예배에서 프로키멘, 7음조

일어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리시며, / 주의 가난한 자들을 끝까지 잊지 마소서.

구절: 주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니, 주의 모든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시편 9:33, 2**

제133, 206장.

할렐루야, 5음조

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면전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구절: 연기가 사라지듯, 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 앞에서 밀랍이 녹듯이.

절: 그리하여 죄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멸망하고, 의인들은 기뻐하게 하소서. **시편 67:2-4A**

성찬례에서 프로키멘, 5음조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리니, /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절: 온 땅이지여, 주님께 환호하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65:4, 1-2A

시작 91.

할렐루야 대신

시편 81편을 7음조로 부릅니다

낭독자: 일어나소서, 하느님, 땅을 심판하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산을 받으실 것이니이다.

합창: 일어나소서, 하느님, 땅을 심판하소서:

절: 하나님께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어, 신들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시나이다.

합창: 일어나소서, 하느님, 땅을 심판하소서:

절: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하게 심판하며 죄인들을 편들겠느냐?

합창: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땅을 심판하소서:

절: 고아와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와 궁핍한 자를 의롭다 하소서.

합창: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땅을 심판하소서:

절: 거지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죄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소서.

합창: 일어나소서, 하느님, 땅을 심판하소서:

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도다.

합창: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땅을 심판하소서:

절: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게 하소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요,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고, 한 왕자처럼 쓰러진다.

합창: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땅을 심판하소서:

낭독자: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땅을 심판하소서.

합창: 주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업을 받으실 것이니.

목차로.

프로키르나와 알렐루야

주일용

제1음조

프로키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성구: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라. 의인에게 찬양은 마땅한 일이다.

시편 32:22, 1

할렐루야

구절: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복수하시며, 민족들을 내게 복종시키시나이다.

구절: 위엄 있게 왕을 구원하시며,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참조: 시편 17:48, 51

제2음조

프로키멘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노래이신 주님, /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구절: 주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며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않으셨도다.

시편 117:14, 18

할렐루야

절: 슬픔의 날에 주님께서 너를 들으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구절: 주님, 왕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시편

19:2, 10

부활절 주일의 프로키멘과 알렐루야

제3음조

프로키멘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 우리 왕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구절: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치고,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시편 46:7, 2

할렐루야

절: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구절: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보호자이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시편 30:2A, 3B

제4음조

프로키멘

주님, 주의 행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 주께서는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구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시도다.

시편 103:2A, 1

할렐루야

절: 굳건히 서시고, 번영하시며,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다스리소서.

구절: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셨습니다.

시편 44:5A, 8A

제5음조

프로키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리니 / 이 세대에서부터 영원토록.

구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의로운 자가 없나이다.

시편 11:8, 2A

할렐루야

구절: 주님, 저는 주님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겠으며, 대대로 제 입으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리이다.

부활절 주일의 프로키멘과 알렐루야

구절: 주께서 “자비는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늘에서 주의 진리가 확립되리라.

시편 88:2, 3

제6음조

프로키멘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 주의 유산을 축복하소서.

구절: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외면하고 침묵하지 마소서.

시편 27:9A, 1A

알렐루야

구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도움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리라.

구절: 주님께 말하리라.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시편 90:1, 2

제7음조

프로키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리니, /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구절: 하나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리라, 주님께 어린 숫양을 드리라.

시편 28:11, 1A

알렐루야

절: 주님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복되도다.

구절: 이른 아침에 주의 자비를 선포하고, 밤마다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라.

시편 91:2, 3

제8음조

프로키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드리십시오.

부활절 주일의 프로키멘과 알렐루야

구절: 유다에서 하나님은 잘 알려져 계시며, 이스라엘에서 그분의 이름은 위대하시다. 시편 75:12A, 2

알렐루야

절: 오라,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 환호하자.

성구: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 앞에 서고, 시편으로 그분께 외치자.

시편 94:1, 2

목차로.

프로키르나와 알렐루야

일 주간의

월요일

프로키멘, 4음조

주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 당신의 종들을 불꽃으로 지으시나이다.

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지극히 높으시도다.

시편 103:4, 1A

할렐루야, 5음조

절: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구절: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생겨났고, 그분이 명하시니 그들이 창조되었도다.

시편

148:2, 5B

화요일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구절: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할렐루야, 4음조

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들은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수요일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구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6-48

일주일 동안의 프로키르나와 알렐루야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시고 보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주님의 얼굴을 뵈게 하소서.

시편 44:11A, 13B

목요일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할렐루야, 제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들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진리를 알리나이다.

구절: 성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 8A

금요일

프로키멘, 7음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시고 그분의 발등상을 경배하라, / 이는 거룩함이니라.

구절: 주님께서 왕이 되셨으니, 민족들이 분노하게 하소서.

시편 98:5, 1A

할렐루야, 1음조

절: 태초부터 얻으신 주의 무리를 기억하소서.

구절: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왕이신 하느님께서는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시편 73:2A, 12

토요일

프로키멘, 8음조

주님을 기뻐하라, / 의인들아, 즐거워하라.

구절: 죄악이 사함 받고 죄가 덮인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시편 31:11A, 1

영혼의 안식을 위한 예배 시, 제2 프로키멘, 6음조

그들의 영혼은 복된 곳에 거하리라.

참조: 시편 24:13A

할렐루야, 4음조

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슬픔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 20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성구: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이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기억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니이다.

참조: 시편 64:5; 44:18A

목차로.

프로키므, 사도서, 알렐루야 비정기 축일

9월

1. 성 시메온 기둥수행자 및 새로운 교회 연도

프로키멘, 제3음조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크시며, /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도다.

절: 주님을 찬양하라. 시편을 부르는 것이 좋으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달콤하기를.

시편 146:5, 1

그리고 성자에게,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하니라.

시편 115:6

서문 282, 그리고 성인을 위한 서문 258.

할렐루야, 4음조

절: 하나님,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예루살렘에서 그분께 서원을 드릴 것입니다.

절: 주님, 주께서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축복하시나이다.

시편 64:2, 12A

그리고 성자에게,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시편 111:1

4. 성 요아사프, 벨고로드 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18A.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5. 거룩한 선지자 사가랴
와 의로운 엘리사벳**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절: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시작 314.

할렐루야, 7음조

구절: 의인에게 빛이 비추었고, 마음이 바른 자에게는 기쁨이 있도다.

구절: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라. 시편 96:11, 12

**6. 콜로세(호나)에서 일어난
콜로세(호나)에서 대천사 미카엘의 기적**

프로키멘, 4음조

주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 당신의 종들을 불꽃으로 지으시나이다.

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지극히 높으시도다.

시편 103:4, 1A

시작 305.

할렐루야, 5음조

구절: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구절: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생겨났고, 그분이 명하시니 그들이 창조되었도다. 시편

148:2, 5B

7. 순교자 소존트**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구절: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시작 233.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A, 20

**8.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성모님의
우리의 성모
이자 영원히 동정녀이신 마리아**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의 찬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느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제240장.**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9. 거룩하고 의로운
하느님의 아버지 요아킴과 안나**

축일과 성인들을 위한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경이로우시도다. 시편 67:36A

일반 서두 및 성인들을 위한 서두, 210B.**축일과 성인들을 위한 알렐루야, 1음조**

구절: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주님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보호자 이시니라. 시편 36:39

11. 아토스 산의 성 실루안**축일과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하니라. 시편 115:6

축일과 성인을 위한 서두, 서두 213.**축일과 성인을 위한 알렐루야, 6음조**

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굳게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12. 축일 마무리 성모 마리아 탄생

축일의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성구: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을 돌보셨으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6-48

평일 및 축일의 시작, 240번째 시작.

축일의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시고 보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십자가 높이심 전 토요일

프로키멘, 제3음조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 우리 왕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구절: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치고,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시편 46:7, 2

시편 126편.

할렐루야, 5음조

구절: 주님,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리니, 대대로 내 입으로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다.

구절: 주께서 “자비는 영원히 굳게 세워지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늘에서 주의 진리가 확고히 세워지리라.

시편 88:2, 3

십자가 높이심 전 주간

프로키멘, 6음조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 주의 유산을 축복하소서.

구절: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외면하고 침묵하지 마소서.

시편 27:9A, 1A

시작 215A.

할렐루야, 1음조

구절: 내가 내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이셨나이다.

구절: 보라,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며, 내 팔이 그를 굳건하게 하리라.

시편 88:20B, 22

13. 성전 재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프로키멘, 4음조

주님,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마땅하니, / 영원토록.

성구: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어 위엄을 입으셨도다.

시편 92:5B, 1A

시편 307.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그분의 터는 거룩한 산들 위에 있도다.

구절: 하나님의 성이여, 네게 대해 영광스러운 말이 전해지도다.

시편 86:1, 3

14. 거룩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드림

프로키멘, 7음조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며, / 그분의 발등상에 경배하라. 이는 거룩함이니라.

절: 주님께서 왕이 되셨으니, 민족들이 분노하더라도.

시편 98:5, 1A

서문 125A.

할렐루야, 1음조

절: 주께서 태초부터 얻으신 주의 무리를 기억하소서.

구절: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왕이신 하느님께서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시편 73:2A, 12

십자가 높이심 후 토요일

축일의 프로키멘과 할렐루야.

시편 125B.

십자가 높이심 후 주간

축일의 프로키멘과 할렐루야.

제203장.

16. 모든 찬미를 받는 대순교녀 유프미아**축일과 대순교자의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시편 67:36A

일반 시작구와 대순교자, 시작구 181.

축일과 대순교자의 알렐루야, 1음조

구절: 내가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셨도다.

성구: 주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셨도다. 시편 39:2, 3B

20. 대순교자 에우스타티오스 플라키데스**축일과 대순교자의 프로키멘, 4음조**

주님께서는 땅 위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 그분의 모든 뜻을 놀랍게 드러내셨도다. 시편 15:3

축일과 대순교자의 서두, 서두 233.

축일과 대순교자의 알렐루야, 4음조

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A, 20

21. 십자가 승천 축일.

성 디미트리,

로스토프 대주교

축일과 성인의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시편 48:4

축일과 성인의 시작, 시작 318A.

축일과 성인의 알렐루야, 제2음조

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23. 성 요한 세례자의 잉태**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구절: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210B절.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들은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25. 성

세르기우스 라도네즈스키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26.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

신학자 요한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 하도다.

시편 18:5A, 2

시작 73B.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들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진리를 알리나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 8A

28. 성 하리톤 고백자

프로키멘, 7음조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서 찬양하며 / 자기 침상에서 기뻐하리라.

구절: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시편 149:5, 1

시작 176.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굳게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30. 성 미카엘,
키예프의 초대 대주교이자
전 러시아의 기적 행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이여,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18A.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10월

**1.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보호 축일.
사도 아나니아**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그리고 사도에게 드리는 프로키멘, 제8음조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5A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시작 320과 사도서에 대한 시작 21B.

할렐루야, 8음조

절: 들으소서, 딸아, 보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뵈히 바라보며 간구하리이다.

시편 44:11A, 13B

그리고 사도서, 할렐루야, 제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3. 성 순교자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타

프로키멘, 7음조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서 찬양하며 / 자기 침상에서 기뻐하리라.

절: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시편 149:5, 1A

시작 40A.

할렐루야, 2음조

구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을 입을 것이며, 주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구절: 우리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발이 밟으셨던 곳에 경배하리라.

시편 131:9, 7

**5. 성 베드로, 알렉시우스, 이오나,
필립, 그리고 예르모겐 모스크바 성인들**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335.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을 입을 것이요, 주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시편 131:9;

111:1

6. 성 토마스 사도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 하도다.

시편 18:5A, 2

시편 131편.

할렐루야, 제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9. 성 야고보 알페오 사도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 하도다.

시편 18:5A, 2

시편 131편.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10. 옴틴의 성 암브로시오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구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제213장.

할렐루야, 제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11. 사도 필립보, 일곱 집사 중 한 분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제20장.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10월 11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

제7차 전교회 공의회 기념일 ra

프로키멘, 4음조, 조상들의 찬가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여, 찬미받으시며, / 주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양받고 영광받으시나이다.

구절: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니이다.

단 3:26, 27A

시작 334.

할렐루야, 1음조

구절: 신들의 신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땅을 부르셨나이다.

구절: 그분의 성도들을 그분께 모이게 하소서.

시편 49:1A, 5A

13. 이베르 성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240번째 시작.

할렐루야, 제8음조

절: 들으소서, 딸아, 보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리이다.

시편 44:11A, 13B

16. 순교자 롱기노 백부장**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구절: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시작 292.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들은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18.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 루카****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시작 260B.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22. 카잔의 성화상**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느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제240장.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23. 성 야고보 사도,
주님의 형제**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시작 200.

할렐루야, 제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24. 성모 마리아의 성화
“모든 슬픔에 빠진 이들의 기쁨”**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제240장.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26. 성 대순교자 디미트리오스
및 740년 콘스탄티노플에서
740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프로키멘, 6음조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 주의 유산을 축복하소서.

절: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지여,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묵과하지 마소서. 시편 27:9, 1A

순교자의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리이다.

시편 63:11A

서문 331b와 성인의 서문 292.

할렐루야, 4음조

절: 하나님이지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쫓아내셨나이다.

성구: 주께서 땅을 뒤흔드시고 혼란에 빠뜨리셨나이다.

시편 59:3A, 4

그리고 성가, 4성부

구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시편 91: 13

**28. 성 디미트리,
로스토프 대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18A.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29. 성 아브라아미아,
로스토프의 대수도원장**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11월

1. 무보수 의료자이자 기적 행자

아시아의 코스모스와 다미안

프로키멘, 4음조

그분의 땅에 계신 성자들에게, /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뜻을 기이하게 나타내셨도다.

절: 나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보았으니,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5:3, 8

제153장.

할렐루야, 제2음조

성구: 보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 그토록 기쁜 일이 또 무엇이라.

구절: 마치 에르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과 같으니,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32:1, 3

5. 성 이오나,

노브고로드 대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18A.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6. 후틴의 성 바르라암, 노브고로드의 기적 행자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8. 대천사 미카엘 대성당 및 모든 천상의 무형 군대

프로키멘, 4음조

주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 당신의 종들을 불꽃으로 지으시나이다.

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지극히 높으시도다.

시편 103:4, 1A

시작 305.

할렐루야, 5음조

구절: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구절: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생겨났고, 그분이 명하시니 그들이 창조되었도다.

시편

148:2, 5B

13. 성 요한 크리소스톰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구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18A.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14. 성 필립보 사도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시편 131편.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들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진리를 알리나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 8A

15. 성

파이시이 벨리치코프스키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334.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16. 성 사도

이자 복음서 저자 마태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제131장.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들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진리를 알리나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 8A

19. 성 필라레트, 모스크바 및 콜로멘스크 대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233.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21. 성전 입성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320.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22. 사도 빌레몬과 아르키포

축일의 프로키멘과 사도들을 위한, 8음조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5A

평신도와 사도들을 위한 시작, 시작 302B.

축일의 알렐루야와 사도들, 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성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리이다.

시편 88:6A, 8A

23. 신실한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공의

축일과 신실한 이의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하니라.

시편 115:6

일반 서두 및 성자에게 바치는 서두, 213번.

축일과 신실한 이에게 바치는 알렐루야, 6음조

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굳게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24. 대순교녀 예카테리나

축일과 대순교자를 위한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시편 67:36A

축일과 대순교자를 위한 일반 서두, 서두 233.

축일과 대순교자를 위한 알렐루야, 1음조

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A, 20

25. 축일 마무리

성모 마리아의 성전 입성.

성클레멘트,

로마 교황,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축일의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느님을 기뻐하도다.

성구: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을 돌보셨으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6-48

성순교자들을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하니라.

시편 115:6

제320절, 성순교자들을 위한 제246절.

축일의 알렐루야, 8음조

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성순교자들을 위한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을 입을 것이며, 주님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구절: 우리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발이 밟으셨던 곳에 경배하리라.

시편 131:9, 7

**27. 노브고로드에 있던
노브고로드에서 나타난 표징.
대순교자
야곱 페르시아인**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느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4음조

주님께서는 땅 위에 계신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뜻을 놀랍게 드러내셨 나이다.

시편 15:3

제320절과 성인을 위한 제233절.**할렐루야, 8음조**

절: 딸아, 들으라, 보라, 네 귀를 기울이라.

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할렐루야, 성자에게, 제4음조

성구: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20

30. 성 안드레아 첫 부름받은 사도**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 하도다.

시편 18:5A, 2

시편 131편.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들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진리를 알리나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 8A

12월

3. 성 사바

스토로제프스키, 즈베니고로드스키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구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요?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4. 성녀 대순교자 바르바라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경이로우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구절: 이스라엘의 샘물들에서, 모임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시작 208A.

할렐루야, 1음조

구절: 내가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셨도다.

구절: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셨도다.

시편 39:2, 3B

5. 성 성 사바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구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을 수 있으리요?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6. 성 니콜라스, 리키아 미르의 대주교이자, 기적 행자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절: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서문 335.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을 입을 것이며, 주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구절: 우리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발이 밟으셨던 곳에 경배하리이다. **시편 131:9, 7**

9. 의로운 안나의 잉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라.

절: 이스라엘의 샘물들에서, 모임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시작 210B.

할렐루야, 1음조

구절: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주님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보호자 이시다. **시편 36:39**

10. 순교자 미나, 에르모겐과 에우그라프

프로키멘, 4음조

그분의 땅에 계신 성도들에게, /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뜻을 놀랍게 나타내셨도다.

절: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으니,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5:3, 8

제233조.

할렐루야, 4음조

성구: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A, 20

12. 성 스피리돈, 트리미폰트 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35.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13. 성 순교자 에우스트라티오, 아브센티우스, 유제니우스, 마르다리우스, 오레스테스

예배는 12월 10일과 동일하다.

17. 예언자 다니엘과 세 소년: 아나니아, 아사리아, 미사엘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안에서 경이로우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구절: 모임에서 이스라엘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시작 330.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A, 20

성 조상들의 주간

프로키멘, 4음조, 조상들의 찬가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 찬송받으시며, /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나이다.

구절: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니이다.

단 3:26, 27A

시작 257.

할렐루야, 4음조

구절: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에, 사무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에 있었다.

구절: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매, 그분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시편 98:6

크리스마스 전

그리스도 탄생

그 날의 프로키멘과 할렐루야.

제205장.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탄생 전 주간,

성부들의

프로키멘, 4음조, 성부들의 찬가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여, 찬미받으시며, /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나이다.

절: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니이다.

단 3:26, 27A

시작 328.

할렐루야, 4음조

구절: 하느님, 저희는 귀로 들었고, 저희 조상들이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구절: 주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43:2A, 8

**20. 의로운 크론슈타트 요한
및 성순교자
이그나티우스 신윤자**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절: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서문 311A.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들은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21. 대주교 페트르,
성 모스크의**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성구: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18A.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22. 대순교녀
구원자 아나스타시아**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라.

절: 이스라엘의 샘물들에서, 모임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시작 208A.

할렐루야, 1음조

구절: 내가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셨도다.

구절: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셨도다. 시편 39:2, 3B

24. 주님 탄생 전야

제1시, 303번 시작.

제3시에 208A를 시작하였다.

제6시에는 304번을 시작하였다.

9시 기도에서 306번을 시작합니다.

성찬례에서**프로키멘, 1음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구절: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민족들을 네 유산으로, 땅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시편 2:7B, 8

제303장.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녁 기도 때, 전례와 별도로 거행되는 경우 제207장.

할렐루야, 5음조

구절: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아래 두기까지.”

구절: 주님께서 시온에서 권능의 지팡이를 네게 보내시리니, 네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리라.

구절: “나는 새벽별이 뜨기 전에 너를 낳았노라,”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번복하지 않으시리라.

시편 109:1, 2, 3B-4A

25. 주님의 탄생**프로키멘, 8음조**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고, /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절: 온 땅이여, 주님께 환호하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찬양에 영광을 돌리라. 시편 65:4, 1b-2

시작 209.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굳건한 하늘이 전 하도다.

구절: 날이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알린다.

시편 18:2, 3

26.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대축일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구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 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306.

할렐루야, 8음조

절: 일어나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성막이여,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8, 11A

그리스도 탄생 후 토요일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의 이름을 모든 세대와 세대에 걸쳐 기억하게 하리이다.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시편 44:18A, 11A

시작 288.

할렐루야, 8음조

구절: 일어나소서, 주여, 주와 주의 성소의 언약궤가 주의 안식에 들어가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8, 11A

성탄절 후 일주일

프로키멘, 4음조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경이로우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절: 이스라엘의 샘물들에서, 모임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시작 200.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주님, 다윗과 그의 온유함을 기억하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1,**
11A

**27. 성 사도,
첫 순교자이자 대집사 스테파노**

축일의 프로키멘과 사도,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5A

일반 서두와 사도 서두, 17번.

축일과 사도서를 위한 알렐루야, 제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28. 니코미디아의 2만 순교자들**축일과 순교자들을 위한 프로키멘, 5음조**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대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주시리이다.

시편 11:8

축일과 순교자들을 위한 서두, 96B.

축일과 순교자들을 위한 알렐루야, 4음조

절: 온 땅이여, 주님께 환호하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라.

절: 주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은을 정련하듯 불로 우리를 정화하셨나이다. **시편 65:1b-**

2, 10

29. 헤로데에 의해 살해된 성스러운 유아들**축일 및 순교자들을 위한 프로키멘, 6음조**

젊은이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2:1

일반 서두 및 순교자들을 위한 서두, 180번.

축일과 순교자들을 위한 알렐루야, 5음조

절: 그들의 피를 물처럼 쏟았도다.

절: 주님, 당신의 자비가 속히 우리를 만나게 하소서.

시편 78:3A, 8B

31. 주님의 탄생 축일

축일의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구절: 이스라엘의 샘물들에서, 모임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일반 시작송.

축일의 알렐루야, 4음조

구절: 주님, 다윗과 그의 온유함을 기억하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1,**

11A

1월

1. 주님의 할례 축일.

성 바실리오 대주교

프로키멘, 6음조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 주의 유산을 축복하소서.

절: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묵과하지 마소서.

시편 27:9, 1

그리고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말하리이다.

시편 48:4

서문 254와 성서문 318A.

할렐루야, 제8음조

구절: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의 양 떼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시편 79:2A; 36:30

주현절 전 토요일

오늘의 프로키멘과 할렐루야.

제284장.

주현절 전 주일**프로키멘, 6음조**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 주의 유산을 축복하소서.

절: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지여,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묵과하지 마소서.

시편 27:9, 1A

시작 298.

할렐루야, 8음조

구절: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를 축복하소서. 주님의 얼굴의 빛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절: 땅 위에서 사람들이 주의 길을, 모든 민족이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시편 66:2, 3

2. 성**세라핌 사로프의****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4. 칠십 사도 성인들의 대축일**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시편 96A.

할렐루야, 제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과 진리를 선포하리니, 주님, 성도들의 모임에서.

절: 성도들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 8A

5. 주현절 전야

제1시, 제33장 시작.

제3시에는 제42편을 시작합니다.

제6시에는 제91편을 시작합니다.

9시 기도에서 302A번 시작.

성찬례에서

프로키멘, 제3음조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절: 주님은 내 생명의 보호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6:1

시편 143A.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143B장.

할렐루야, 6음조

구절: 내 마음이 선한 말을 쏟아내니, 내가 내 행실을 왕께 아뢰입니다.

절: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꽃피는 이여.

시편 44:2A, 3A

성수식 때

프로키멘은 전례 때와 같다.

시편 143편 B절.

할렐루야, 4음조

절: 물 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처럼 울리시니, 주님은 수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8:3

6. 주님의 현현 대축일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도다; / 하나님은 주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도다.

구절: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선하시니,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니라.

시편 117:26A, 27A, 1

시작 302A.

할렐루야, 제4음조

절: 하나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리라. 주님께 어린 숫양을 드리라.

절: 물 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처럼 올리시니, 주님은 수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8:1, 3

7. 세례자 요한 대축일

축일과 예언자를 위한 프로키멘, 제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리라.

시편 63:11A

일반 서두와 예언자 서두, 42번.

축일과 예언자를 위한 알렐루야, 5음조

절: 빛이 의인에게 비추었으니, 마음이 바른 자에게는 기쁨이 있도다.

구절: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라.

시편 96:11, 12

주현절 후 토요일

축일 예배.

제233장.

주현절 후 주간

프로키멘, 1음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소서.

절: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라 – 의인에게 합당한 찬양이니라.

시편 32:22, 1

그리고 축일의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니,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도다.

시편 117:26A, 27A

서문 224B와 일반 서문.

할렐루야, 5음조

절: 주님,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겠나이다. 대대로 내 입으로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나이다.

절: 주께서 말씀하셨나니 “자비는 영원토록 굳게 세워지리라” 하시니, 하늘에서 주의 진리가 확고히 서리라.

시편 88:2, 3

그리고 축일의 할렐루야, 4음조

구절: 하나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리라. 주님께 어린 양들을 드리라.

성구: 물 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처럼 울리시니, 주님은 수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8:1, 3

9. 성 필립, 모스크바 대주교

축일과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시편 48:4

축일과 성인을 위한 서곡, 제335번.

축일과 성인을 위한 알렐루야, 제2음조

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10. 성 테오판, 비센스키의 은둔자

축일 및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이다.

시편 48:4

축일과 성인을 위한 서두, 서두 318A.

축일과 성인을 위한 알렐루야, 제2음조

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그날 성 그레고리우스, 니스 주교

축일과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합니다.

시편 115:6

축일과 성인을 위한 시작 찬송, 151번.

축일과 성인을 위한 알렐루야, 제2음조

구절: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을 입을 것이며, 주님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성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그분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시편

131:9; 111:1

11. 성 테오도시오스, 공동체 수장

축일 및 성인의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하니라.

시편 115:6

일반 서두 및 성자에 대한 서두, 176번.

축일과 성인을 위한 알렐루야, 6음조

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굳게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14. 주현절 후 첫 주일. 사도들과 동등한 니나, 조지아의 전도자

축일의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도다; / 하나님은 주님이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도다.

절: 주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선하시니,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니라.

시편 117:26A, 27A, 1

그리고 성인의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5A

일반 서두와 성서두, 서두 131.

축일의 알렐루야, 4음조

절: 하나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리라. 주님께 어린 숫양을 드리라.

절: 물 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처럼 울리시니, 주님은 수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8:1, 3

그리고 거룩한 할렐루야, 제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16. 사도 베드로의 사슬에 대한 경배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 하도다.

시편 18:5A, 2

제29장.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들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진리를 알리나이다. **시편 88:6**

17.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구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서문 335.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며, 의인들의 족속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11:1, 2**

20. 성 유피미오스 대성인의 날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구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서문 335.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1월 23일과 31일 사이의 주일.

신순교자와 신앙고백자들

러시아어 x

신순교자들을 위한 프로키멘, 7음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니라.

시편 45:2A

성가의 사도와 신순교자들을 위한, 99번째 시작.

이 음조의 알렐루야와 신순교자들을 위한, 제4음조

구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 20**

24. 성녀 크세니아(상트페테르부르크)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구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25. 성 그레고리우스 신학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구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151.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내 백성아, 내 율법을 경청하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구절: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고, 태초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수께끼를 말하리라.

시편 77:1, 2

27. 성 요한

성 요한 황금입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 내 마음의 묵상은 이성이로다.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18A.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성구: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비틀거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30. 성인들의 공의회

바실리우스 대성인, 그레고리우스 신학자

요한 황금입자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씀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공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시작 334.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들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진리를 알리나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 8A

2월**2. 주님의 성전 입성****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으리라.

루카 1:46-48

시작 316.

할렐루야, 8음조

절: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보내 주시나이다.

구절: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리라.

누가복음 2:29, 32

3. 의인 시므온과 와 예언자 안나

축일과 성인들을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리라.

시편 63:11A

일반 서두 및 성인들을 위한 서두, 321B.

축일과 성인을 위한 알렐루야, 6음조

구절: 빛이 의인에게 비추었으니, 마음이 바른 자에게는 기쁨이 있도다.

성구: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라.

시편 96:11, 12

5. 성 테오도시오, 체르니히우 대주교

축일 및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하니라.

시편 115:6

축일과 성인을 위한 시작 찬송, 335번.

축일과 성인을 위한 알렐루야, 6음조

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굳게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며, 의인들의 족속은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11:1, 2

8. 대순교자 테오도르 스트라틸라토스

축일과 대순교자를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리라.

시편 63:11A

축일 및 대순교자를 위한 일반 서두, 서두 292.

축일과 대순교자를 위한 알렐루야, 4음조

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9. 축일 마무리 주님의 성전 입성 축일

축일의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으리라. 루카 1:46-48

일반 시작 기도.

축일의 알렐루야, 8음조

구절: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종을 평안히 보내 주시나이다.

구절: 이방인들에게 계시의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나이다. 루카 2:29, 32

12. 이베르의 성모 성화.

성 알렉시우스,

모스크바의 기적 행자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느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성인에게 바치는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하도다.

시편 115:6

240절, 성인을 위한 시작, 335절.

할렐루야, 8음조

절: 딸아, 들으라, 보라, 네 귀를 기울이라.

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할렐루야, 성자여, 6음조

구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 20

17. 대순교자 테오도르 티론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구절: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시작 292.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들은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24. 성 요한 세례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견**성 요한 세례자****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절: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제176장.

할렐루야, 제4음조

구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3월**9. 40성인 순교자들****세바스티아의****프로키멘, 5음조**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리니 / 이 세대에서부터 영원토록.

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의로운 자가 없어졌나이다.

시편 11:8, 2A

시작 331A.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온 땅이여, 주님께 환호하라.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라.

구절: 주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은을 정련하듯 불로 우리를 정화하셨나이다.

시편

65:1b-2, 10

25.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수태고지**프로키멘, 4음조**

날마다 /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구절: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온 땅이여, 주님께 노래하라.

시편 95:2B, 1

시작 306.

할렐루야, 6음조

구절: 그분은 양털 위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내려오시리라.

구절: 그분의 이름이 영원토록 복되시리니, 그분의 이름은 해보다 먼저 계셨도다. 시편 71: 6,

17A

4월

23. 성 대순교자

승리자 게오르기우스

트리오디의 프로키멘과 순교자,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리라.

시편 63:11A

평신도와 순교자를 위한 시작, 29번째 시작.

알렐루야, 트리오디와 순교자를 위한, 4음조

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25. 성 사도

이자 복음서 저자 마르코

트리오디와 사도서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5A

일반 서두 및 사도서, 서두 63.

트리오디와 사도에게 바치는 알렐루야, 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27. 사도

이자 순교자인 시메온,
예루살렘 주교이자,
육신으로 주님의 친족이신

트리오디의 프로키멘과 사도,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5A

일반 서두와 사도서, 서두 131.

트리오디와 사도서의 알렐루야, 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절: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30. 성 사도

야고보 제베데오

트리오디와 사도서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5A

평신도와 사도에게 바치는 시작, 29번째 시작.

트리오디와 사도서에 대한 할렐루야, 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주님.

구절: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5월

1. 예언자 예레미야

트리오디의 프로키멘과 예언자, 4음조

주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시편 109:4B

예언자를 위한 일반 서두, 156번 서두.

트리오디의 알렐루야와 예언자, 5음조

절: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있고, 사무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구절: 빛이 의인에게 비추었고, 마음이 바른 자에게는 기쁨이 있도다.

시편 98:6A; 96:11

2. 성스러운 유해의 이장

신실한 공작 보리스와 글레브의 유해

트리오디의 프로키멘과 성도들을 위한 노래, 4음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신 성자들에게, 그들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뜻을 기이하게 나타내셨도다.

시편 15:3

일반 서두 및 성도들을 위한 서두, 99번.

트리오디와 성도들을 위한 알렐루야, 4음조

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슬픔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절: 의인들에게는 슬픔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 20

3. 성 테오도시우스 페체르스키의 선종

페체르스크의 테오도시오스

트리오디의 프로키멘과 성자에 대한,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하니라.

시편 115:6

평신도와 성자에게 바치는 시작, 334번.

알렐루야, 트리오디와 성자에 대한, 2음조

절: 주님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을 입으리니, 주님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이다.

구절: 우리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발이 밟으셨던 곳에 경배하리이다. 시편 131:9, 7

7. 하늘에 나타나신 주님의 현현을 기념함

351년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난 일

트리오디와 십자가를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분의 발 아래에 경배하라. 이는 거룩함이니라.

시편 98:5

십자가를 위한 일반 서두, 서두 125A.

트리오디와 십자가를 위한 알렐루야, 1음조

절: 주께서 태초부터 얻으신 주의 무리를 기억하소서.

절: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시편 73:2A, 12

8.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 신학자 요한

트리오디와 사도서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5A

일반 서두 및 사도서, 서두 68B.

트리오디와 사도서의 알렐루야, 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절: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9. 성 성 니콜라오 성인

트리오디의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서 찬양하며 자기 침상에서 기뻐하리라.

시편 149:5

평신도와 성인을 위한 시작, 335번.

알렐루야, 트리오디와 성인을 위한, 2음조

절: 주님의 사제들은 의로움을 입으리니, 주님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이다.

절: 우리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발이 밟으셨던 곳에 경배하리이다.

시편 131:9, 7

10. 성 시몬 질로트 사도

트리오디의 프로키멘과 사도,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5A

일반 서두와 사도서, 서두 131.

트리오디와 사도에게 바치는 알렐루야, 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11. 사도와 동등한 키릴로스와 메포디오스, 슬라브인의 스승들

트리오디와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하도다.

시편 115:6

일반 서두 및 성인들을 위한 서두, 318A.

트리오디와 성도들을 위한 알렐루야, 2음조

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을 입을 것이요, 주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절: 우리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발이 밟으셨던 곳에 경배하리이다. 시편 131:9, 7

**12. 성순교자 에르모겐,
모스크바 총대주교**

트리오디의 프로키멘과 성순교자를 위한,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리라.

시편 63:11A

평신도 및 성순교자를 위한 시작, 335번.

알렐루야, 트리오디와 성순교자를 위한, 4음조

절: 주님의 사제들은 의로움을 입으리니, 주님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이다.

절: 우리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발이 밟으셨던 곳에 경배하리이다. 시편 131:9, 7

**15. 경건한 왕자
우글리치 공 디미트리**

트리오디의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리라.

시편 63:11A

일반 서두 및 성인을 위한 서두, 292번.

트리오디와 성인을 위한 알렐루야, 4음조

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절: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19. 신실한 대공
디미트리 돈스키**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213.

알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20. 모스크바의 기적행자 알렉시 성인의 유해 발견, 모스크바의 기적 행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제335장.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21. 사도들과 동등한 성자 콘스탄티노스와 헬레나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시작 200.

오순절 축일까지라면 – 제49장.

할렐루야, 제1음조

구절: 내가 내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이셨도다. 내 종 다윗을 찾으셨도다.

절: 주님, 왕은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리이다.

시편 88:20B-21A; 20:2

그날, 블라디미르 성화상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축일.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240.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23. 성 레온티오, 로스토프 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서두 318B.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25. 세 번째 발견 성 요한 세례자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절: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시작 176.

할렐루야, 5음조

구절: 빛이 의인에게 비추었고, 정직한 마음에는 기쁨이 있도다.

구절: 진리가 땅에서 솟아났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시편 96:11; 84:12

27. 의로운 요한 루스키, 고백자

프로키멘, 7음조

성도들이 영광 중에 찬양하며 / 자기 침상에서 기뻐하리라.

절: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시편 149:5, 1

시작 23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굳게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6월**8. 대순교자 테오도르 스트라틸라토스****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절: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시작 292.

할렐루야, 4음조

성구: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9. 성 키릴로,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34.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도다.

시편 36:30, 31A

**그날,
성 키릴로,
벨로예제르스키 수도원장**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10. 성 요한,
토볼스크 대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35.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11. 사도 바르톨로메오와 바르나바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 그들의 말씀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시작 28.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14.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 영원한 제사장이시니이다.

구절: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나니,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밟아 놓을 때까지.”

시편 109:4B, 1

시작 57A.

할렐루야, 5음조

구절: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있고, 사무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있도다.

구절: 의인에게 빛이 비치고, 마음이 바른 자에게는 기쁨이 있도다.

시편 98:6A; 96:11

15. 성 이오나,
모스크바 대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이다.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35.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18. 보골류브스카야 성화

성모 마리아

와 순교자 레온티오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성구: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을 돌보셨으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6-48

순교자를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의지하리라.

시편 63:11A

제240장, 순교자를 위한 제29장.

할렐루야, 8음조

절: 딸아, 들으라, 보라, 네 귀를 기울이라.

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뵈히 바라보며 간구하리이다.

시편 44:11A, 13B

알렐루야, 순교자에게, 4음조

구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 우리 하느님의 뜰에 심겨진 이들은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19. 성 유다 사도,
주님의 형제**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제77장.

할렐루야, 제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들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진리를 알리나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 8A

**그날,
성 요브,
모스크바와 전 루시의 총대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이여,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18A.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성구: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비틀거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23. 블라디미르 성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240.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24. 세례자 요한의 탄생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구절: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제112장.

할렐루야, 제3음조

구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구절: 그리고 너,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다.

루카 1:68, 76A

25. 신실한 공작 페트르 와 공작부인 페브로니아, 무롬의 기적 행자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26. 티흐빈 성화의 현현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느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240.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28. “세 손의 성모”라고 불리는
“세 손을 가진 성모”라 불리는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240.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그날,
성 세르기우스와 게르만,
발람의 기적 행자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요?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29.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베드로와 바울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 그들의 말씀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성구: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느니라.

시 18:5A, 2

시편 193.

할렐루야, 제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30. 열두 사도 대축일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시편 131편.

할렐루야, 제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7월

1. 무상행자이자 기적 행자
코스모스와 다미아노,
로마에서 순교하신

프로키멘, 4음조

이 땅에서 그분께 충성했던 성인들에게, /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뜻을 기이하게 드러내셨도다.

절: 나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보았으니,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5:3, 8

제153장.

할렐루야, 4음조

구절: 보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 기쁜 일이 또 무엇이라.

구절: 마치 에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곳에서 영원한 복과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32:1, 3

2. 예복 착용법

블라케르네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성구: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을 돌보셨으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6-48

제320장.

할렐루야, 8음조

구절: 일어나소서, 주여, 주와 주의 성소의 언약궤가 주의 안식에 들어가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8,

11A

3. 성 필립, 모스크바 대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35.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4. 성스러운 왕실 순교자들:

니콜라이 2세 황제,

알렉산드라 황후,

왕세자 알렉세이, 대공녀 올가,

타티아나, 마리아, 아나스타시아,

불경한 권력에 의해 살해된 이들.

프로키멘, 7음조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왕이 기뻐하리니, / 당신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리이다.

절: 주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의 입이 구한 것을 주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0:2, 3

제99장.

할렐루야, 1음조

절: 왕은 주님을 의지하므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구절: 주님, 주의 능력으로 높이 들리소서! 우리가 주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시편 20:8, 14

그날,
성 안드레이 루블레프,
이콘 화가.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서문 334.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5. 아폰의 성 아파나시우스.

유해 발견

성 세르기우스 라도네즈키의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입니다.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을 수 있으리요?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8. 카잔의 성모 성화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구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240.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10. 주 하느님의 예복

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키멘, 7음조

우리의 주 하나님을 높이시며, / 그분의 발등상을 경배하라. 이는 거룩함이니라.

절: 주님께서 왕이 되셨으니, 열방이 분노하더라도.

시편 98:5, 1A

그리고 성자에게 바치는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합니다.

시편 115:6

제125A절과 성인을 위한 제213절.

할렐루야, 제1음조

절: 주께서 태초부터 얻으신 주의 무리를 기억하소서.

절: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시편 73:2A, 12

할렐루야, 경건한 이에게,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11. 대순교녀

모든 찬양을 받는 유프미아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 성도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절: 이스라엘의 샘물들 곁에서, 모임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시작 181.

할렐루야, 1음조

구절: 내가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셨도다.

구절: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셨도다.

시편 39:2, 3B

12. “세 손의 성모”라고 불리는

“세 손을 가진 성모”라 불리는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240.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13. 대천사 가브리엘 대축일

프로키멘, 4음조

주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 당신의 종들을 불꽃으로 지으시나이다.

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지극히 높으시도다.

시편 103:4, 1A

시작 305.

할렐루야, 5음조

구절: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구절: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생겨났고, 그분이 명하시니 그들이 창조되었도다.

시편

148:2, 5B

**15. 성 사도들과 동등한
위대한 공작 블라디미르**

프로키멘, 3음조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 우리 왕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절: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치고,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환호하라.

시편 46:7, 2

시작 200.

할렐루야, 6음조

구절: 내가 내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이셨도다.

구절: 보라, 내 손이 그를 붙들어 주며, 내 팔이 그를 굳건하게 하리라.

시편 88:20B, 22

7월 16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

성스러운 교부들

여섯 차례의 세계 공의회

음조의 프로키멘과 프로키멘, 4음조, 성부들의 찬가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시여, 찬미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소서.

단 3:26

일반 및 성부들의 시작, 334번.

알렐루야, 성조들의 음조, 제1음조

구절: 신들의 신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뜨는 동쪽에서부터 지는 서쪽까지 온 땅을 부르셨도다.

성구: 그분의 성도들을 그분께 모아 주십시오.

시편 49:1, 5A

19. 성 유해의 발견

성 세라핌 사로프의 유해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20. 성 엘리아 선지자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 영원한 제사장이시니이다.

구절: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나니,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밟아 놓을 때까지.”

시편 109:4B, 1

시작 57A.

할렐루야, 4음조

구절: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있고, 사무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있도다.

구절: 의인에게 빛이 비치고, 마음이 바른 자에게는 기쁨이 있도다.

시편 98:6A; 96:11

22. 사도와 동등한

마리아 막달레나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서 위대하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시라.

구절: 이스라엘의 샘물들에서, 모임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시작 141.

할렐루야, 1음조

구절: 내가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도다.

구절: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셨도다. 시편 39:2A, 3B

23. 포차예프 성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으리라. 루카 1:46-48

시작 320.

할렐루야, 제2음조

절: 일어나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성막이 함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8, 11A

24. 성스러운 순교자

보리스와 글레브 공작

프로키멘, 4음조

그분의 땅에 계신 성자들에게, /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소원을 놀랍게 나타내셨도다.

절: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으니,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5:3, 8

제99장.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슬픔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 20

25. 의로운 안나의 수면**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 성도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구절: 모임에서 이스라엘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시작 210B.

할렐루야, 1음조

구절: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주님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보호자 이시다.

시편 36:39

27. 대순교자**이자 치유자 판텔레이몬****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절: 이스라엘의 샘물들 곁에서, 모임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시작 292.

할렐루야, 2음조

성구: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28. 스몰렌스크 성화**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제240장.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께 간구하리니.

시편 44:11A, 13B

30. 순교자 요한 전사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구절: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시편 116편.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20

8월

1. 기원과 (이송)

주님의 생명의 십자가.

일곱 순교자 마카베오 형제들과,

그들의 어머니 솔로모니아

그리고 그들의 스승 엘레아자르

프로키멘, 6음조

주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주소서 / 그리고 당신의 유산을 축복주소서.

절: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지여,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묵과하지 마소서.

시편 27:9A, 1A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프로키멘, 4음조

주님께서는 땅 위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뜻을 놀랍게 나타내셨나이다.

시편 15:3

125A 절과 성인들의 시작, 330 절.

할렐루야, 4음조

절: 태초부터 얻으신 주의 무리를 기억주소서.

절: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왕이신 하느님께서는 땅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시편 73:2A, 12

그리고 성도들, 4음조

구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시편 33:18

2. 유해 이장

초대 순교자 스테파노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제17장.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들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진리를 알리나이다. 시편 88:6

6. 주님의 변모

프로키멘, 4음조

주님, 주의 행하심이 얼마나 위엄 있는지요, / 주께서는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나이다.

구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시도다.

시편 103:24A, 1

시작 65.

할렐루야, 8음조

구절: 하늘은 주님의 것이요,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구절: 승리의 함성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88:12A, 16A

7. 성 미트로판,

보로네즈 주교

축일 프로키멘과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이다.

시편 48:4

평범한 시작과 성인의 시작 318A.

축일과 성인을 위한 할렐루야, 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9. 성 마태 사도**축일과 사도를 위한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시편 18:5A

일반 서두와 사도 서두 2.**축일과 사도를 위한 알렐루야, 1음조**

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13. 변모 축일.

성 티호노,

보로네즈 주교

축일의 프로키멘, 4음조

주님, 주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위엄 있는지요, / 주님은 모든 것을 지혜로 지으셨나이다.

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시도다.

시편 103:24A, 1

그리고 성인을 위한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시편 48:4

일반 서두와 성직자용 서두 318A.**축일의 할렐루야, 8음조**

절: 하늘은 주님의 것이요, 땅도 주님의 것입니다.

절: 승리의 함성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88:12A, 16A

그리고 성자에게, 제2성가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도다.

시편 36:30, 31A

15.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수면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의 찬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구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240.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일어나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성막이 함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8,
11A

16.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상의 이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키멘, 4음조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절: 땅 끝 모든 곳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시편 97:1A, 3B

제250형상 서두와 일반 부분.

그리고 축일,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루카 1:46-47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주님, 주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걸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기뻐하리이다.

참조. 시편 88:16B-17A

그리고 축일의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일어나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성소를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8,
11A

23. 축일 마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수면

축일의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구절: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으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6-48

평일 및 축일의 시작, 240번째 시작.

축일의 할렐루야, 2음조

구절: 일어나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성소 궤가 함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8, 11A

24. 성 성 베드로, 모스크바 대주교

프로키멘, 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18A.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25. 성 유해 이장 사도 바르톨로메오의 유해. 사도 티토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시작 300A.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을 선포하리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A, 8A

26. 블라디미르 성화상 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송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240.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네 귀를 기울이라.

성구: 백성 중 부자들이 주의 얼굴을 간구하리이다.

시편 44:11A, 13B

29.
성 요한 세례자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절: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제33장.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구절: 주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들은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30.
신실한 대공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요?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31. 허리띠 묶기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도다.

절: 주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함을 돌보셨나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루카 1:46-48

시작 320.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일어나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성막이 함께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소서.

구절: 주님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라. **시편** 131:8, 11A

목차로.

프로키르나, 사도서, 알렐루야 성인들에게 바치는 공통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위한 예배

프로키멘, 제3음조, 성모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 내 영이 나의 구주이신 하느님을 기뻐하도다.

성구: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겸손을 돌보셨으니, 보라, 이제부터 모든 족속이 나를 복된 자라 일컬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6-48

혹은 프로키멘, 6음조

주님의 이름을 모든 족속과 세대에 걸쳐 기억하게 하리이다.

구절: 딸아, 들으라, 보라, 귀를 기울이라.

시편 44:18A, 11A

제240장, 또는 제320장.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들으소서, 딸아, 보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구절: 백성 중 부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리이다.

시편 44:11A, 13B

하늘의 존재들을 위한 예배

형체 없는

프로키멘, 4음조

주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영으로, / 당신의 종들을 불꽃으로 지으시나이다.

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지극히 높으시도다.

시편 103:4, 1A

시작 305.

할렐루야, 5음조

구절: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구절: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생겨났고, 그분이 명하시니 그들이 창조되었도다.

시편

148:2, 5B

선지자들을 위한 예배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구절: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밟게 할 때까지.”

시편 109:4B, 1

제156장, 또는 제314장, 또는 제57A장.

할렐루야, 5음조

구절: 모세와 아론은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 있고, 사무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있다.

구절: 의인에게 빛이 비치고, 마음이 바른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시 98:6A; 96:11

사도 예배

프로키멘, 8음조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 그들의 말이 우주의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절: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하늘의 궁창이 전하도다.

시편 18:5A, 2

시편 131편.

할렐루야, 1음조

구절: 하늘이 주님의 기적들을 선포하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주님의 진리를 알리나이다.

구절: 우리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8:6, 8A

성인 기념 미사

프로키멘, 제1음조

내 입술은 지혜를 선포하며, / 내 마음의 묵상은 분별을 나타내리라.

구절: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우주에 사는 모든 이여, 귀를 기울이라.

시편 48:4, 2

시작 318A.

할렐루야, 제2음조

구절: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는 공의를 선포하리라.

성인들을 위한 프로키르나, 사도송, 알리아리

구절: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6:30, 31

성인들을 위한 예배

프로키멘, 제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구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서문 335.

할렐루야, 2음조

구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을 입을 것이요, 주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성구: “그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발이 딛고 서셨던 곳에 경배합시다.” 시편 131:9, 7

성인들을 위한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스러운 광인들에게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이까? 시편 115:6, 3

시작 213.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순교자 예배

프로키멘, 7음조

의인은 주님을 기뻐하며, / 그분을 의지하리라.

구절: 하나님이지여, 제가 주께 기도할 때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시편 63:11A, 2A

시작 292.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번성하리라.

성인들을 위한 프로키мна, 사도송, 알리아리

구절: 주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자들은 꽃을 피우리라.

시편 91:13, 14

순교자들을 위한 예배

프로키멘, 4음조

그분의 땅에 계신 성도들에게, /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뜻을 놀랍게 나타내셨도다.

구절: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으니,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5:3, 8

제99장, 또는 제330장, 또는 제167B장.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의인들이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슬픔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성구: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으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리라. **시편 33:18, 20**

성순교자 기념 예배

프로키멘, 7음조

성도들이 영광 중에 찬양하며 / 자기 침상에서 기뻐하리라.

구절: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시편 149:5, 1

시작 334.

할렐루야, 2음조

구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을 입을 것이며, 주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구절: 우리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발이 밟으셨던 곳에 경배하리라.

시편 131:9, 7

성순교자들을 위한 예배

프로키멘, 7음조

주님 앞에서 귀중한 것은 /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구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주님께 무엇을 갚으리요? **시편 115:6, 3**

제318B절, 또는 제334절, 또는 제246절.

성인들을 위한 프로키мна, 사도송, 알리아리

할렐루야, 2음조

구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움을 입을 것이요, 주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즐거워하리라.

구절: 우리가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발이 밟으셨던 곳에 경배하리라. 시편 131:9, 7

예배

성인 순교자들을 위한

프로키멘, 7음조

성도들이 영광 중에 찬양하며 / 자기 침상에서 기뻐하리라.

절: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시편 149:5, 1

성순교자 제291조. 성순교자들 제99조.

할렐루야, 6음조

성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그분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시편 111:1, 2A

순교자들에 대한 예배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은 그 성도들 가운데서 경이로우시니,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구절: 이스라엘의 샘물들에서, 모임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67:36A, 27

제181조, 또는 제208A조.

할렐루야, 1음조

구절: 내가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셨도다.

구절: 주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바로잡아 주셨도다. 시편 39:2, 3B

예배

성녀들을 위한

순교자들과 같은 프로키멘과 할렐루야.

시작 208A.

성인들을 위한 프로키르나, 사도송, 알리아리

고백자들에게 드리는 예배

성고난자들에 대한 프로키멘과 알렐루야.

제233장, 또는 제318B장, 또는 제291장.

무보수 봉사자들에게 드리는 예배

순교자들을 위한 프로키멘.

제153장.

알렐루야, 2음조

절: 보라, 무엇이 이토록 아름답고 무엇이 이토록 기쁘는가?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뿐이다.

구절: 마치 에르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과 같으니, 주님께서 그곳에 복과 영원한 생명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32:1, 3

영혼의 안식을 위한 예배

프로키멘, 6음조

그들의 영혼이 / 복된 곳에 거하게 하소서.

절: 주님, 주님께 제 영혼을 드리오니, 나의 하나님이지여, 주님을 의지하오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참조: 시편 24:13A, 1-2A

월요일, 113번째 시작.	목요일, 160번째 시작.
화요일, 162번째 시작.	금요일, 163번째 시작.
수요일, 178번째 시작.	토요일 시작 270.

할렐루야, 8음조

절: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구절: 그들의 기억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참조: 시편 64:5; 44:18A

목차로.

프로키므, 사도서 및 알렐루야송 다양한 경우에

세례 성사 집전 시 세례 성사 집전 시

프로키멘, 제3음조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절: 주님은 내 생명의 보호자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6:1

제91장.

알렐루야에 대한 구절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행 시 결혼 성사

프로키멘, 8음조

주께서 그들의 머리에 보석으로 된 면류관을 씌우셨나니, / 그들이 주께 생명을 구하였사 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나이다.

구절: 주께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축복을 주시고, 주님의 면전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니.

참조. 시편 20:4B, 5A, 7

시작 230B.

할렐루야, 5음조

성구: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세대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 리이다.

시편 11:8

집전 시
성유 성사 집전 시

첫 번째 프로키멘, 1음조

주님,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절: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라 – 의인에게 합당한 찬양이니라.

시편 32:22, 1

서문 57B.

할렐루야, 8음조

구절: 주님, 저는 주님의 자비와 심판을 노래하리이다.

시편 100:1

두 번째 프로키멘, 2음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노래이신 주님, /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나이다.

구절: 주님께서 나를 훈계하시며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편

117:14, 18

제116편 서두.

할렐루야, 5음조

구절: 주님,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리이다.

시편 88:2A

세 번째 프로키멘, 제3음조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구절: 주님은 내 생명의 보호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6:1

제153장.

할렐루야, 제2음조

절: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30:2A

제4 프로키멘, 제4음조

내가 주님을 부를 그 날에, / 속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닿게 하소서.

시편 101:3C, 2

서문 182B.

할렐루야, 2음조

성구: 내가 인내로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시편 39:2A

다섯 번째 프로키멘, 5음조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니 / 이 세대에서부터 영원토록.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프로키르나, 사도송, 알리아리

구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의로운 자가 없나이다.

시편 11:8, 2A

제168장.

할렐루야, 5음조

구절: 주님,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노래하리이다.

시편 88:2A

여섯 번째 프로키멘, 6음조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크신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절: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지어 주시고, 내 안에 의로운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0:3A, 12

제213장.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가 주님의 계명을 깊이 사랑하리라. **시편** 111:1

일곱 번째 프로키멘, 7음조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구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연약하나이다.

시편 6:2, 3A

시편 273편.

할렐루야, 7음조

절: 주님께서 슬픔의 날에 너를 들으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시편**
19:2

수도사 서원식

프로키멘, 제3음조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구절: 주님은 내 생명의 보호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6:1

제233장.

할렐루야, 1음조

성구: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시편 33:7

평신도 장례식

프로키멘, 6음조

오늘 네가 걸어갈 그 길은 복되도다, 영혼아, / 네게 안식의 처소가 마련되었으니.

구절: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지여, 저를 외면하고 침묵하지 마소서.

참조: 이사야 23:14; 열왕기하 2:2; 요한복음 14:2; 요한계시록 14:13; 시편 27:1

시작 270.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조: 시편 64:5

수도사 장례식

프로키멘, 6음조

오늘 네가 걸어갈 그 길은 복되도다, 영혼아, / 네게 안식의 처소가 마련되었으니.

구절: 내 영혼아, 네 안식처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참조: 이사야 23:14; 열왕기하 2:2; 요한복음 14:2; 요한계시록 14:13; 시편 114:7

제270장.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

참조: 시편 64:5

사제들의 장례식

프로키멘, 6음조

오늘 네가 걸어갈 그 길은 복되도다, 영혼아, / 네게 안식의 처소가 마련되었으니.

구절: 내 영혼아, 네 안식처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참조: 이사야 23:14; 열왕기하 2:2; 요한복음 14:2; 요한계시록 14:13; 시편 114:7

제270장.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

참조: 시편 64:5

두 번째 프로키멘, 6음조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프로키르나, 사도송, 알리아리

구절: 하나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은 주께 합당하도다.

참조: 시편 64:5, 2A

제89장.

할렐루야, 제6음조

구절: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조: 시편 64:5

세 번째 프로키멘, 6음조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자는 복이 있도다.

구절: 그들의 기억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참조: 시편 64:5; 44:18A

제158장.

할렐루야, 6음조

절: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조: 시편 64:5

제4 프로키멘, 6음조

그의 영혼은 / 복된 곳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구절: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외면하고 침묵하지 마소서.

시편 24:13; 27:1A

시편 160편.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구절: 그의 자손은 땅에서 강해질 것이로다.

시편 111:1A, 2A

다섯 번째 프로키멘, 6음조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자는 복이 있도다.

구절: 그의 영혼은 복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참조: 시편 64:5; 24:13

제113장.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

구절: 그의 영혼은 복된 것들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참조: 시편 64:5; 24:13

유아 장례식용

프로키멘, 6음조

오늘 네가 걸어갈 그 길은 복되도다, 영혼아, / 네게 안식의 처소가 마련되었으니.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프로키르나, 사도송, 알리아리

성구: 내 영혼아, 네 안식처로 돌아가라. 주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참조: 이사야 23:14; 열왕기하 2:2; 요한복음 14:2; 요한계시록 14:13; 시편 114:7

제162장.

할렐루야, 6음조

구절: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

절: 그의 영혼은 복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참조: 시편 64:5; 24:13

작은 물 축복식

프로키멘, 제3음조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니, /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구절: 주님은 내 생명의 보호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6:1

시작 306.

할렐루야, 6음조

절: 내 마음이 선한 말을 쏟아 냈도다.

구절: 내가 내 행실을 왕께 아뢰입니다.

시편 44:2A

성전 봉헌식에서

프로키멘, 4음조

주님,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어울리나이다, / 영원토록.

구절: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셨으니, 위엄을 입으셨고, 주님께서 능력을 입으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셨도다.

시편 92:5B, 1A

시작 307.

할렐루야, 1음조

절: 그분의 터는 거룩한 산들 위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시온의 성문을 야곱의 모든 마을보다 더 사랑하시나이다.

구절: 하나님의 성이여, 네게 대해 영광스러운 말이 전해졌도다.

시편 86:1-2, 3

병자를 위한 예배

프로키멘, 제1음조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치소서, / 내가 주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노라.

구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난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리라. 시편 40:5, 2

57B절, 또는 210B절.

할렐루야, 8음조

구절: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118:132A

도시의 기원을 기념하며

프로키멘, 4음조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마땅하니, / 주님, 영원토록.

구절: 주께서 온 세상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92:5B, 1B

시작 40B.

할렐루야, 2음조

절: 그분의 기초는 거룩한 산 위에 있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시온의 성문을 야곱의 모든 마을보다 더 사랑하시나이다.

구절: 하나님의 성이여, 네게 대해 영광스러운 말이 전해졌도다.

시편 86:1-2, 3

가뭄 기간 중 예배

프로키멘, 4음조

땅의 고랑에 물을 주시고, / 그 열매를 풍성하게 하소서.

구절: 그분의 빗방울 아래서 땅은 기뻐하며 푸르러지리라.

참조. 시편 64:11

시작 57A.

할렐루야, 8음조

절: 주께서 한 해의 끝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시리니, 주님의 평야가 풍요로워지리라.

구절: 광야의 아름다운 곳들이 풍성해지고, 언덕들이 기쁨으로 둘러싸이리라.

시편 64:12, 13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프로키мна, 사도송, 알리아리

장기간 비가 내리는 기간 동안의 예배 장마철 예배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 물이 내 영혼까지 미쳤나이다.

절: 나는 깊은 진창에 빠졌으니,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시편 68:2, 3A

제98장.

할렐루야, 성가

절: 나를 진창에서 건져내어 빠지지 않게 하시고, 깊은 물에서 건져내소서.

구절: 물 위의 폭풍이 나를 가라앉히지 않게 하시고, 심연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하소서. 시편
68:15A-15C, 16A

지진 발생 시 예배 중 지진 발생 시 예배

프로키멘, 8음조

주님,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시편 37:2; 68:18A

시작 331B.

할렐루야, 5음조

구절: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쫓아내셨나이다.

구절: 주께서 땅을 뒤흔드시고 혼란에 빠뜨리셨나이다. 그 균열을 고쳐 주소서, 땅이 흔들
리고 있나이다.

시편 59:3A, 4

예배 중 화재 발생 시

프로키멘, 1음조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절: 보라,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나이다.

시편 32:22, 18

제332장.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프로키르나, 사도송, 알리아리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시니이다. 참조. 시편 102:8; 144:18

예배 중

전쟁 중

프로키멘, 1음조

주님은 굳건하시고 강하시며, / 주님은 전투에서 강하시다.

절: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 우주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23:8B, 1

시작 233.

할렐루야, 8음조

성구: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구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니, 우리를 심히 괴롭히는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시편 45:12, 2

예배 중

적의 공격 시

프로키멘, 4음조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 그 원수들이 흩어지리라.

절: 연기가 사라지듯, 그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시편 67:2A, 3A

시작 220A.

할렐루야

전투에서 적을 쳐부수시는 주님, 주님이 그분의 이름이시니이다.

출 15:3

평화를 위한 예배

프로키멘, 4음조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화를 주시나이다.

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나이다.

참조. 시편 118:165A; 54:9A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프로키르나, 사도송, 알리아리

시작 221.

할렐루야, 4음조

구절: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시편 121:6A

목차로.